

양육 시각장애 길라잡이

양육 지침서

시각장애

일러두기

- ★ 장애영유아 양육 가이드북은 모두 6권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제 1·2권은 발달장애, 제 3·4·5권은 시각·청각·지체장애(뇌병변장애), 제 6권은 공통 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 ★ 이 가이드북에서 발달장애는 주로 지적장애, 자폐성장애 및 발달지체를 통칭하는 용어로 사용합니다.
- ★ 지체장애 편에서는 주로 뇌병변장애 영유아를 다루었습니다.
- ★ 이 가이드북에서 장애영유아(0세부터 만 5세까지)는 장애인 등록을 하였던가나 특수교육대상자로 선정된 영유아, 그리고 장애인 등록을 하지 않았지만 장애위험을 지니고 있거나 발생 가능성이 높은 영유아를 의미합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만 5세 이상이지만 현재 유아교육기관을 이용하고 있는 아동도 일부 포함하고 있습니다.
- ★ 이 가이드북 내용 중에는 학계 의견이 일치되지 않거나 현재 계속 연구 중에 있는 등 논란의 여지가 있는 내용도 일부 포함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
- ★ 이 가이드북에서 사용된 용어는 각 장애 영역 혹은 집필자의 학문적 배경에 따라 약간씩 다를 수 있습니다.

본 자료에서 제시하는 내용은 국립특수교육원의 공식 견해가 아니라 연구진의 견해를 밝히려 합니다.

장애자녀를 양육할 때 가족의 역할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것이 양육 초기 단계라면 더욱 그러합니다. 부모의 올바른 양육 정보가 초기 장애를 개선하는데 매우 큰 효과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는 장애자녀뿐만 아니라 가족 전체의 삶에도 매우 긍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습니다.

양육 초기단계의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양육’에 초점을 둔 자료는 그동안 개발되지 못했습니다. 이 시기의 부모들은 장애를 처음으로 인식하게 되어 혼란을 겪는 시기임에도 이를 지원하는 방안과 자료들은 부족한 것이 사실이었습니다.

이에 국립특수교육원은 ‘양육’과 ‘부모’, ‘양육 초기단계’에 초점을 두고 본 가이드북을 개발하고자 하였습니다. 물론 이 사업의 가장 강력한 동력은 부모님들의 뜨거운 열망이었습니다. 장애자녀 양육에 가장 중요한 시기인 ‘영유아’ 단계에 집중하여 ‘부모님을 위한’ 자료를 만들고자 노력하였습니다. 그렇기에 쉽고 이해하기 쉬우며 휴대하기 편한 모양의 가이드북이어야 했습니다.

완성된 가이드북은 총 6권으로, 제1권 발달장애-양육지식·정보, 제2권은 발달장애-양육기술, 제3권 시각장애, 제4권 청각장애, 제5권 지적장애, 제6권 공통-가족지원입니다. 각 권은 자녀의 발달단계와 장애영역에 따라 양육 정보 및 기술, 교육·심리, 의료·복지서비스, 학부모 네트워크 정보 등의 폭넓은 내용을 담았습니다.

부모님들을 위한 양육 지원 사업은 이제 첫 발걸음을 떼었습니다. 이번 가이드북을 시작으로 향후 발전된 모습의 후속 가이드북이 속속 개발되어 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모쪼록 이 가이드북이 부모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적셔드리는 좋은 도구가 되면 좋겠습니다. 나아가 사랑스러운 자녀들이 자라는 데 유용한 양분이 되면 좋겠습니다.

국립특수교육원은 앞으로도 특수교육의 사랑을 실천하며, 현장중심에서 부모님과 소통하는 기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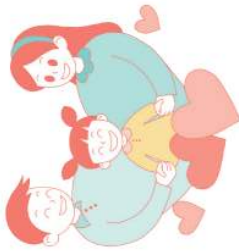
감사합니다.

2016년 11월
국립특수교육원장 우이규

01

*

시각장애의 이해와 복지



- 12 1. 시각장애의 이해
- 18 2. 시각장애 영유아의 특성
- 19 3. 시각장애 영유아 교육기관
- 22 4. 시각장애인의 직업 현황
- 30 5. 교육 방법
- 37 6. 장애아동 복지 서비스 제도

02

*

시각장애 영유아의 일상생활기술



- 42 1. 건강관리
- 46 2. 식사관 지도
- 49 3. 언어발달 및 의사소통
- 55 4. 잔존 감각 개발

03

*

시각장애 영유아의 교육



- 62 1. 교육기관 입학 준비
- 66 2. 문제행동 대응
- 73 3. 배변 훈련
- 75 4. 의복 착·탈의
- 78 5. 가정환경 구성
- 82 6. 위험상황 대처

04

*

시각장애 영유아 가족지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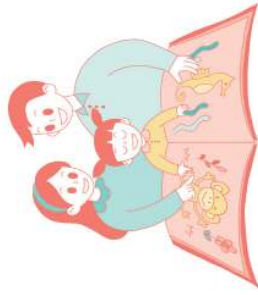


- 88 1. 양육자의 역량 강화
- 93 2. 비장애 형제자매와의
 긍정적 관계 형성
- 97 3. 가족기능 강화
- 100 4. 시각장애인에 대한
 인식 개선

05

*

시각장애
영유아를 위한
점자와 보행교육



106 1. 점자와 보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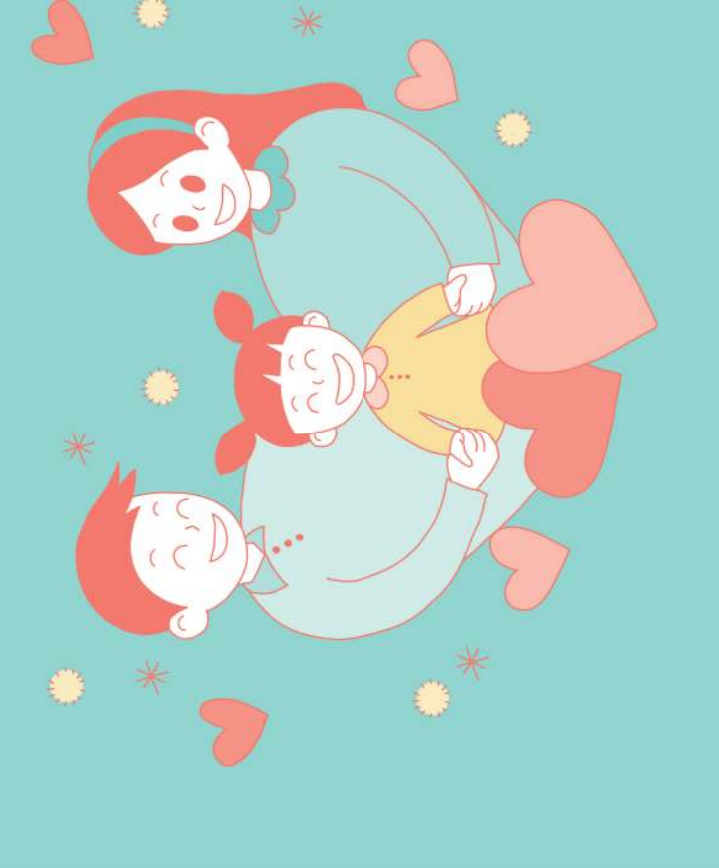
부록

- 113 시각장애인용 도서가
무엇인가요?
- 115 우리 아이에게 필요한 책,
시각장애인용 도서로 제작이
가능한가요?
- 117 시각장애인 보조공학기구
- 118 양육 사례
- 132 시각장애 관련 학교, 복지관,
도서관

01

Par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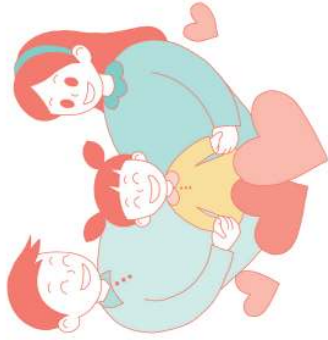
시각장애의 이해와 복지



시각장애의 이해	▶	시각장애 영유아의 특성	▶	시각장애 영유아 교육기관	▶	시각장애인의 직업 현황	▶	교육 방법	▶	장애아동 복지 서비스	▶
12p		18p		19p		22p		30p		37p	

시각장애는 전맹에서부터 저시력까지 보이는 형태와 정도가 매우 다양합니다.
이러한 시각장애 영유아를 바르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기초적인 눈의 구조와 질환별로
보이는 형태에 대해 알아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01 시각장애의 이해와 복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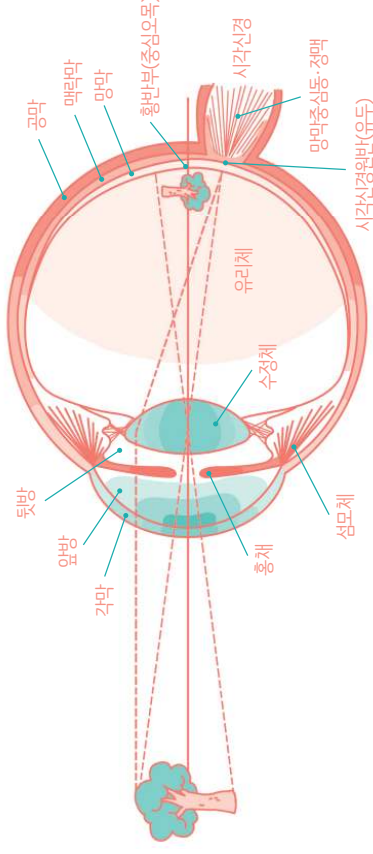
1. 시각장애의 이해

① 눈의 구조와 기능

눈은 크게 눈알(안구)과 눈 부속 기관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 중에서 눈알은 3개의 얇은 막인 외막, 중막, 내막이 3개의 안내용물(수정체, 유리체, 방수)을 감싸고 있는 형태입니다.

이 중에서 빛의 이동 경로에 있는 눈의 주요 기관에는 각막, 홍채, 방수, 수정체, 망막, 시신경 등이 있습니다.

| 눈알의 구조 |



눈	눈알	
	외막	각막
중막	홍채	
	섬모체	
내막	망막	
	수정체	
안내용물	유리체	
	방수	
눈 부속 기관	안와, 눈꺼풀, 결막, 눈물기관, 외안근, 신경, 혈관	

각막	• 눈에 들어오는 빛을 굴절시킴
홍채	• 눈에 들어오는 빛의 양을 조절함. 카메라의 조리개 역할을 함
방수	• 안압을 일정하게 유지하여 각막의 형태를 광학적으로 유지
수정체	• 눈에 들어오는 빛을 굴절시킴 • 두께 조절을 통해 가까이 혹은 멀리 있는 사물에 초점을 맞추게 함
망막	• 눈에 들어온 빛의 상이 맺히는 곳으로 카메라의 필름에 해당함
시신경	• 망막에 맺힌 상이 이동하는 경로임
시각 중추	• 후두엽에 위치하며 시신경으로부터 들어온 정보를 통해 사물을 인지함

② 시력 발달

우리는 다음의 과정을 통해 사물을 보게 됩니다. 즉 어떤 사물이 빛에 반사되어 눈의 망막에 초점이 맺혔을 때 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상이 시신경을 통해 뇌의 후두엽에 있는 시각 중추에 전달되었을 때 인지하게 됩니다.



위와 같은 경로를 통해 사물을 보지만 태어나면서부터 시력이 좋지는 않습니다. 출생시의 시력은 큰 사물의 형태만 구분할 수 있을 정도이며, 이후의 시력 발달은 다음과 같습니다.

연령	시력	시력 발달 내용
출생 직후	광각	간헐적인 주시 능력
생후 3개월	0.008	추체의 발달이 완성
생후 3~4개월		조절 능력이 완성
생후 6개월	0.02	황반부의 발달이 완성
생후 9개월	0.08	
생후 1년(만 1세)	0.4	
2세	0.5	
3세	0.7~0.8	
4세	0.8~0.9	
5~6세	1.0	양안시, 입체시 발달 완성
10~12세	1.2~1.5	성인의 안축으로 성장

출처: 최혜정 외, 1999, p. 33.

③ 시각장애의 정의

일반적으로 시각장애를 맹과 저시력으로 구분합니다. 나라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지만 교정시력 0.1 이하를 맹, 0.1~0.3 사이를 저시력이라고 합니다.

- 맹 교정시력이 0.1 이하 혹은 시야가 20도 이하인 경우
- 저시력 교정시력이 0.1 ~ 0.3 이하인 경우

우리나라에서는 「장애인복지법」(2016)에서 그 법적 정의를 찾아 볼 수 있습니다. 「장애인복지법」에서는 시각장애를 맹과 저시력으로 나누지 않고 1급에서 6급 까지 나누어 급수에 따라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장애 등급	장애 정도	비고
1급 1호	좋은 눈의 시력이 0.02 이하	인전 지수 포함
2급 1호	좋은 눈의 시력이 0.04 이하	
3급 1호	좋은 눈의 시력이 0.06 이하	
3급 2호	두 눈의 시야가 각각 주시점에서 5도 이하	
4급 1호	좋은 눈의 시력이 0.1 이하	
4급 2호	두 눈의 시야가 각각 주시점에서 10도 이하	
5급 1호	좋은 눈의 시력이 0.2 이하	
5급 2호	두 눈의 시야의 1/2을 잃은 경우	한 눈을 실명한 경우 해당 안됨
6급 1호	나쁜 눈의 시력이 0.02 이하	



교정시력이란?

좋은 쪽 눈을 교정하고 측정한 시력을 말하는 것으로 검안 결과 필요한 렌즈 및 각종 보조 기기를 착용한 상태에서 측정한 시력을 말합니다.

저시력과 약시가 어떻게 다른가요?

저시력과 약시는 의미상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저시력은 시력이 어느 정도 발달되었다가 여러 안과 질환으로 인하여 시력이 나빠진 상태를 말하는 것으로 시력 범위는 0.1~0.3 사이를 말합니다. 반면 약시는 안과적으로 문제는 없는데 주로 외부 환경에 의해 시력이 덜 발달한 상태를 말하는 것으로 시력의 범위는 0.7 혹은 0.8까지를 말합니다.

4 시각장애 진단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제공하는 연령별 영유아 검진 ‘문진표’의 일부입니다. 다음의 표에 해당하는 사항이 있는지 확인하고 항목 중 ‘예’에 해당하는 항목이 하나라도 있다면 가까운 안과에 가서 검진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4~12 개월	1	아이가 눈을 잘 맞추니까?	예	아니오
	2	눈동자의 위치가 이상합니까? (안쪽으로 물리거나 초점 없이 밖으로 향합니까?)	예	아니오
	3	검은 눈동자(동공)가 흔들립니까?	예	아니오
	4	가족 중에 눈과 관련된 유전 질환을 가진 사람이 있습니까?	예	아니오
18~24 개월	1	눈을 잘 맞추지 못하거나 눈동자가 흔들립니까?	예	아니오
	2	검은 눈동자(동공)가 흔들립니까?	예	아니오
	3	정면(앞에 있는 사물)을 볼 때 늘 얼굴을 돌려 옆으로 쳐다보거나 고개를 기울이고 보는 편입니까?	예	아니오
	4	책, TV, 물건 등에 너무 가까이 다가가서 보거나 찡그리고 볼니까?	예	아니오
30~36 개월	1	눈동자의 위치가 이상합니까?	예	아니오
	2	정면(앞에 있는 사물)을 볼 때 늘 얼굴을 돌려 옆으로 쳐다보거나 고개를 기울이고 보는 편입니까?	예	아니오
	3	책, TV, 물건 등에 너무 가까이 다가가서 보거나 찡그리고 볼니까?	예	아니오
	4	아이의 한쪽 눈을 가리고 보게 했을 때 두 눈의 시력이 서로 다르다고 느껴집니까?	예	아니오
42~48 개월	1	눈을 잘 맞추지 못하거나 눈동자가 흔들립니까?	예	아니오
	2	정면(앞에 있는 사물)을 볼 때 늘 얼굴을 돌려 옆으로 쳐다보거나 고개를 기울이고 보는 편입니까?	예	아니오
	3	책, TV, 물건 등에 너무 가까이 다가가서 보거나 찡그리고 볼니까?	예	아니오
	4	아이의 한쪽 눈을 가리고 보게 했을 때 두 눈의 시력이 서로 다르다고 느껴집니까?	예	아니오

5 질환별 특징

시각장애의 원인은 다양합니다. 각막에서부터 망막을 거쳐 뇌의 후두엽(시각 중추)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부위에서 발생하는 질환 때문에 시각장애가 될 수 있습니다. 주요 부위별로 많이 발생하는 질환과 특징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부위	주요 질환	보이는 형태	주요 특징 및 조치
각막	각막궤양	거의 보이지 않음	• 각막 이식을 통해 시력 회복 가능
홍채	홍채염증증	눈부심이 심함	• 적절한 조도, 모자, 선글라스 필요
수정체	백내장		• 자외선 노출 주의 • 번쩍이는 환경 요소 제거 • 인공수정체 이식 수술 필요
	안구진탕	안구가 흔들림	• 보고자 하는 사물에 초점 맞추기(고시) 훈련 필요
	녹내장		• 안압 유지 위해 안약을 활용 • 스트레스를 주지 않아야 함
	망막색소변성		• 진행성 • 지속적인 시력 관찰이 필요
망막	당뇨망막병증		• 인슐린 주사 활용 • 적절한 운동 필요 • 땀이 되었을 경우, 점자를 제외한 청각 자료 제공
	황반변성		• 가장자리 시야로 사물을 보는(중심외보기) 훈련 필요 • 색깔 구별에 어려움이 있음 • 확대경이나 망원경 제공
시각경로	반맹		• 시각 경로 일부가 손상을 받았을 경우 발생 • 적절한 시기는 훈련 제공

2. 시각장애 영유아의 특성

① 운동적 특성

일반적으로 영유아는 시각적 자극을 통해 신체적 활동을 하게됨으로써 운동 기능이 발달합니다. 영유아의 신체 발달에 있어 시각장애가 결정적인 영향을 주지는 않으나, 시각적 자극이 주어지지 않는 영유아는 움직임에 대한 동기가 부족할 뿐만 아니라 신체적인 움직임을 눈으로 모방하는 것이 매우 부족해 다양한 신체 기능을 습득하고 익힐 수 있는 기회를 가지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② 인지적 특성

시각 손상은 지각과 개념 형성 그리고 언어발달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오감을 통해 받아들이는 정보를 통합하는 기능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개념 습득에 시간이 더 걸릴 수 있습니다. 또한, 시각장애로 인하여 일반 아동에 비해 경험의 기회가 줄어들게 되므로 이에 상응하는 다양한 노력이 요구됩니다.

③ 언어적 특성

언어를 배우고 이해하려는 강한 동기 때문에 언어 습득에는 큰 어려움을 가지지 않으나, 비언어적인 의사소통 수단인 얼굴 표정이나 눈짓, 몸동작의 사용방식에서 조금의 차이가 있기는 합니다. 또한 직접 경험해보지 않은 하늘, 안개, 구름 등과 같은 단어들의 경우 잘 알기는 하나 미사여구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④ 정서, 사회, 인성적 특성

시각장애로 인하여 사회적 상호작용이 어렵기 때문에 시각적 관찰과 모방을 통해서 습득하게 되는 사회성 기술의 습득이 지체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상동행동을 보이거나, 낯선 상황에 대한 과민한 두려움을 표현하기도 하며, 부모와 떨어저 있을 때, 새로운 상황이나 일을 접할 때 이를 거부하는 경우가 가끔 있습니다.

3. 시각장애 영유아 교육기관

우리 아이에게 알맞은 교육기관은 어느 곳일까요? 기관별 특성을 꼼꼼히 잘 살펴보고 자녀에게 적합한 교육기관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기관 유형	특성
유아특수학교	- 만 0~5세 대상으로 하는 유치원 특수학교 - 영유아만을 대상으로, 교육과정 운영의 특성상 유아 발달에 적합한 교육과정, 교수 방법, 치료지원 실시
유치원(통합 유치원, 일반유치원)	- 만 3세 이상의 유아 교육 - 유치원 일반학급에 통합하거나 특수학급에서 교육 - 각 시도 교육청 공립 초등학교 병설유치원 내 특수학급
어린이집 (어린이집, 장애아 전문 어린이집)	- 만 0~12세의 영아~초등학생 대상 보육 실시 - 장애아 전문 어린이집: 장애아는 물론 비장애아동도 일정 비율 이내에 함께 보육, 치료지원 실시 - 장애아 통합 어린이집: 장애아 전담교사를 배치, 미취학 장애아 3명 이상 통합 보육 실시
특수학교 유치원	- 만 3~5세 장애 유아를 대상으로 교육 실시 - 특수학교에 편성된 유치원 과정의 학급으로 특수학교의 다양한 제도, 치료지원을 받을 수 있음
특수교육지원센터 장애영아교실	- 만 3세 미만 특수교육대상자 중 센터로 배치된 영아를 대상으로 교육 실시 - 센터 방문 교육, 통신 교육, 체험 교육, 1대1 수업 및 그룹 형태의 수업 진행



특수교육지원센터에서는?

특수교육 지원(순회교육, 치료지원, 보조기기 지원, 보조인력 관리, 가족지원, 상담 등)

- 특수교육 대상 학생 정보 관리
- 특수교육 대상 학생 진단·평가 및 선정·배치 지원
- 통합교육 지원 및 관련서비스 제공
- 진로·직업교육 지원 강화 및 지역사회 유관기관 협력체제 구축
- 장애영유아 지원 및 장애 조기 발견
- 장애학생 성폭력 및 인권침해 예방교육을 위한 상설모니터단 운영

출처: 서울특별시교육청 특수교육지원센터



질문 있어요!

어디로 가야 할까요! 특수학교 유치원으로 가야 할까요, 일반유치원에 가야 할까요?

시각장애 영유아 부모님은 교육기관을 선택할 때, 특수학교 내 유치원과 일반유치원 중 어느 곳에 보내야 할지 결정을 해야 합니다. 이때 각 기관의 장·단점과 우리 아이의 특성에 맞는 기관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특수학교 유치부의 장점

특수학교 유치부는 대부분의 교사가 특수교육을 전공한 분들로서 일반유치원 교육과정
을 장애 특성 및 수준에 따라 수업을 진행하여 시각 보상 능력을 보다 체계적으로 훈련할 수
있는 곳입니다. 또한, 학교 자체 행사도 많이 구성되어 있고 영유아의 자신감을 고취시켜주
는 수업이 많아 통합교육 상황에서보다도 주체적인 활동을 할 기회가 많습니다.

• 일반유치원의 장점

일반유치원에 입학하여 통합교육을 받을 경우에는 자기 또래의 학생들과 함께 어울려 공
부하면서 다양한 환경에서의 사회 적응 능력을 신장시키고 의사소통기법을 향상시키며 사
회적 기술을 상시로 교육받을 수 있습니다.

(중략)

일반학교에 보내는 통합교육 상황에서는 일반학급에 배치하여 완전 통합시키거나 특수
학급에 배치하여 부분 통합을 하는 것으로 다시 나눌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문제는 정답이 없습니다. 결단과 실행 그리고 적응이 중요합니다.

〈참고〉 “학령전 장애아동의 초등학교 진학지도” 조윤경(한국성서대 영유아교육학과 교수)
찾기쉬운생활법령정보 <http://oneclick.law.go.kr/CSP/Main.laf>

1 교육기관의 입학 절차

교육기관 입학 절차 및 대상

시각장애 영유아의 입학은 먼저 각 교육청의 특수교육지원센터에서 특수교육대
상자로 선정되어 배치를 받은 후 이루어집니다. 특수교육대상자는 특수교육이 필

요한 영유아를 말하며 특수교육지원센터의 진단·평가 후 결정됩니다.

- 시각장애 및 시각중복장애(뇌병변 등)로 인해 특수교육을 필요로 하는 유아
- 장애인 복지카드 없이 의사의 판단으로 시각의 결함이나 손상이 있을 경우 특수교육지
원센터의 진단평가를 거쳐 특수교육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입학 가능한 교육기관 유형

교육기관 유형은 크게 ①일반유치원의 일반학급 ②일반유치원의 특수학급 ③특
수학교 유치부 및 유치원 과정만 운영하는 특수학교 ④어린이집으로 나눌 수 있습
니다. 일반유치원의 특수학급에서는 또래와 함께 개인의 교육적 요구에 적합한 교
육을 받을 수 있으며, 시각장애 영유아만 다니는 특수학교 유치원은 특수교사에
의한 전문적인 교육을 받을 수 있습니다. 대체로 9~10월경 신입생 원서교부자가 이
뤄지고 이후 학교별로 입학이 결정됩니다. 일반유치원에 입학시키고자 할 때는 사
전에 유치원과 교육청에 문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tip

교육기관별 입학 절차

교육기관에 입학하려면 거주하고 있는 주소지의 특수교육지원센터에 보호자가 직접 방
문하여 서류를 제출합니다.

- 시각장애학교(특수학교) 배치 희망 유아: 특수학교 입학 상담 안내
- 유치원(특수학급), 장애 전문 어린이집, 장애 전문 어린이집 배치 희망 유아: 특수학급 설치
유치원 중 등교 가능한 근거리 학교인지 여부 확인
- 유치원(일반학급) 배치 희망 학생: 주민등록상 거주지에서 근거리 확인

〈참고〉 특수교육지원센터지원사이트 http://support.nise.go.kr/index_http.jsp

4. 시각장애인의 직업 현황

시각장애인이 통합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자신감 있고 행복한 삶을 영위해 가기 위해서는 경제적 자립이 중요합니다. 따라서 어려서부터 자신의 적성을 발견하고 역량을 키워 꿈을 실현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합니다.

① 시각장애인의 직업 진출 현황

시각장애인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넓은 분야에서 직업을 갖고 사회 생활을 영위해 가고 있습니다. 외국에 비하면 아직까지 제한적인 직종에 편중되어 있지만 법과 제도의 보장 강화, 높은 교육열, 국가 및 민간 기관의 서비스 확대로 시각장애인의 직업 진출의 기회는 점차 넓어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시각장애인의 고용률은 37.6%(2015 장애인경제활동실태조사)로 여성보다는 남성, 중증보다는 경증 그리고 고학력 시각장애인일수록 직업을 가질 확률이 높습니다.

전행

전행은 전통적으로 안마, 침술, 예술 등에 종사하였으나 최근에는 개인의 역량에 따라 다양한 분야의 직업에 진출함으로써 점차 그 영역을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 시각장애인의 직업 진출 변화 ↓

과거	현재
안마사, 침술인, 예술인	법조인(판사, 변호사), 일반·특수학교 교사, 방송인(아나운서, 방송진행자), 행정직 공무원, 사회복지 종사자, 음악가(성악가, 기악인), 상담사, 프로그램 개발자, 보조공학 관련 종사자 등.

그러나, 대부분의 전행은 장애를 배려한 근무 환경이 잘 갖추어져 있고, 안정적으로 고용을 보장받는 교육·공공 행정·사회복지 서비스업 등의 직종을 선호합니다.



공무원 시험 준비에 도움을 받으려면

시각장애인의
행정직 공무원 및
교사 임용 증가

임용 고시 준비에 필요한 정보 및
학습도서의 신속한 제작 지원 서비스 중요

관련서비스 지원기관

- 공직자 대비반 운영: 임용정보 및 임용대비학원 강의지원 / 노원시각장애인복지관(02-950-0114)
- 학습도서 제작·2주서비스: 수험서 제작 지원 / 한국시각장애인복지관(02-440-5250)
- 이용자 맞춤형 제작 지원: 국립장애인도서관, 각 지역 시각장애인복지관

사례 ↓

성공은 나의 힘

이상재(하트채임버오케스트라 감독/교수)

나를 사랑하는 사람만이 타인을 사랑할 수 있고, 나를 사랑하는 사람만이 세상을 긍정적인 시선으로 바라볼 수 있다는 말이 있습니다. 평생을 지고 가야 할 장애를 수용하고, 그 속에서 삶의 무한한 가능성을 발견한 사람들.. 남들이 불가능하다고 말하는 점으로 힘든 성취를 이루어낸 사람들에게는 어떤 특별함이 있을까요? 나를 사랑하는 방법은 누구에게서 배우고, 나를 긍정하는 힘은 무엇에서 얻은 것일까요?

어린 시절 시력을 잃고 어둠 속에서 갈 길을 몰라 헤매고 있을 때, 나를 부끄러워하지 않던 아나, 오히려 비장애인인 두 동생보다 항상 앞에 내세우고 집에 찾아 온 직장 동료나 이웃에게 따뜻하게, '우리 큰 아들이야. 눈이 안 보여서 맹학교 다니는데, 공부도 잘 하고, 기숙사에서도 씩씩하게 잘 지내. 학교에서 인기도 많고...' 하고 말씀하시던 아버지를 기억합니다. 초등학교 때, 방학이 되면 저녁상을 물리고 한 두 시간씩 뒷방에 불러 참고서를 불러주시고, 대학을 다닐 때, 1,000페이지에 달하는 음악사 책을 모두 읽어 녹음해주신 어머니의 애절한 경사도 억양도 귀에 생생하네요.

저시력

저시력은 잔존 시력에 의한 업무 수행 정도에 따라 화가, 바리스타 등 시력이 요구되는 직종을 포함하여 전맹이 주로 종사하는 안마에 이르기까지 직업 선택의 폭이 넓습니다. 그러나 저시력인은 본인의 장에 질환과 시력 저하의 진행 정도를 정확히 진단받아 눈의 피로도가 적은 직종을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우리나라는 시각장애인의 안정적인 직업 생활을 위하여 안마사자격 취득을 시각장애인에게만 허용함으로써 비장애인과 경쟁하지 않고 유보 직종으로 안마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보장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안마사자격을 취득한 시각장애인인 안마시술소, 안마원 그리고 헬스키퍼* 등의 진출이 가능합니다.

시각장애인의 직업 개발에 있어서는 안마업이 일정 수준 이상의 수입을 보장하고 있어 새로운 직업에 대한 진출 희망자의 수가 적습니다. 이로 인해 일반적으로 시각장애인이 진출 가능한 직종의 개발은 아직까지 활발하지 못한 상황입니다.

* 헬스키퍼(Health Keeper)

기업 등에 설치된 안마시설에서 직원의 건강관리 등을 담당하는 국가자격안마사



유보고용이란?

일정한 직종을 지정하여 그 직종에 대해서는 시각장애인을 우선적으로 고용토록 하는 제도로써 중증장애인에게 직업의 기회 제공 목적

국명	장애유형	유보 직종	제도 내용
미국	시각 장애인	자판기, 카페테리아 운영	연방정부 및 주정부, 공공기관 내 운영권 우선 분양
캐나다	시각 장애인	자판기 운영	주정부 또는 공공기관 내 운영권 우선 분양
대만	시각 장애인	안마업	
영국	장애인	승강기 안내원, 주차안내원, 전화교환원	
일본	시각 장애인	안마업	병원, 진료소에서 지압과 안마 직종의 70%를 고용
스웨덴	시각 장애인	복권판매업	시각장애인협회가 복권운영권을 갖고 시각장애인이 복권 판매
한국	시각 장애인	안마사	안마사자격 취득을 시각장애인에게만 허용

출처: 대한안마사협회 <http://www.anmaup.or.kr/>

녹음서도 없고, 컴퓨터로 책을 읽을 수도 없었던 70년대, 헤밍웨이나 헤르만 헤세, 한국 단편들을 꾸벅꾸벅 졸면서도 형을 위해 읽어주던 동생, 밤을 머다기도 큰형이 도착할 시간이 되면 술가락을 놓고 마중 나오던 막내의 밝고 활달한 모습도 떠오릅니다.



이상재

하트케임버오키스트라
감독/교수



최유림

교사



이창훈

앵커

장애인이 비장애인들을 중심으로 맞추어진 세상에서 그들과 경쟁하며, 무언가를 달성해냈을 때에는 반드시 그 장애인의 눈이나 귀, 손과 발이 되어준 사람이 있습니다. 내 경우도 대학 4년 미국 유학 6년, 맹학교를 떠나 비장애인들과 함께 경쟁하며 보낸 배움의 시간이 10년입니다. 강의실을 찾아가는 단순한 일부터 논문 작성을 위한 불어나 독일어로 된 참고 자료를 검색하는 지식과 인내가 필요한 작업까지 모두 친구와 선·후배들의 도움을 받았습니다. 나는 그들에게 주저없이 부탁했고 또 도움을 준 사람들에게는 가장 기쁜 목소리로 감사를 표현했습니다. 때로 거절을 당하기도 했지만, 그것을 오래 가슴 속에 가지고 있지 않았습시다. 망설이지 않았고 겁내지 않았으며 움츠리지 않았습시다.

장애인의 직업에 대해 이야기할 때 많은 사람들을 특히 그 장애인들의 양육을 책임진 부모님들이 '이렇게 다들 직장을 못 구해서 힘들어하는데, 장애가 있는 내 자식은 도대체 무얼 가르쳐서 혼자 먹고 살 수 있도록 해야 하나?' 하고 묻습니다. 나의 대답은 오로지 한 가지 '부모님의 사랑과 헌신, 형제자매의 도움과 배려, 그 속에서 자연스레 커가는 장애인의 자신에 대한 진정한 존중과 긍정'이 그것이라고 자신있게 말합니다.

사실, 내가 미국 유학을 결심했을 때 혼자서는 불가능하다고 절대 안 된다고 가장 많이 반대하신 분들이 부모님이었고, 또 첫 외국 길에 무거운 이민 가방을 함께 들고 동행해주신 분이 어머니였으며 아들이 떠나는 길을 축복해 주시려 공항에 나왔다가 씩씩한 해군 장교 체면에, '힘들면 언제든 그만 두고 돌아 와라. 아무도 너를 탓하지 않는다. 절대 억지로 힘든 것 참아가며 고생하지 말고 못 견디겠으면 한 달이라도 괜찮다 바로 와라.'하며 눈시울을 붉힌 분이 내 아버지였습니다. 지금도 나를 위해 누구보다도 열심히 기도해주시고 하루하루의 삶을 꿈꿔해하시고 나의 성공과 발전을 기뻐하시는 분들입니다.

자신이 원하는 일을 주저 없이 선택하고 그 선택을 믿으며 끝까지 나아갈 수 있는 힘 그것은 가장 가까이에 있는 가족의 사랑과 헌신 실질적인 도움과 따뜻한 배려에서 출발합니다. 깊이 사랑하고 최선을 다해 도와주고 아끼고 존중해 주세요. 무엇보다 해낼 수 있는 긍정의 힘 정재로 인한 많은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희망의 에너지가 생기겠지요.

2 직업을 위한 준비

직업을 찾기 위해서는 시각장애인 아동의 특성(장애 정도, 성격, 강점)과 적성을 먼저 파악한 후, 이 강점을 통해 실현 가능한 직종을 탐색합니다. 그리고 그 직종에 관한 정보를 수집하고, 성취 가능한 목표를 단계적으로 설정하여 준비해 나가야 합니다. 성공한 시각장애인의 대부분은 어려서부터 자신의 적성과 강점을 발견하여 노력함으로써 본인의 꿈을 이루었습니다.

직업을 갖는다는 것은 성인으로서 통합사회에서 비장애인과 경쟁하며 살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일상생활에 대한 자립능력을 기본으로 직업에 필요한 지식과 자격을 갖추고 원만한 사회 생활을 위한 관계 기술 훈련이 필요합니다.

직무에 필요한 기본 역량

장애를 극복하고 원만하게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갖추어야 할 역량은 다음과 같습니다.

* 이동 능력

독립 보행은 시각장애인의 자립 생활에서 가장 기본적으로 갖추어야 할 능력입니다. 최근 중증 장애인 활동 보조인 서비스 등으로 독립 보행에 대한 욕구가 낮아졌으나 사회 활동을 하는 시각장애인은 반드시 독립적인 이동 능력을 갖추어야 합니다.

독립 보행 기술은 다른 사람의 도움 없이 자신의 위치를 파악하고 원하는 장소로 안전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하여 자신감 있는 직장 생활을 돕습니다.

이동 능력에는 대중교통을 활용하는 기술이 포함됩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버스를 제외한 항공·철도·지하철·택시 등의 교통수단에서 시각장애인에게 편의를 제공하고 있으며 시각장애인은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더욱 편리하게 활용하고 있습니다.



교통약자 배려 서비스란?

교통약자(장애인, 노약자)의 안전한 대중교통 이용을 돕기 위하여 지하철 및 철도·항공 회사에서 지원하는 서비스. 승차·환승 및 하차 후 다른 대중교통수단으로의 연계까지 밀착 안내해 주는 서비스.

* 이용 방법

① **지하철**: 전국의 해당 노선의 철도공사나 해당 역에 전화로 도움을 요청하면 도착 시간에 맞추어 직원이 미중을 나와서 안내 및 환승을 도우며 하차 시에는 외부 출구까지 안내

* 스마트폰 이용자는 앱(지하철 헬퍼, 카카오톡하철 등...)의 활용으로 해당 역 전화번호 빠른 조회 가능

② **철도**: 발권 창구에 신청

③ **항공**: 공항 각 항공사 카운터에 신청

④ **차량 지원**: 각 지역에서 운영하는 장애인콜택시(예: 서울 복지콜) 또는 시각장애인연합회 지회에서 운영하는 심부름 콜택시 활용 가능

* 정보 접근 능력

원활한 직무 수행과 전문성 유지를 위해서 지속적인 지식 습득과 정보 공유가 요구되고 있으며, 장애인 정보화 교육의 확대, 보조공학기기의 개발로 장애인의 정보 접근성은 크게 향상되고 있습니다.

정보 접근에 필요한 컴퓨터와 자신에게 맞는 보조공학기기의 활용 능력은 지식정보 사회에서 시각장애인이 겪는 정보 접근의 어려움을 극복하는데 가장 중요한 기술입니다.



장애인 보조공학기기 지원 사업이란?

장애인의 고용촉진과 직업생활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직업생활에 필요한 각종 보조공학 기기를 고용유지조건이나 무상으로 지원하는 제도.

* 신청대상

- 1 장애인 고용한 사업주 또는 고용하려는 사업주
- 2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공무원이 아닌 장애인 근로자 대상)
- 3 지원신청 당시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지 않거나 4명 이하의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장애인 사업주(장애인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거나 고용하려는 사업주에 한함)
- 4 장애인 근로자(출퇴근을 위한 자동차 개조 및 차량용 보조공학기기 지원에 한함)

보조공학기기 체험전시장(Happy Space) 전시안내

장애인의 직업생활 및 일상생활에 필요한 각종 보조공학기기 상설 전시 (정보접근, 작업기구, 의사소통, 사무보조, 일상생활, 휠체어 등 다양한 보조공학기기를 각 영역별로 상설 전시)

출처: 한국장애인고용공단 <https://www.lead.or.kr/>

* 지식 및 업무 처리 능력

통합사회에서 경쟁력 있는 실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전문적 업무 지식과 책임감 있는 업무 수행이 필수적입니다. 그러나 시각장애인은 시각적 탐색과 경험이 제한되어 있어 예상치 못한 문제에 대처하는 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따라서 업무와 관련된 지식을 학습하고 간접 경험을 축적하여 전문기로서 능숙하게 해결해 가는 능력을 키워야 합니다.



정보통신 보조기기 보급 사업이란?

신체적·경제적으로 정보통신에 대한 접근과 활용이 어려운 장애인을 대상으로 정보화를 통한 사회 통합을 유도하고 정보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정보통신 보조기기 구매를 지원함.

1 지원내역: 보조기기 제품 가격의 80%지원(본인 부담금 20%)

* 저소득 장애인의 경우 본인 부담금의 50% 추가 지원

2 보급품목: 장애유형에 적합한 정보통신보조기기 및 특수 S/W

3 보조기기 전시 및 체험: 정보통신보조기기 체험전시장(진흥원 1층)

출처: 한국정보화진흥원-정보통신보조기기 <http://www.at4u.or.kr/>

* 환경 적응력 및 자립 생활

성인으로서의 자립은 가정과 학교에서의 배려받았던 환경을 벗어나, 이제는 시각장애인 당사자가 독립적으로 일반 환경에 적응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므로 환경변화에 대한 적응력을 높이고 일상생활에 있어 다른 사람 도움 없이 스스로 해결하려는 의지와 자립 능력을 갖추어야 합니다.

* 의사소통 및 사회 기술

사회생활은 직무 수행뿐만 아니라 사람들과의 관계 형성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나 시각장애인은 비언어적 소통(표정, 몸짓, 분위기 등)에 공감하지 못하여 고립되기 쉽습니다. 따라서 다른 사람들에 대하여 항상 관심을 갖고 적극적인 참여 자세를 가짐으로써 동료간에 우호적이고 동등한 관계를 형성해가야 합니다. 이는 심리적으로 안정감 있는 사회생활을 하는데 도움이 됩니다.

3 직업 훈련 교육기관

시각장애인이 가장 많이 진출한 전통적인 안마와 침술 교육은 시각장애 특수학교(맹학교)나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한 안마 수련 기관(대한안마사협회)에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 교육과정을 통해 안마사 자격을 취득한 후, 안마사나 기업의 헬스케어 등 안마업에 종사합니다.

일부 시각장애인 관련 기관에서는 시각장애인이 현재 종사하고 있는 직종에 대한 직업 훈련과 시대 변화를 반영한 새로운 직종 개발을 위해 시범적인 교육과정을 운영하기도 합니다. 이 훈련 과정은 변동가능성이 있어 해당 기관에 상담한 후 이용해야 합니다.

직업재활 프로그램 기관 소개

훈련 과정	기관	대표번호
안마 창업		
피부미용 훈련	노원시각장애인복지관	02-950-0114
숙기사 양성 과정	서울시각장애인복지관	02-422-8108
역학인 양성 과정	성북시각장애인복지관	02-923-4555
장애인 맞춤형 창업 교육		
베이커리 창업 훈련		
바리스타 양성 과정		
점역·교정사 양성 과정	실로암시각장애인복지관	02-880-0500
안마·지압 창업 훈련 과정		
컴퓨터활용 전문가 양성 과정		

* 자세한 사항은 해당 기관 홈페이지 참조

5. 교육 방법

시각장애 영유아는 시각 능력이 상실되어 있거나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감각과 개념을 발달시키고 기본적인 방향 정위와 이동 훈련이 필요합니다. 또한 장애 특성에 맞는 다양한 치료지원 서비스도 요구됩니다.

1 시각장애 영유아의 교육 방법

일상생활 훈련

일상생활에 필요한 지식과 기술을 익혀 가정과 유치원 그리고 사회에서 안전한 고 독립적인 생활을 하도록 돕는 영역입니다.



식사하기

식사 전 오늘 식단과 그릇 위치 알려 주기, 유아의 손을 잡고 테이블 위 탐색하기

옷 입기

옷의 앞뒤 구별을 위한 마크 확인하기, 신발이나 장갑의 좌우 구별하기, 자주 입는 옷에 표시하기(매듭, 점자 꼬리표, 안전핀 등)

건강 및 안전한 생활

적정한 양의 치약 짜기, 수도의 뜨거운 물과 찬물 구분하기, 화장실 표시 구분하기

방향 정위와 이동 훈련

안전하고 독립적이며 효율적으로 이동할 수 있는 보행 기술을 습득하여 독립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돕는 영역입니다.

- 여러 가지 자극에 반응하기
- 소리에 의한 정보 활용하기
- 간단한 지시에 따르기
- 이동과 관계되는 질문에 반응하기
- 보행 자세 바르게 하기
- 신체 부위 기능과 동작 인식하기
- 방향을 잡기 위하여 왼쪽과 오른쪽 사용하기
- 방향 이해하기, 크기 비교하기
- 방향과 위치 개념 사용하기
- 지표와 단서 사용하기
 - 지표(항상 고정적으로 있는 것 예: 문, 창문)
 - 단서 (고정적이지는 않으나 결정적인 힌트가 되는 것으로 예: 음식점에서 나는 냄새, 창문으로 들어오는 빛 등)
- 환경 변별하기
- 모양 인식하기
- 보행 기초 기술 사용하기
- 보행할 때의 태도와 바람직한 행동하기



이렇게 해보세요

소리가 나는 곳을 향해 똑바로 걸어가기 → 도음을 받아 이동한 후 혼자서 이동해 보기 → 바른 자세로 걷기 → 혼자 걸어본 경험을 말로 표현해 보기

감각 · 운동 · 지각 훈련

대 · 소근육 운동 기능의 발달을 촉진하며 일상생활에서 신체를 적절히 조절하여 감각과 운동 간의 협응을 통해 지각 기능을 기르기 위한 영역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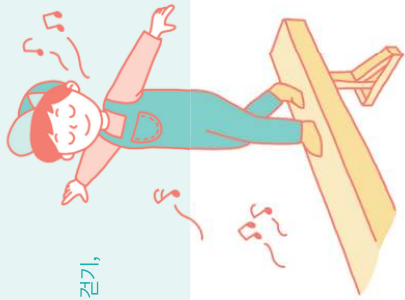
- 자세 유지와 관련된 기능: 앉기 자세, 무릎 서기 자세, 서기 자세에서 신체 균형 유지하기
- 주의집중력 향상 기능: 일정한 물체에 주목하기, 주어진 과제에 열중하기, 움직이는 물체에 주목하기 등
- 시각·청각·후각·미각·촉각적 자극의 변별 기능
- 사물의 감각적 식별 기능
- 시각-운동 협응력 기능
- 공간 위치 지각 기능
- 감각 통합 기능
- 도형-배경 지각 기능
- 공간 관계 지각 기능
- 대근육 운동과 관련된 기본적인 신체 기능
- 시기는 효율성 기능



이렇게 해보세요

걸음걸이를 바르게 하기 위한 활동

공 주머니 이고 걷기, 무릎 붙이고 걷기, 평균대 걷기, 윗몸 일으키기, 리듬 맞추어 걷기



tip

전맹 유아

전맹 유아는 시각 상실로 인하여 다른 보상 감각에 의존하고 있어 촉각, 청각 등의 감각을 활용한 교육매체를 활용합니다.

• 점자, 촉각 및 청각 교육 자료나 보조기구

예 글자 기치를 만들어 끝말잇기 게임을 진행할 경우, 시각장애 유아를 위하여 모루를 이용하여 글자를 입체적으로 표현하거나 자석글자를 이용하여 시각장애 유아의 직접 만져 글자를 읽어 끝말잇기를 할 수 있도록 한다. 또한 그림 자료의 경우 시각장애 아동 동물도감과 같이 울록불록한 점으로 그림을 입체감 있게 표현하거나 3D 프린터를 이용한 촉각 자료를 사용하여 시각장애 유아의 그림을 느낄 수 있게 한다.

저시력 유아

저시력 유아는 생활과 학습에 필요한 잔존시력을 활용하는데 초점을 두어 보조공학기기(시각 매체(예: 큰 활자책, 확대그림책 등))를 이용합니다.

- 색칠하기 활동을 할 경우 일반 유아들보다 색칠해야 하는 그림의 테두리를 더 진하고 두껍게 그려줌
- 잔존 시력을 충분히 활용할 수 있도록 눈으로 보고 그리기, 눈으로 보고 설명하기, 물건이 숨어 있는 곳 찾기(보물찾기)등의 활동 제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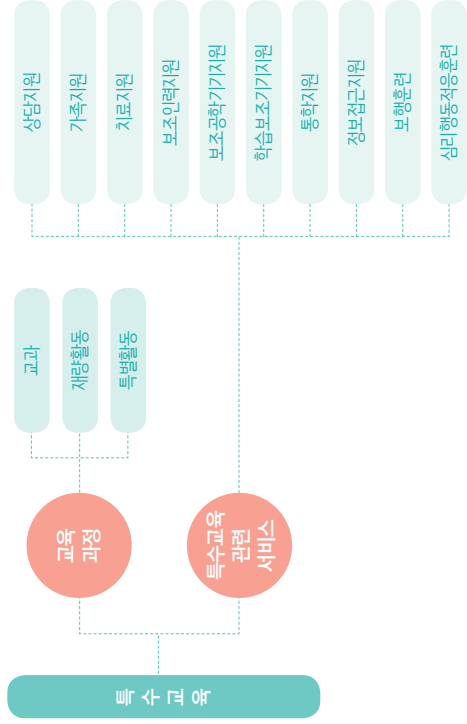
2 치료지원

특수교육 관련서비스

특수교육은 교육과정과 특수교육 관련서비스로 이루어집니다. 교육과정은 일반 교육에서 볼 수 있는 공통 교육과정이며, 특수교육 관련서비스는 특수교육대상자

의 교육을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적·물적 자원을 제공하는 서비스를 말합니다. 여기에는 상담지원, 가족지원, 치료지원, 보조인력 지원, 보조공학기기 지원, 학습보조기기 지원, 통학지원, 정보접근 지원, 보행훈련, 심리·행동 적응 훈련 등의 10가지 서비스가 있습니다.

| 특수교육과 특수교육 관련서비스 |



치료지원 방법

① 치료지원 대상은 유·초·중·고등학교 과정에 재학하는 특수교육대상자 중 치료지원이 필요한 학생입니다.

- 진단·평가 결과통지서를 바탕으로 해당학교 개별화교육지원팀에서 치료지원 영역 결정

② 장애영아의 치료지원은 교육지원청 특수교육지원센터의 지원 계획에 따릅니다.

③ 치료지원 영역

- 물리치료, 작업치료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28조 제2항)
- 언어·청능, 미술·음악, 행동·놀이·심리, 감각·운동(보건복지부 발달재활서비스 영역)
- 감각 통합 치료

※ 보건복지부 또는 타 기관 지원을 받고 있는 영역에 대해서는 지원하지 않습니다

④ 치료지원 금액은 월 12만 원이며, 1일 3만 원 이내에서 횡수 제한 없이 실비로 지원합니다.

⑤ 치료지원 방법은 전자카드(군센카드) 사용을 원칙으로 하며, 부득이한 사정으로 전자카드를 사용하지 어려운 경우에 한하여 기타 방법을 사용하되 전자카드와 기타 방법을 병행할 수 없습니다.

⑥ 대상자 선정, 절차, 치료지원 전자카드 사용 등 구체적인 사항은 『시·도교육청 치료지원 운영 지침』에 따릅니다.



치료지원과 발달재활서비스의 비교

구분	치료지원	발달재활서비스
서비스대상	• (모집단) 특수교육대상자 - 치료지원이 필요한 것으로 진단·평가된 학생	• (모집단) 장애인 - 만 18세 미만 - 전국가구평균소득 150% 이하
장애유형	• 전 장애유형 • 장애인 등록을 하지 않은 학생 21.9% 포함	• 뇌병변장애, 시각장애, 청각장애, 언어장애, 지적장애, 자폐성장애를 가진 아동 * 영유아(만 6세 미만)의 경우 발달재활서비스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의사진단서와 감시치료로 대체 가능
서비스내용	• 물리치료, 작업치료, 언어재활 등 제공 - (한시적)대학(원) 양성영역 등	• 물리치료, 작업치료 제공 불가 - 언어·청능치료, 미술·음악치료, 행동·놀이·심리, 감각·운동 등
대상자선정	• 교육적 진단·평가	• 지자체의 소득조사
제공방법	• 치료사, 배우자, 유관기관 활용 등	• 배우자로 100% 제공
제공인력	• 국가면허소지자, 국가공인 민간자격 소지자 • 관련학과 전공자 중 채용 • 민간자격 소지자	• 국가자격증, 국가공인 민간자격증 소지자 • 관련학과 전공자 중 채용
소요예산	• 월 평균 12만원	• 1인당 14~22만원 지원

3 재활 치료

시각중복장애 영유아를 위한 다양한 발달재활서비스가 있습니다. 단순 시각장애 영유아는 재활 치료 서비스 대상인지의 여부를 별도로 판단합니다.

발달재활서비스

장애아동 발달재활서비스는 성장기 정신적·감각적 장애아동의 인지, 의사소통, 적응 행동, 감각·운동 등의 기능 향상과 행동 발달을 위한 서비스입니다. 주 민센터에 신청하면 서비스 제공 여부를 통지받게 됩니다.

*서비스 대상자

장애인복지관에서는 장애아동에 대한 교육재활 사업이 실시되고 있습니다.

분류	내용
연령	연령 만 18세 미만 (특수학교 재학생은 만 20세까지 연장 가능)
장애 유형	뇌병변, 지적, 자폐성, 청각장애, 의사소통장애, 시각장애
소득 기준	전국 가구 평균 소득 150% 이하로 소득별 차등 지원 (4인 가구 150% 이하, 710만 4천원)
기타 요건	만 6세 미만의 경우 상기 유형의 장애가 예견될 경우 의사 진단서와 검사 자료로 대체 가능

*서비스 내용

언어·청능, 미술·음악, 행동·놀이·심리, 감각·운동 치료 등의 재활 치료 서비스와 장애 조기 발견 및 발달 진단 서비스 중재를 위한 부모 상담 서비스가 실시됩니다.

*바우처 지원액

월 22만 원 중 본인 부담금을 제외한 바우처 지원액의 경우 기초생활수급자(다형)는 면제됩니다. 차상위계층(가형)은 월 20만 원, 차상위 초과 전국 가구 평균 소득 50% 이하(나형)는 월 18만 원, 50~100% 이하(리형)는 월 15만 원, 100~150% 이하(마형)는 월 14만 원이 지원됩니다.

6. 장애아동 복지 서비스 제도

1 보육 서비스

장애인복지관 사업에는 특히 장애아동에 대한 교육 재활사업이 실시되고 있습니다.

주요내용	사업의 예
교육 재활 서비스	•조기 교육(영유아, 아동 등) •통합교육, 부모 교육, 컴퓨터 교육 •학습 지도(취학 아동 교육, 문자 교육, 검정고시)

2 장애아동 수당

「국민 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차상위 계층(120% 이하)의 18세 미만 제1 등 장애 영유아에게는 수당을 차등 지급합니다.

분류	지원 금액
기초수급 중증 장애인	월 20만 원 / 1인당
기초수급 경증 장애인	월 10만 원 / 1인당
차상위 중증 장애인	월 15만 원 / 1인당
차상위 경증 장애인	월 10만 원 / 1인당
보장 시설 입소 중증 장애인	월 7만 원 / 1인당
보장 시설 입소 경증 장애인	월 2만 원 / 1인당

3 장애아동 무상 보육료 지원

보육시설을 이용하는 만 12세 이하의 장애아동에 대해 무상 보육료를 지원합니다. 장애 진단서를 제출한 만 5세 이하 아동, 특수교육대상자 진단·평가 결과 통과지를 제출한 만 4~8세 아동을 대상으로 월 394,000원을 지원합니다.

4 장애인 의료비 지원

의료 급여 2종 수급권자인 장애인, 차상위 의료 급여 2종 수급권자였던 만성질환자, 18세 미만 장애아동을 대상으로 의료비를 지원합니다.

분류	지원 금액
1차 의료 급여 기관 진료	• 본인 부담금 1,500원 중 750원 (원내 직접 조제) • 본인 부담금 1,000원 중 750원 (그 이외의 경우)
2, 3차 의료 급여 및 국공립 결핵병원 진료	• 의료 급여수가 적용 본인 부담진료비 15% 전액 (암, 심장, 뇌혈관 질환은 10%)
의료 급여 적용 보장구 구입 시	• 상한액 범위 내에서 본인 부담금(15%) 전액

5 장애인활동지원 제도

만 6~65세 미만의 1~3급 장애인으로 판정받고 인정조사표에서 220점 이상일 경우 신변 처리, 가사·일상생활지원, 의사소통·이동 보조 서비스를 지원합니다. 월 40~100시간(독거장애인은 최대 180시간) 지원됩니다.

6 장애인 생활 지원

중증 장애인 요양 시설, 장애 영유아 생활 시설(6세 미만), 실비 장애인 생활 시설 등이 있습니다. 지역 사회의 재활 시설 중에서 거주할 수 있는 곳은 장애인 주간 보호 시설, 단기 보호 시설, 공동 생활 가정 등이 있습니다.



tip

사회서비스란?

일반적인 의미에서 개인 또는 사회 전체의 복지증진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사회적으로 제공되는 서비스를 말하며 공공 행정(일반 행정, 환경, 안전), 사회 복지(보육, 아동, 장애인, 노인 보호), 보건 의료(간병, 간호), 교육(방과 후 활동, 특수교육), 문화(도서관, 박물관, 미술관 등 문화 시설 운영)를 포괄하는 개념입니다.

·전자바우처란?

바우처는 이용 가능한 서비스의 금액이나 수량이 기재된 증표(이용권)로 전자 바우처는 서비스 신청, 이용, 비용 지불/정산 등의 전 과정을 전산 시스템으로 처리하는 전달 수단을 말합니다.

출처: 보건복지부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http://www.socialservice.or.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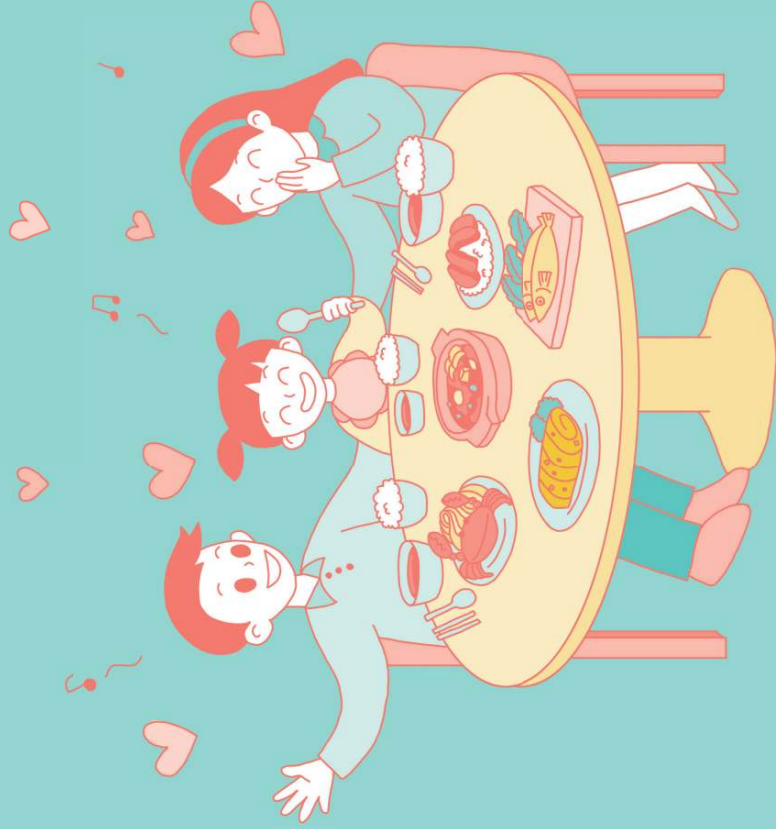
보조기구를 사용하는 시각장애 유아

보조기구를 사용하여 작업치료하는 모습

02

Part

시각장애 영유아의 일상생활기술



건강
관리



42p

식습관
지도



46p

언어발달 및 의
사소통



49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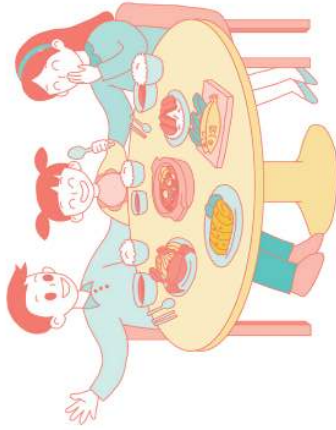
전통 감각
개발



55p

영유아의 정상적 발육을 위해서는 올바른 건강관리와 발달 단계에 맞는 일상생활
기술의 습득이 매우 중요합니다.

시각장애 영유아의 일상생활기술



1. 건강관리

① 밤낮이 바뀌지 않은 규칙적인 수면 습관 훈련

영유아가 가지는 공통적인 수면 문제는 밤에 자주 잠을 깨거나, 자리에 눕히기 힘들거나, 또는 아침 일찍 잠을 깨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시기에 규칙적이고 정상적인 수면 습관을 길러주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따라서 잠자기 전에는 주위를 조용하게 만들고 아기에게 좀 더 애정과 관심을 기울여서 편안한 시간이 되게 해야 합니다.

밤과 낮 구분하기

대부분의 영유아가 보이는 수면 문제는 낮과 밤을 제대로 구분하지 못하기 때문

입니다. 따라서 수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낮과 밤을 구분할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합니다. 시각장애 영유아도 낮에 발생하는 소리와 소음으로 낮과 밤을 구분할 수 있습니다. 꾸준히 낮과 밤의 시간적 변화를 알려주고 취침을 유도하면 시각장애 영유아도 밤에 지는 것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지게 됩니다.

의학 상식

우리 뇌의 송과체에서 분비되는 멜라토닌은 수면제이다. 송과체는 눈의 망막에 있는 신경과 연결되어 밝고 어두움을 감지하므로, 밤이 되면 멜라토닌을 생산하여 우리를 잠들게 한다. 시각장애인 중 빛을 감지하지 못하는 경우, 멜라토닌의 분비가 비정상적인 패턴을 보이거나, 내재적인 생체 시계의 주기만을 따르므로 수면장애가 많이 나타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출처: Sack R. L. and Lewy A. J.(2001) Circadian rhythm sleep disorders: lessons from the blind Sleep Med Rev5(3), 189-206
Skene D. J. and Arendt J. (2007) Circadian rhythm sleep disorders in the blind and their treatment with melatonin Sleep Med 8, 651-655

수면을 돕는 그림책 효과

영유아가 부모의 말을 조금이라도 이해할 수 있을 정도가 되면 잠자기 전에 일상생활의 간단한 용품(열쇠 꾸러미, 플라스틱 컵, 숟가락, 빗, 플라스틱 접시 등이 담긴 바구니)을 가지고 옆에 앉아 하나하나 짚으며 이름을 말하게 합니다. 이것은 일반 영유아가 잠자기 전에 엄마와 함께 그림책을 보는 것과 같은 효과를 냅니다 (술라미드 카드타인 외, 1994).

자장가 불러 주기와 수면 유도 음악 듣기

흔들어 주거나 자장가를 불러주는 것도 편안한 수면을 유도하는데 도움이 됩니다. 수면 유도 음악을 들려주는 경우에는 영유아가 들을 수 있을 정도로 볼륨을 낮추어 수면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다른 요인 찾아보기

중복장애는 불규칙한 수면 습관을 가져오는 또 다른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처럼 시각 외 다른 요인 등으로 수면 문제가 오랫동안 지속될 수 있으므로, 부모님은 영유아의 수면 습관이 개선되지 않는다면 또 다른 요인은 없는지 확인해 보아야 합니다.

| 사례 |

Kjw1967(별은엄마 카페)

빛 감지가 안 되어서 밤낮을 구분하지 못하면 밤에 분비되는 숙면호르몬이 불규칙하게 나타납니다. 부모로서는 무척 힘드시겠지만, 1~2년 정도 훈련을 하면 아기의 인지 발달에 따라 점차 밤에 자는 것을 체득하게 됩니다. 강제로 재우면 아기들이 상당한 스트레스를 받거나 경기하는 경우도 있어 정서발달에 좋지 않으니, 부모가 고생스럽더라도 가능한 한 낮에 많은 활동을 유도하기 바랍니다.

tip 연근, 우엉, 우유, 바나나와 호두를 먹으면 수면에 도움이 됩니다.

② 양치 지도

시각장애 영유아는 감각이 예민하기 때문에 칫솔이나 치약을 거부할 수도 있어 건강한 치아 관리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따라서 조기에 올바른 양치 습관을 갖게 하는 것이 치아 건강을 위해 매우 중요합니다.

칫솔질에 대한 거부감 없애기

손가락으로 자신의 입안을 만지게 한 뒤, 손가락에 끼는 실리콘 칫솔을 사용합니다. 만약 실리콘 칫솔을 거부하면 치약이 묻지 않은 부드러운 칫솔을 가지고 놀게 한 뒤 점차 익숙해지면 자극적이지 않고 좋아하는 향의 치약을 사용하여 양치하는 습관을 길러줍니다.

부모의 양치 소리 듣기

시각장애 영유아는 시각적 모방이 어렵기 때문에 부모의 양치 소리를 듣게하여 양치에 대한 관심을 갖게 해야 합니다. 또한 이를 닦는 이유, 이를 닦는 시간, 이

닦을 때 필요한 도구가 무엇인지를 설명해주고 만져보게 하면 더욱 효과적인 교육이 됩니다.

양치물 빨기

양치를 시작한 영유아가 가장 어려워하는 것은 양치물을 삼키지 않고 빨는 것입니다. 양치물을 빨는데 익숙해지려면 치약을 사용하기 전 물을 빨어내는 기술을 습득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목욕할 때 먹어도 되는 깨끗한 물을 입에 담고 있다가 벨도록 하고, 이 때 부모는 영유아의 손바닥에 물을 빨어 영유아가 청각적, 촉각적 경험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합니다. 또한 작은 컵을 사용하여 물이 입으로 들어가 컵이 비는 것을 확인하도록 하고 다시 컵에 빨아 물이 차는 것을 확인하도록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물을 벨도록 하는 방법은 매우 다양합니다. 어떤 부모는 물에 과일이나 채소 등을 조그만 조각으로 넣어 벨 수 있도록 유도하기도 하고 또 어떤 부모는 샤워기로 입에 물을 부어 더 이상 삼키지 못해 벨는 법을 터득하게 하기도 합니다. 이와 같이 일상생활에서 감각을 활용한 다양한 방법을 적용하여 지도하는 것이 좋습니다.

의학 상식

선천적 시각장애가 있는 경우 종종 치아 이상이 동반되곤 하는데, 특히 유치는 악한 치질로 인하여 충치에 걸리기도 쉽고 잘 부서진다. 시각장애의 원인이 발생 과정 중 외배엽 이상에 있다면 치아 이상은 영구치에서도 나타나는데, 영구치의 법랑질(제일 바깥의 단단한 부분)이 약해지지 치아 개수가 부족한 경우가 있다. 이러한 경우 충치나 치아 손실을 줄이기 위해 예방적 수복이 필요하므로, 유치에서는 악한 치질을 보호하는 인공치관(이를 전체적으로 싸우는 방법)을 시술하기도 하며 영구치는 최대한의 불소 도포나 실란트 등의 예방적 처치와 수복치로(아말감, 레진, 세라믹 등)를 병행한다.

출처: 심수현, 장애인외 치과치료 매뉴얼, 파라다이스북재단

2. 학습관 지도

식사 시간은 가족 간의 친밀감을 확인하고 행복감을 느낄 수 있는 시간입니다. 영유아는 식사하는 동안 다른 가족들이 서로 주고받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가족의 일원임을 인식하게 됩니다. 이때 가족들이 영유아와 신체적인 접촉을 하고 식사와 관련된 대화를 하게 되면 많은 도움이 됩니다.

① 유동식의 시작

유동식은 소아과 의사가 권고할 때 바로 시작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시각장애 영유아의 경우는 음식을 입으로 가져갈 때 후각 및 청각적 신호를 주어 식사에 대해 기대할 수 있도록 합니다. 또한 음식을 먹이기 전에 부엌으로 데리고 가서 다양한 소리를 들려주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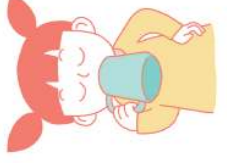
② 편식 예방

거부하는 식품은 억지로 먹이지 말고 시간을 두고 영유아가 받아들일 때까지 기다립니다. 유동식을 잘 먹게 되면 소아과 의사가 권하는 대로 영유아가 먹을 수 있는 다양한 식품을 주어 편식을 예방하도록 합니다.

③ 유동식 먹는 자세

유동식을 먹는 자세는 다양하지만 어떤 자세든지 일단 길들여진 다음에는 이를 교정하기 매우 어려우므로 정해진 장소에서 바른 자세로 먹는 습관을 기릅니다.

4 식사보조도구 활용



컵

뚜껑이 없는 일반 컵을 사용하여 훈련을 시작합니다. 액체를 따르 기 전 두 손으로 컵의 인덱스를 만져보도록 하고 목이 마를 때 주스로 시작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액체를 쏟았을 때는 아기 손으로 쏟 은 액체를 만져보게 합니다. 실수하더라도 혼내지 마시고 부모로서 인내심을 가지고 지켜보면 컵을 자유롭게 다루는 능력이 생깁니다. 걷기 시작하면 물을 마시고 난 후 사용한 컵을 재차리에 두는 훈련 을 시작합니다. 부모에게서 컵을 직접 건네 받은 경우, 컵을 사용한 이후 허공에 컵을 놓는 경우가 있습니다. 따라서 부모는 영유아가 사용한 컵을 내려 놓을 장소를 지정해 주어야 합니다.



손가락으로 집어먹기

손가락을 효과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손으로 음식을 집어먹는 충분한 훈련이 필요합니다. 부모님께서서는 주위가 어질러질 것을 각 오하시고 신문지나 비닐 등으로 손쉽게 정리할 수 있도록 준비하시 기 바랍니다. 음식이 담긴 접시를 내 뺄 때는 얇은 목소리로 타 이르며 아기 손을 잡아바르게 놓도록 합니다.



손가락으로 먹기

손으로 잘 집어 먹는 아이는 손가락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때 푸 덩이나 아이스크림처럼 손가락에 잘 붙는 음식으로 시작하는 것이 좋습니다. 손가락을 잘 사용하게 되면 다른 손으로 그릇이 미끄러 지지 않도록 잡는 법을 가르쳐줍니다. 지체 장애로 손가락을 제대 로 쥘 수 없는 아이들을 위해 고안된 특별한 손가락을 활용할 수도 있습니다.



포크로 먹기

숟가락 사용이 익숙해지면 포크 사용을 가르칩니다. 이때 숟가락을 다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하며 포크 사용이 익숙해지면 젓가락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합니다.



벨은 음식 처리

아기가 주무른 음식이나 내벨은 음식은 아기뿐만 한쪽에 냅킨을 접어놓고 쉽게 찾아 음식을 싸서 버리게 합니다(솔라미드 카드타 인 외, 1994).

5 시각중복장애 영유아의 식습관 지도

고형 음식의 섭취를 어려워하거나 삼키는 데 어려움이 있는 영유아는 되도록 천천히 고형식을 시작하며, 음식을 으개거나 미서기로 곱게 갈아 유동식으로 주어야 합니다. 유동식 재료는 일반 영유아와 같으나 섭취를 거부하는 식품은 같은 영양군의 다른 재료로 대체합니다. 잘 앉지 못하는 영유아는 상체를 약간 일으켜 음식이 기도로 넘어가지 않게 하고 작은 숟가락이나 약병을 이용해 입안으로 조금씩 음식을 흘려 넣어줍니다. 지속적으로 뱉어내는 경우에는 좋아하는 주스, 우유 등과 번갈아 먹이거나 살짝 섞어 먹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3. 언어발달 및 의사소통

시각장애 영유아의 부모는 대부분 자녀가 걷기 시작하면 다음 단계로 자녀의 언어에 대한 고민을 주변인들에게 호소하고 있습니다. 말문이 트이지 않는 영유아, 말은 하지만 혼자 중얼거리며 상호작용이 되지 않는 영유아 등 고민의 내용은 다양합니다.

1 시각장애 영유아의 언어발달 특성

말하기 문제

말을 할 연령이 되어도 말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영유아의 심리 사회적인 배경, 청각장애, 비정상적인 조음기관의 구조, 근육 조절의 부족, 신경 장애 등이 언어발달 지체를 일으키는 지 의사와 상담합니다.

반향어의 지속

시각장애 영유아는 자신이 들은 단어, 질문, 문장을 의미 없이 따라서 반복합니다. 반향이 고요적인 의사소통 수단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하나 사회적인 상호작용을 위해서 영유아의 반응을 모델링하여 새로운 의사소통 방법을 개발하도록 도와주어야 합니다. 즉 부모가 “과자 출까?”라고 묻자 영유아가 “과자 출까?”라고 모방한다면, “과자 주세요”로 영유아가 할 말을 부모가 모델로 보여주고 따라서 하도록 합니다.

대명사 혼용

시각장애 영유아들은 대명사를 잘못 사용하여 자신을 2인칭으로 표현합니다. 장난감을 가지고 있을 때 “나 가져”라고 말하는 대신에 “니 가져”로 표현하기도 합니다. 다른 사람들이 자신을 “니”로만 표현하는 것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영유아에게 “나”란 말을 사용하도록 단서를 주고, 다른 사람에게 표현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즉 준유가 민서에게 “민서야, 나 주스 마실 거야”라고 말하게 합니다.

질문하기

질문은 중요한 의사소통을 유지하는 방법입니다. 그러나 많은 시각장애 영유아는 질문을 하면 다른 사람이 반응한다는 것을 알고 대답을 미리 알고도 질문을 계속합니다. 이 때 부모는 적절한 방법으로 대화를 시작하도록 보여 주어 시각장애 영유아가 올바른 의사소통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 “엄마가 청소기를 틀었어 이 소리가 싫어?”)

② 시각장애 영유아의 의사소통

언어발달 초기 단계의 목표는 자발적인 의사소통을 촉진시켜 주는 것입니다. 이를 위하여 영유아의 언어장애 유형과 인지 수준에 맞는 적절한 단서를 제공하는 것이 중요하며 이때, 영유아의 실수를 교정해 주기보다는 격려하여 지속적으로 시도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음소 단서 제공

영유아가 말하려고 하는 단어의 첫 음소를 말해 줍니다. 예를 들면, 영유아가 “양말”을 말하려고 할 때, “ㅇ”을 말해 줍니다.

빈 칸 채우기(청각 괄호)

“이것은 ○○○이다”라고 청각적인 괄호를 주고 문장에 단어를 채워 넣도록 합니다.

말로 모델 보여주기

영유아가 말하려고 시도하면, 부모는 영유아가 말하려는 것을 추정하여 말해 줍니다. 영유아가 “바나...”라고 말하면, 부모는 “바나나”라고 말해 줍니다.

음절 단서 제공

음소 단서 제공처럼 소리로 힌트를 줍니다. “시과”를 말하려고 할때 “시”라고 말해 줍니다.

상황 단서

이야기거리에 대한 힌트나 특성을 설명해 줍니다. 예를 들면, 영유아가 친구의 이름을 맞추어야 한다면, 교사는 “니와 버스를 같이 타고 다니고, 점심을 같이 먹는 친구는 누구일까?”라고 단서를 제공합니다.

물체 단서

영유아가 이름을 대려고 하는 물체를 줍니다. 예를 들면, 식사 시간에 영유아가 숟가락이나 접시를 만져서 먹고 싶다는 표현을 하도록 합니다.

전체 문장 표현하기

어절이나 어구로 힌트를 주어 전체 문장을 말하게 합니다. 예를 들면, “토끼와 거북이”에서 “달리기 경주”란 말로 단서를 주어 영유아가 “달리기 경주에서 거북이가 토끼를 이겼어요”라고 말하도록 합니다.



연령별 발달 특성 및 적합한 놀이감

신체

- 몸을 뒤집고 엎드린 자세에서 몸을 흔든다.
- 손을 사용해서 사물을 치거나 잡는다.
- 자신의 발을 발견하고 입으로 발을 탐색한다.
- 도움을 받아 잠시 앉아 있게 된다.

언어

- 소리가 나는 방향으로 몸을 돌린다.
- 음악과 노랫소리에 따라 몸을 움직이며 반응한다.
- 눈으로 사물을 추적한다.
- 눈 앞에서 사라진 사물은 없어진 것으로 생각한다. (대상의 영속성에 따른 반응)
- 손과 입을 사용하여 탐색한다.
- 반복되는 시간과 청각적 자극에 익숙해진다.

인지

- 엄마와 낯선 사람의 목소리를 구별해낸다.
- 엄마가 내는 언어 자극에 소리로 반응한다.
- 아기 말에 반응하면 응답을 한다.

사회정서

- 사람의 얼굴과 목소리에 관심을 보인다.
- 주변의 자극에 흥미와 호기심을 보이고 사람들에게 쉽게 미소 짓는다.
-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보고 미소 짓는다.

0-6개월

신체

언어

인지

사회정서

7-12개월

- 손가락 움직임을 자유롭게하고 손가락을 이용하여 사물을 잡을 수 있다.
- 혼자 앉고, 잡고 일어설 수 있다. 도움을 받아서 일어서게 되면 12개월경쯤 걷기 시작한다.
- 눈과 손의 협응력이 발달하여 보이는 사물을 손으로 쳐서 잡는다.
- 엄마의 말을 이해하고, 반응을 보이기 시작한다.
- 새로운 소리를 듣고 유사한 소리로 모방한다.
- 단어를 사용하기 시작한다.
- 간단한 명령을 이해한다.
- 자신의 이름을 부르며 쳐다본다.
- 사물에 스스로 행위를 가해 일어난 결과에 흥미를 보이기 시작한다.
- 가장놀이, 물건 주고 받기와 같은 사회적 게임을 한다.
- 다른 사람의 행동을 모방한다.
- 낯선 사람에 대한 낯가림이 시작된다.

만3세

- 혼자 잘 걷고 뛰어 다닌다.
- 발로 큰 공을 찰 수 있다.
- 크레파스로 종이 위에 꼬작거린다.
- 볼록을 5개 정도 쌓을 수 있다.
- 사물들 사이의 기능적인 관계에 대해 이해한다.
- 초보적인 상상놀이가 시작된다.
- 자신만의 상상친구가 생겨나기 시작한다.
- 자기 이름과 몇 개의 단어를 말한다.
- 그림을 보고 이야기하는 흉내를 낸다.
- 그림을 보고 3-5개의 이름을 말할 수 있다.
- 놀이감에 대한 선호가 분명해지면서 좋아하는 놀이감을 가지고 다니며 논다.
- 대부분 혼자 놀거나 성인과 함께 논다.
- 혼자놀이가 시작되며, 24개월 무렵이 되면 다른 영아와 병행놀이가 나타난다.
- 모방놀이가 나타나고, 독립심이 발달한다.

신체

언어

인지

사회정서

만2세

- 혼자 걷고 뛴다.
- 놀이감 끌기, 당기기, 쌓기 등을 좋아한다.
- 큰 공을 잡을 수 있다.
- 스스로 음식을 먹기 시작한다.
- 두 단어 문장을 말할 수 있다.
- 자신의 요구를 표현한다.
- 책의 그림을 보고 이름을 말하며, 책장을 넘길 수 있다.
- 지시에 따라 사물을 가르치고 간단한 문장을 이해한다.
- 자기 중심적 사고를 하며, 추상적 개념에 대한 이해가 거의 없다.
- 사물의 이름, 동물의 이름, 색깔, 명칭 등을 안다.
- 호기심, 탐색의 욕구가 높아짐에 따라 질문이 많아진다.
- 차례 기다리기를 힘들어 한다.
- 충동적이며 다툼이 많다.
- 혼자놀이나 병행놀이가 많다.
- 자아 개념이 점차 분명해져서 '내 것', '나' 등의 말을 자주 사용한다.
- 성인의 관심과 주의를 끌고 싶어한다.
- 또래와 짧은 시간 놀이를 하게 되지만, 아직 놀이감을 나눠 쓰지는 못한다.
- 차례 기다리기를 힘들어 한다.
- 충동적이며 다툼이 많다.
- 혼자놀이나 병행놀이가 많다.

만3세

- 속도를 변화시켜 가면서 뛰 수 있고, 커브길을 쉽게 돌 수 있다.
- 세발자전거 타기가 가능해진다.
- 눈과 손의 협응 기술을 요구하는 활동을 가끔 시도한다. (예: 운동화 끈 매기, 단추 잠그기, 가위질하기 등)
- 어휘력이 급격히 증가하고, 2~3개의 단어로 구성된 문장을 사용한다.
- 그림에서 점차 사물과 비슷한 형태가 나타나기 시작한다.
- 상상력이 풍부해지면서 상징물을 이용한 놀이로 혼자 논다. (예: 나무토막을 톱이라고 하면서 마시는 척을 한다)
- 자신의 행동과 다른 사람들의 행동에서 원인과 결과를 깨닫기 시작한다.
- 일상생활에서 양 수, 공간, 시간 등을 이해하기 시작한다.
- 실제와 가상을 구별하지 못한다.
- 상상력이 증가되어 환상의 세계에 빠진다.
- 호기심과 질문이 많다. (생각하지 않고 말하기 때문에 사실에 대한 답 보다는 말 자체를 즐긴다)
- 남녀를 가리지 않고 그냥 가까이 있는 친구들 1~2명과 어울린다.
- 놀이할 때 놀이 집단이 일정치 않고 자주 변하며 조직화되어 있지 않다.
- 여러이 활동하기 보다 독립적으로 충분히 탐색할 수 있는 자유와 기회를 제공해 새로운 경험을 즐기도록 하는 것이 좋다.

신체

언어

인지

사회정서

만4세

- 한 발로 신체 균형을 유지한다.
- 운동 모기를 부리고 싶어한다.
- 몸을 자유롭게 움직이며 성인과 같은 걸음걸이를 한다.
- 현실과 공상을 섞이면서 말하기 때문에 거짓말을 하는 것처럼 들린다.
- 질문을 많이 하며, 자세한 설명을 요구한다.
- 다른 사람의 말을 이해하는데 어려움이 없다.
- 자기의 경험을 조직화한다.
- 의미를 탐구하는 길이 있는 질문을 한다
- 시간에 대한 개념이 생긴다.
- 논리적인 사고와 비판적인 사고가 증가한다.
- 그림의 형태와 의미가 나타난다. (사물을 알아볼 수 있게 그림다)
-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양심이 발달하기 시작한다.
- 성취에 대해 인정받고자 한다.
- 자기에게 기대대로 행동하려고 한다.
- 자신의 행동에 어느 정도 책임을 진다.
- 의존적이기는 하나 독립성이 점차 증가한다.
- 문화의 차이, 성별간의 차이를 인식한다.

만5세

- 운동 기술을 다양하게 실험해 보이는 놀이를 한다.
- 안정된 동작으로 달리기, 점프, 기어오르기, 균형 잡기 등을 할 수 있다.
- 뽀뽀하기, 스케이트, 수영 등 다양한 운동이 가능해진다.
- 가위질하기, 칠흙놀이, 색종이 접기, 목공 연장 등을 다룰 수 있다.
- 쌓기 놀이에서는 여러 종류의 블럭을 이용하여 복잡한 형태의 구조물을 만들 수 있다.
- 단순하고 규칙이 있고, 점수를 내는 기초적인 놀이에 관심이 있다.
- 비교적 문법에 맞는 모국어와 정확히 구사한다.
- 약 2,500 ~ 3,000 단어의 어휘를 구사한다.
- 단어를 읽고 쓰는 것에 흥미를 느낀다.
- 동화책 보는 것을 즐기고, 책 내용에 대한 질문을 한다.
- 그림 보고 이야기 꾸미기를 즐겨하며, 자신이 동화나 동요를 지어 들려줄 수 있다.
- 놀감을 다양하게 사용하며, 실물과 유사한 지 않은 형태의 놀이감도 사용한다.
- 쌓기놀이에서 여러 종류의 블럭으로 복잡한 형태의 구조물을 만들 수 있다.
- 주변 세계에 대한 호기심이 많아 돌보기, 자물, 온도계 등의 관찰놀이를 즐긴다.
- 동화책 보는 것을 즐기고, 책 내용에 대한 질문을 한다.
- 그림 보고 이야기 꾸미기를 즐겨하며, 자신이 동화나 동요를 지어 들려줄 수 있다.
- 친구들과 우호적으로 상호작용하면서 협동놀이를 할 수 있다.
- 역할놀이 내용이 매우 다양해진다. (예: 가정생활, TV, 책 등의 사건, 인물들 사전 계획을 통해 역할을 분담할 수 있다)
- 소진단에서 간단한 게임을 할 때, 돌아가며 차례에 따라 노는 것을 이해한다.
- 구분하는 다수의 힘을 알고 노는 -하지만 같은 우정을 단절하는 위험(영파)을 한다.
- 소수 포다는 다수를 선택할 수 있다.

출처: 서울 성동구 육아종합지원센터 http://ccic.sd.go.kr/childcare/childcare_1.asp

| 사례 |

박** (중1 어머니)

우리 아이는 현재 중1, 여자아이입니다. 현재는 말을 아주 잘 하고, 농담도 합니다. 근데 우리 아이는 5살까지 전혀 말을 못했어요. 그냥 울고, 웃기만 하고 '엄마'라는 한마디만 했습니다. 그 당시 어찌나 속이 타던지 복지관, 병원 언어 치료를 수도 없이 받았고, 용하다는 점집도 찾아다녔지만 효과가 없었어요. 하루하루 불안하게 지내다가 문득 저의 조급함이 우리 아이에게 전해지는 것 같아 제가 마음을 고쳐먹고, 여유를 갖기 시작했어요. 그러면 서 끊임없이 이야기를 들려주고 반복했습니다. 아이의 반응이 없어 지쳐가기도 했지만 인내를 갖고 일상생활의 반복되는 이야기를 시작하더니 술술 말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아이 유세 말경에 한 단어, 두 단어 말하기 시작하더니 술술 말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6살 초반까지 반응이 없다가 6세 말경에 한 단어, 두 단어 말하기 시작하더니 술술 말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아이 유치원 시절을 떠올리면 초조한 나날들이 더 많았던 것 같지만, 따라 말하라고 강요하지 않고, 기다려 주고, 끊임없이 반복했던 것이 우리 아이가 말하는 데 도움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4. 잔존 감각 개발

시각장애 영유아는 촉각과 청각을 활용한 다양한하고 구체화된 놀이감과 학습 도구가 필요합니다.

① 시각장애 영유아의 놀이 발달 특성

시각장애 영유아도 놀이를 통해 끊임없이 주변 사물·환경과 상호작용하고, 자신의 감정을 표현하며 다른 사람의 감정을 공유합니다. 그러나 시각장애 영유아는 시각적 자극의 부족으로 놀이를 선택하거나 능동적으로 활동에 참여하여 구성하는데 어려움이 따릅니다. 또한 시각적 제한으로 인해 환경에 대한 적절한 개념 형성이 이루어지지 않아 교사 또는 또래와 놀이를 할 때 상황이나 사물을 이해하는데 다소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합니다.



tip

연령별 놀이 발달적 특징

출생~
12개월

- 탐색놀이: 손과 입으로 사물을 탐색하는 놀이를 한다.
- 감각 운동 놀이: 밑고 당기는 놀이나 물חק기 등의 놀이를 한다.
- 사회적 놀이: 부모나 형제와 관련한 찌꺼공, 까꿍놀이에 참여한다.

1세

- 감각 운동 놀이: 끌고 다는 손수레, 큰 공을 가지고 놀다.
- 조작놀이: 운전대 돌리기, 큰 상자에서 작은 상자 넣기를 한다.
- 쌓기놀이: 스피드 블록이나 종이 벽돌을 가지고 쌓기놀이를 한다.
- 역할놀이: 성인의 행동을 모방하는 단순한 행동을 한다.
- 사회적 놀이: 혼자서 놀거나 성인과 함께 놀다.

2세

- 운동놀이: 창개 오르내리기, 흔들목마 타기, 끌고 돌아다니는 놀이감, 칠흙이나 밀가루 반죽 등을 좋아한다.
- 조작놀이: 눈과 손의 협응력이 발달하여 크기대로 쌓기, 구멍에 모양 맞추어 넣는 놀이를 한다.
- 쌓기놀이: 블록을 옮기거나 한 줄로 늘어놓기, 높이 탑쌓기를 한다.
- 역할놀이: 일상 생활에서 경험한 내용의 단순한 역할놀이를 한다.
- 사회적 놀이: 또래에게 관심을 보이거나 상호작용은 없다.

3세

- 운동놀이: 달리기, 세발자전거 타기를 좋아한다.
- 조작놀이: 구슬 꿰기, 퍼즐 맞추기, 찌꺼이 붙이기 등을 한다.
- 쌓기놀이: 블록으로 폐쇄된 공간을 만들거나 다리를 만들고 자기가 만든 구조물에 이름을 붙인다.
- 미술놀이: 크레파스로 꼬작지렁이를 하거나 가위로 종이 오리기를 한다.
- 언어놀이: 말하기를 좋아하고 우스운 소리나 그림책 보기를 좋아한다.
- 역할놀이: 엄마, 아빠 역할 등의 가정 생활에 관련된 역할놀이를 한다.
- 사회적 놀이: 혼자놀이를 즐기거나 또래 결에서 나란히 병행놀이를 한다.

4세

- 운동놀이: 모험적인 놀이를 좋아해서 한 발로 서기, 기어오름대 오르내리기를 즐긴다.
- 수·조작놀이: 학습과 관련되는 분류놀이, 수놀이에 흥미를 보이고 퍼즐 맞추기, 일상 생활 용품 조작하기를 한다.
- 쌓기놀이: 블록으로 폐쇄 공간과 다리를 혼합한 구조물을 만들어 극놀이에 사용한다.
- 미술놀이: 크레파스 이외에 물감, 매직펜, 색연필, 풀 등을 사용해서 그리기, 만들기를 한다.
- 언어놀이: 우스개 소리나 익살 부리는 말장난, 수수께끼를 좋아한다.
- 역할놀이: 역할놀이가 양적, 질적으로 발전합니다. 놀이 내용도 병원놀이, 가게놀이 등으로 확대되며, 꼭 실현하지는 못하지만 사전에 놀이 계획을 세우기도 한다.
- 사회적 놀이: 또래와 놀이에 대한 의견이나 놀이감을 교환하는 연합놀이를 한다.

5세

- 운동놀이: 한 발로 뛰거나 스킵하기, 계단에서 뛰어내리기, 앞뒤로 미끄럼 타기를 좋아한다.
- 수·조작놀이: 다양한 퍼즐 맞추기, 비스 질하기, 분류, 서열화카드 놀이를 할 수 있다.
- 목공놀이: 목공 연장을 사용해서 단순한 작품을 만들 수 있다.
- 쌓기놀이: 블록으로 균형과 패턴을 고려해서 복잡한 구조물을 만든다.
- 미술놀이: 모양 따라 가위질 하기, 칠흙 빚기, 색종이 접기, 다양한 대상 그리기 등을 한다.
- 언어놀이: 끝말잇기, 수수께끼 등의 말놀이와 동화책 보기를 좋아하며 이야기 꾸미기, 동요짓기를 할 수 있다.
- 과학 탐구 놀이: 확대경, 온도계 등으로 관찰하고 설명하는 놀이를 한다.
- 사회적 놀이: 또래와 역할을 분담해서 협동놀이를 한다.
- 게임: 주사위 게임이나 운동 게임을 한다.

시각장애아 초기 교육프로그램

시각장애 영유아 행동 발달 체크 리스트로서 우리나라에서는 개발된 것이 없고, 미국 텍사스 대학교에서 개발한 것을 쓰고 있습니다. 시각장애교육 현장에서는 '오래곤프로젝트'라고 하여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단점은 시각장애 이외의 수반 장애를 가진 유아에게는 적용하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시각장애 어린이 자폐성 판단기준 DSM-V

많은 시각장애 영유아의 부모는 병명들거나 눈을 누르거나 말을 반복해서 하는 등의 행동을 보고 자폐성이 있는지 걱정합니다. 대체로 언어, 상호작용 양상, 상동행동을 기준으로 이를 어느 정도 가능할 수 있으나, 자세한 진단은 소아정신과의 도움을 필요로 합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경우, 시각장애로 인해 위와 같은 행동양상을 보일 뿐 자폐성으로 인한 것이 아닐 경우가 많습니다.

출처: 중앙육아종합지원센터 & DEP 조기중재 교육과정 인지편,
성북시각장애인복지관 <https://blindnet.or.kr:23001/>

② 감각 자극을 촉진하는 놀이감

촉각 및 청각을 자극하는 연령별 놀이감

0~12개월 미만

목욕용 장난감, 모빌, 오르골과 녹음기, 딸랑이, 봉제 장난감, 형광으로 만든 큰 블록, 이기 침대 장난감과 짐(gym), 링크링, 거울, 미량미량한 공, 치아발육기, 다양한 주방용품들, 플러터공, 커다란 퍼즐, 네스팅 블록, 밀고 당기는 장난감, 모양찾기(shape sorting) 상자, 부드러운 인형, 탐방기

2세~3세

자석 글자 놀이, 목점자책, 촉각 도서, 비누방울 세트, 가사 용품, 책-인-더-박스, 악기와 오르골, 펙보드(목박이판), 놀이용 피규어, 핸드 퍼펙트 인형, 전화기, 팬이, 운송수단 장난감(교통 완구), 수레, 나무 구슬, 신발 끈 매기, 나무 조각, 혼돌 목마

3세~5세

목점자책, 촉각 도서, 미술 용품, 공(형광 주머니에 공 등을 넣은 것), 구슬, 블록, 책, 건설 장난감, 인형과 액션 피규어, 살림살이 장난감, 음악과 악기, 놀이 대상과 놀이 세트(사람 인형과 놀이 세트), 퍼즐, 모래놀이통과 야외 장난감, 봉제 동물 인형, 교통 완구, 세발자전거

1세~2세

촉각 도서, 미술 용품, 공, 목욕용 장난감, 블록, 책, 인형, 양동이와 삽, 파운딩 세트(명치로 말뚝을 구멍에 두드려 박는 놀이 장난감), 밀고 당기는 장난감, 퍼즐, 타는 장난감, 고리 끼우기, 모양 분류 상자, 봉제 동물 인형, 서프라이즈 상자

- ⑥ 식물성 재료: 각종 나무, 잎사귀, 각종 꽃(생화, 조화), 곡식류(쌀, 보리, 옥수수, 검은콩, 노란 콩, 조, 수수, 녹두, 팥), 씨와 열매 종류(수박씨, 호박씨, 포도씨, 강낭콩, 도토리, 은행...)

3D 입체 촉각 교재

시각적으로 보지 않고서는 공부하기 어려운 기본적인 학습 내용을 3D입체 촉각교재를 사용하여 보다 이해하기 쉽게 접근할 수 있습니다.(예: 한글점자 학습에 필요한 촉각도서 등의 점자 교본, '한살이 시리즈'와 '인체 모형' 등의 과학 교구, 촉지도).

| 사례 |

오**(만 2세 어머니)

우리 아이의 최고의 장난감 콩 주머니...

소리나는 장난감만 가지고 놀던 우리 아이가 요즘 콩 주머니를 잘 가지고 논답니다. 다른 장난감은 만지지 않으려 하고, 소리나는 장난감만 집착하는 것에 대해 걱정하던 차에 학교에서 콩 주머니를 가지고 논다는 선생님 말씀에 집에서 양말을 재활용하여 콩 주머니를 만들어 보았습니다. 얼마나 가지고 놀까? 반신반의 했는데 의외로 콩 주머니를 잡고 떨어지는 소리를 재미있어 합니다. 곡식류(콩, 쌀, 조 등) 소리의 차이를 나게 주머니를 만들어 주었더니 좋아하더라구요. 요즘에는 다양한 크기의 구슬을 넣어서 소리의 차이, 크기 등을 알 수 있게 만들어 줍니다. 딱딱딱딱 쉽게 만들 수 있는 콩 주머니 우리 아이 최고의 장난감입니다.



촉각을 자극시키는 재료

다양한 재료를 통해 시각장애 영유아의 감각을 자극하고, 재료에 대한 느낌을 말로 표현하여 언어적인 자극을 촉진합니다. 단 입으로 빨거나 물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 ① 종이 재료: 신문지, 인쇄지, 도화지, 잡지, 판지, 골판지, 셀로판지, 한지
- ② 점토류: 지점토, 유성 점토, 밀가루 점토, 진분 반죽, 톱밥 반죽, 종이반죽
- ③ 가루 형태로 된 재료: 밀가루, 톱밥, 색모래, 소금, 설탕
- ④ 페지류: 우유팩, 종이 봉투, 과자 상자, 종이 접시, 종이컵, 과자 봉지, 사탕 껍질
- ⑤ 섬유 재료: 스타킹, 양말, 조각, 천, 장갑, 레닝셔츠, 옷감 조각, 수건, 스카프, 보자기

03

Part

시각장애 영유아의 교육



교육기관에 적응하기 위해 시각장애 영유아에게 꼭 필요한 기술은 무엇일까요?
독립적인 화장실 사용 · 착석 유지 · 식사하기 등의 신변 처리 기술, 또래 관계 기술 등이 있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점차 독립적으로 유치원 생활을 해 나갈 수 있도록 유치원 생활 적응 기술을 잘 습득하게 도와주는 것입니다.

교육기관 입학 준비	▶	문재광등 대응	▶	배변 훈련	▶	의복 착·탈의	▶	가정 환경 구성	▶	위험 상황 대처	▶
62p		66p		73p		75p		78p		82p	

시각장애 영유아의 교육



1. 교육기관 입학 준비

① 교육기관 유형에 따른 준비

입학 준비는 교육기관의 유형을 선택하는 것부터 시작됩니다.

일반유치원의 일반학급	일반학교 교육과정에서 참여하여 친구들과 동일하게 생활하기 때문에 통합의 기회가 많습니다. 그러나 개별적인 도움을 받기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일반유치원의 특수학급	“특수학급”은 일반학교 안에서 장애 유아의 어려운 부분을 채워주어 유아의 통합교육을 돕는 학급입니다. 도움이 필요한 수업이나 생활에서 특수 교사나 보조 인력의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수학교	“특수학교”란 특별한 교육적 요구를 갖는 유아들을 대상으로 하는 학교입니다. 유아의 특별한 교육적 요구에 따라 개별화 교육을 실시하며 심리적인 안정적 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비장애 친구들을 모방할 수 있는 기회는 상대적으로 적습니다.

② 교육기관 선생님과 사전 상담

영유아를 일반학급이나 특수학급 혹은 특수학교에 입학시키기로 결정했다면 해당 학교의 선생님과 사전에 상담을 갖는 것이 좋습니다. 상담을 위해서는 사전에 상담 시간을 정한 후 아동과 함께 선생님을 만나는 것이 좋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해당 교육기관이 영유아에게 적합한지에 대한 조건도 들을 수 있습니다.

③ 교육기관 하루 일과

★ 일반학급의 하루 일과는 어떻게 진행되나요?

유치원의 경우 하루 일과는 1일 4~5시간을 기본으로 하고 있습니다. 교육기관에 따라서 수업 시작 시간, 식사 시간, 하교 시간 등에 차이가 있습니다.

★ 특수학급의 하루 일과는 어떻게 진행되나요?

특수학급의 운영 형태는 아동의 장애 정도와 특성, 교육적 요구, 학교의 여건 등에 따라서 보호자와 교사가 상담하여 결정하게 됩니다. 여기에는 전일제, 시간제, 특별 지도 학급 등이 포함됩니다.

- 전일제: 시각장애 유아가 하루 일과 내내 특수학급에서 공부하는 형태입니다.
- 시간제: 일반학급에서 주로 공부를 하되 특정한 과목의 시간에만 특수학급에서 공부하는 형태입니다. 현재 특수학급에서 가장 일반적인 형태는 ‘시간제’입니다.
- 특별 지도 학급 형태: 특수학급을 운영하면서 도움이 필요한 아동에게 부가적으로 특별 지도를 실시하는 형태입니다.

| 사례 |

일반유치원 특수학급을 선택했어요

김** (만 4세 어머니)

저는 우리 아이의 친구가 시각장애 친구도 좋지만 일반 아이들이 많았으면 좋겠어요. 동네 또래친구는 한계가 있어서 물리적으로 환경을 만들어주어야 할 것 같아 일반유치원을 선택하였습니다. 현재 잘 다니고 있는데 앞으로도 계속 잘 다녔으면 좋겠습니다.

| 사례 |

오**(만 3세 어머니)

특수학교 유치원을 선택했어요

온 가족 모두 어떤 교육기관이 우리 아이한테 맞을지 1년 정도 고민했던 것 같습니다. 육아휴직을 하고 있던 차라 집 주변 유치원, 어린이집을 비롯하여 서울 시내에 있는 특수학교 두 곳을 가보았습니다. 유치원과 어린이집은 집에서 가까워서 이동권은 좋았지만, 많은 인원의 일반유아들 틈에서 우리 아이가 잘 버텨낼지 선생님이 우리 아이를 잘 보살펴줄지 많은 고민이 되었습니다. 특수학교 두 곳은 집에서 멀고 직접 통학을 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었지만 소수의 아이들과 선생님, 그리고 지원해주는 보조인력이 있어서 더 마음에 들었습니다. 그래서 고민 끝에 특수학교를 선택했습니다. 특수학교에서 자립생활을 꼼꼼하게 배우고, 우리 아이의 자신감이 생기면 초등학교는 꼭 일반학교를 도전해 보고 싶습니다.

④ 교육기관에 입학 준비 체크 리스트

① 기본 생활 습관 익히기

유치원에 가면 간식 및 식사하기, 양치하기, 화장실 가기 등 기본적인 것들을 처리해야 합니다. 기본 생활습관을 익히는 것은 영유아가 유치원 생활에 적응하는데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② 대소변 가리기

집에서는 화장실 환경이 익숙하고 엄마가 옆에서 도와주지만 유치원에 가면 모든 것이 낯설기 때문에 심리적으로 큰 불안을 느낍니다. 대부분의 영유아가 유치원 변기를 낫설어 해 오줌이 마려워도 그냥 참다가 실수하는 경우도 종종 있으므로, 대소변을 보고 싶을 때 의사 표현하는 훈련을 미리부터 시키는 것이 좋습니다.

③ 스스로 하는 습관 기르기

집에서는 마음대로 했지만 유치원에 가면 정해진 시간 안에 스스로 식사를 마쳐야 합니다. 시간을 정해 스스로 식사를 다 마칠 때까지 기다려 주고 이를 해냈을

때는 칭찬을 해 아이에게 성취감을 느끼도록 합니다. 양치를 할 때도 가족 모두 영유아가 좋아하는 동요를 몇 가지 정해 이를 닦는 동안 함께 흥얼거리면서 이 닦는 즐거움을 알려 주거나, 그림책 등을 읽어 주면서 유치원에 가서도 스스로 양치할 수 있도록 지도합니다.

④ 사회성 기르기

가족의 울타리 안에서만 머물지 않고 친구들과 잘 어울리기 위해서라도 사회성을 키우는 것이 좋습니다. 또 웃어른에게 공손하게 대하는 태도 등 미리 기본 예절도 익혀야 합니다.

⑤ 또래 친구들과 자주 만나기

아웃 친구 집에 놀러가거나 또래 아이들이 많은 키즈 카페 등을 찾아 자연스럽게 어울릴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줍니다. 또 친구들과 놀이감을 나누어 사용하도록 가르치고, 놀고 난 후에는 영유아 스스로 정리하는 습관을 길러 주는 것도 중요합니다.

⑥ 헤어지는 연습하기

영유아와 헤어질 때 아무 말 없이 숨어버리는 행동은 영유아에게 불신과 상처를 줄 수 있어 삼가야 합니다. 엄마와 헤어진다는 걸 미리 말해 주고 조금 있다가 다시 만날 거라고 약속하며 단계적으로 떨어지는 연습을 해야 합니다. 영유아와 엄마 사이에 헤어지는 의식을 정하는 것도 한 방법입니다. 뽀뽀를 하거나 포옹을 하는 등 헤어지는 의식을 치른 뒤에는 유치원에 가야 한다는 사실을 영유아가 인식하게 됩니다.



시각장애 영유아의 형제자매 관계

시각장애 영유아의 교육기관 선택 시 일반 형제를 고려해야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형제를 같은 교육기관에 보낼 것인가?”의 문제 때문입니다. 시각장애 영유아와 일반 형제가 같은 초등학교에 입학했을 경우 다른 형제를 돌볼 수 있을 것 같아서 좋다고 하시는 부모님도 계시고, 또 어떤 부모님은 일반 형제에게 너무 큰 스트레스를 줄 수 있기 때문에 피해야 한다는 분도 계십니다. 그러나 학교 선택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일반 형제의 의견을 충분히 들어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보이지 않게 가치와 압력을 넣어서는 안 됩니다. (예: 좋은 형이라면 동생을 돌보아야겠지?)

2. 문제행동 대응

시각장애 영유아기에 나타나는 문제행동인 상동행동과 자해행동을 구별하여 이해하고, 문제행동에 대처하는 방법을 알아봅니다.

① 상동행동의 이해와 대처 방법

상동행동의 이해

상동행동은 시각장애 영유아에게 나타나는 특유한 버릇을 말합니다. 주로 고개 떨구기, 몸을 흔들기, 머리를 좌우로 흔들기, 한 눈 또는 양 눈을 손가락으로 누르기, 손을 펄떡거리기, 펄쩍펄쩍 뛰기 등입니다. 이러한 증상은 대부분 아주 어린 적부터 시작되는데, 행동 교정이 어려우므로 대부분의 부모들은 사회적으로 어 울리는데 지장이 없을까봐 매우 불안해 합니다. 그러나 즐거운 활동에 몰입하거나 적절한 자극으로 그 증세를 약화시킬 수 있습니다.

상동행동에 따른 대처 방법



* 고개 떨구기

턱을 올려줍니다. 영유아가 좀 더 크면 고개를 꼿꼿이 세우고 걷도록 일깨워 주고 누군가 이야기를 걸어오면 소리가 들리는 방향으로 얼굴을 돌리도록 가르쳐줍니다.



* 몸을 흔들기

가장 일반적인 행동으로 유아기부터 시작될 수 있습니다. 부모는 영유아의 어깨에 손을 얹어 흔들리는 것을 멈추고 동시에 다른 것에 흥미를 가지도록 유도합니다. 이는 행동을 알아들을 수 있게 되면, 몸을 흔들고 다른 사람들을 정신없게 만들고 다른 친구들은 그렇게 행동하지 않는다고 말해줍니다.



* 머리 흔들기

머리에 손을 얹고 주위를 환기시킵니다. 더 성장하면 그것이 상동행동을 알고 스스로 조절할 수 있게 합니다.

2 자해행동의 이해와 대처 방법

자해행동의 이해

자해행동은 자기 스스로 신체를 손상하여 타박상, 열상, 출혈, 골절 등의 상처를 내는 행동을 말합니다. 일반적으로 경증 정신지체 또는 행동장애를 가진 영유아는 타인에 대한 공격 행동을, 중증 정신지체 또는 자폐를 가진 영유아는 자신에 대한 공격 행동을 보이는 경향이 있습니다.

직접적인 자해행동으로는 손으로 머리 치기, 머리를 벽이나 바닥에 박기, 손등 꼬집기, 손가락으로 찌르기, 물기 등이 있으며 일정한 행동을 계속 반복하므로 상동행동과의 구분이 어렵습니다. 그러나 자해행동은 상처 부위 감염이나 2차적 질병을 야기하는 등의 심각한 안전 문제를 일으키며, 자해행동을 하는 영유아와 가족, 교사, 주위 사람들에게 불안감, 좌절감, 무력감을 갖게 하기도 합니다.

자해행동에 따른 대처 방법

자해행동을 억제하기 위한 긴급 수단으로 신체적 제지나 결박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로 인한 심리적 압박과 공포는 영유아의 정서적 성장에 막대한 지장을 줍니다. 따라서 매우 제한적으로 허용되어야 하며 보통 때는 절대로 사용되어서는 안 됩니다. 자해행동은 한 가지 중재 방법만을 사용해서는 만족스러운 결과를 얻을 수 없으므로 보다 효과적인 중재를 위하여 여러 가지 중재 방법을 혼합하여 사용하는 것이 좋다고 합니다. 현재까지 학계에 알려진 중재 방법 중에 가장 이상적인 것은 스트레스 경감 요법, 응별적 자극 요법, 약물 요법을 혼합한 것이며, 동시에 사용할 때 큰 효과를 거두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다만, 영유아의 상태를 정확하게 알고 있는 담당 의사와 상의하여야만 합니다.

* 눈을 손가락으로 누르기

눈의 외형을 변화시킬 수 있어 반드시 억제해야만 하는 행동입니다만, 이러한 증상을 고치기 위해 잔소리하고 벌을 주는 것은 아이에게 압박감을 주어 증상을 더욱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영유아가 눈을 누를 때에는 말없이 행동을 제재하고 관심을 다른 곳으로 돌리게 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아이가 즐겁게 몰입할 수 있는 활동을 하게 되면 눈 누르기를 잊어버리기 때문에 부모는 이를 적극 활용하여 증상을 완화할 수 있습니다(술라미드 카드타인 외, 1994).



북

실로폰

탐버린

* 손을 펄떡거리기

손을 잡아주거나 촉각적으로 탐색이 가능한 물건을 주어 주의를 환기시킵니다. 지속적으로 손을 펄떡거리게 하는 영유아에게는 그러한 행동이 주위의 시선을 끌 수 있어 다른 사람들을 방해하므로 자제해야 한다고 가르쳐 줍니다.

사례1

남**(초4)

① 문제행동 발생 시기 및 이유

5살 때 통합 어린이집에서 편식 지도를 받다가 생긴 습식 장애로 인해서 문제행동이 발생했습니다. 20일 동안 물 한 모금 안 먹던 아이가 다시 먹기 시작하면서 부정적 자해 행동을 하였고 여러 가지 이유(관심, 과제 회피, 요구, 신체적 불편함 등)로 강화되었습니다.

② 주로 보였던 행동

손으로 머리카락 때리기, 무릎으로 턱 치기, 소리 지르기, 때 쓰기

③ 가족들의 대처 방법

내국동 ○어린이병원 ABA중재(문제행동, 습식 장애)를 1년간 받았습니다. 문제행동 개선을 위해 5살 때 2개월간 개별 치료, 7개월간 낮 병동 그룹 치료(10:00-16:00)를 받았고 음악 치료, 미술 치료, 언어 치료, 행동 심리 치료 등 우선 여러 가지 치료를 통하여 해결 방법을 찾아보았습니다.

④ 실패한 이유

발달 장애와 시각장애(3급)를 함께 가진 저희 아이를 위한 방법을 찾기는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자폐성 발달 장애 아이들만의 방법으로만 접근하려했던 점이 문제였던 것 같습니다. 자해를 하면 아이를 분리시키고 5분 동안 무관심하다가 문제행동을 안 할 때 다시 관심을 보였는데 그것이 시각장애 아이에게는 더 극심한 불안 을 느끼게 하여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

⑤ 효과적인 방법

운동입니다. 운동을 통해 스트레스가 해소되자 때 쓰기가 확연히 줄었고 문제행동도 좋은 행동으로 대체되었습니다. 3학년 때 담임 선생님께서 오전에 러닝머신과 승마 운동기구로 운동시켜 주셨고 때 쓰거나 자해가 심할 때도 문제행동을 무시하고 그 대신 운동으로 풀게 하셨는데 효과가 매우 좋았습니다.

⑥ 문제행동에 대한 교육 방법

ABA라는 중재 방법이 있습니다. ABA는 의사소통이 안 되어 문제행동하는 경우 PECS라는 그림이나 사진 이용해서 의사소통을 가르치기도 하고 문제행동 개선을 위한 방법을 제시합니다. 발달 검사를 거쳐 영역별로 좋은 행동을 증가시켜주는 것이 목표입니다. 그러나 저희 아이는 ABA로는 효과를 얻지 못했습니다.

• ABA 치료란?

학습과 동기 부여에 대한 과학적 원리를 사용해 변화를 만드는 치료법. 사람의 행동을 체계적으로 분석하여 작절하게 보상하면 이 과정이 학습되어 이후에도 바람직한 결과를 만들어 내는 행동이 계속 일어나게 된다. 이러한 절차를 응용하여, 이전에 할 수 없었던 기술을 습득하고 문제행동을 없애는 방법이다.

• PECS란?

표현 언어가 부족한 자폐 범주성 장애나 기타 장애를 지닌 아동을 위하여 고안된 보완 대체 의사소통 프로그램의 일종으로 그림을 통하여 의사소통을 하는 것은 맞추기, 모방하기, 고개 돌리기, 짝 맞추기, 이름 말하기 등과 같은 선수 기술을 요구하지 않고 의사소통을 위한 첫 기술로 요구하기를 가르친다.

⑦ 결론

우선 문제행동이 발생하면 아이의 행동을 기록해야 합니다. 문제행동하기 전 상황, 문제행동 양상과 문제행동 후 주변 반응들을 꼼꼼히 기록하세요. 문제행동은 무시하고 좋은 행동은 칭찬해주고 강화해주는 게 중요합니다. 힘들겠지만 엄마는 관찰을 통해 아이의 좋은 행동을 찾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엄마가 문제행동에만 관심을 보이고 반응하면 그 행동은 점점 더 심화됩니다. 아울러 문제행동을 대체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주세요. 예를 들어, 아무 물건이나 던지는 아이에게는 던질 수 있는 공을 쥐어줌으로써, 대체할 수 있는 물건이 있음을 알려주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당부하고 싶은 말은 아이의 마음을 읽어달라는 것입니다. 엄마가 항상 곁에 있고 도움을 줄 수 있다는 믿음을 심어주세요. 그러나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바로 엄마가 내 아이를 믿고 사랑으로 감싸주는 것입니다. 아이는 천천히, 느리지만 조금씩 성장합니다. 분명 오늘보다는 내일이 더 좋아질 것입니다.

3. 배변 훈련

배변 훈련은 영유아의 발달을 고려하여 스스로 걷고 의사표현을 할 수 있는 18개월 이후에 여유를 갖고 자연스러운 분위기에서 차근차근 시작하는 것이 좋습니다.

① 배변 훈련의 시작

일반적으로 2-3세 유아들은 걸음마를 시작하게 되면서부터 대소변을 가리기 시작합니다. 시기에 장애가 있는 영유아는 기저귀가 젖거나 대변을 봤을 때 스스로 표정이나 행동을 통해 표현하게 되는데, 이때부터 배변 훈련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신호를 포착한 부모는 시간이 오래 걸려도 대소변 가리기 훈련을 시작해야 합니다.

② 배변 훈련 지도

스스로 불편함을 느끼게 하기

훈련기의 영유아는 일반 팬티를 착용하여 소변을 보았을 때 옷이 젖어 스스로 불편한 상황에 처하는 경험을 하도록 하게 하고 즉시 마른 옷으로 갈아입혀 그 차이를 인지하도록 합니다. 이때 부모는 어떠한 경우에도 감정의 변화를 보이지 않고 항상 영유아가 편안해질 수 있도록 배려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다만 소변이나 대변을 보았을 때의 느낌을 알게 하고 이로 인해 바닥이 더러워졌다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옷은 반드시 화장실에서 갈아입히고 마른 옷으로 입기 전 의식적으로 변기에 잠깐 앉혔다가 옷을 입힙니다.

배변 장소 인지하기

부모가 대략적으로 배변 시간을 예측할 수 있게 되면 영유아를 화장실로 데리고 가서 변기에 앉혀보는데 이때 시간은 5분을 경과하지 않도록 합니다. 다른 사람들의 행동을 시각적으로 모방하지 못하므로 배변 과정을 눈으로 보는 것과 같이 잘 묘사하면서 처리 방법을 손을 잡고 알려 주어야 합니다. 배변 훈련을 하기 전에 화

사례2

김**(초1)

① 문제행동 발생 시기 및 이유

우리 아이는 눈 구개열 지적(Ocular Plata Cerebral) 신드롬, 우안 PHPV 및 좌안 망막박리로, 9-10개월부터 문제행동을 시작했습니다. 이때부터 시작된 재활 치료 중, 보이타 치료로 인한 스트레스 때문인지 아니면 보이타 한쪽 눈이 안보이게 되어서인지 그 이유는 짐작하기 어렵습니다.

- 보이타 치료법: 사지나 몸통의 일정한 감각 유발점을 자극하여 기거나 뒤집는 등의 반사 동작을 유도해 내는 물리 치료법

② 주로 보이는 행동

엄지 손가락을 세워 이마 찌르기, 바닥에 머리 박기

③ 가족들의 대처 방법

감각 통합(스노겔렌), 음악 치료, 행동 치료 관련 부모 세미나 및 부모 교육을 받았습니다. 물리적으로 팔꿈치에 프링글스 통을 끼워 행동을 차단해 보았지만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시각적으로 기존의 행동 치료 교육은 의미가 없었습니다. 그나마 효과적으로 문제행동이 줄어들었던 방법에는 아이의 기분을 편안하게 해주는 스킨십, 좋아하는 활동과 노래를 들으며 춤추기, 그네타기, 러닝머신과 같이 몸을 움직이는 운동 등이 있었습니다. 부모가 문제행동이 일어나지 않도록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단, 엄마와의 감정적 대립은 서로에게 악영향을 주기 때문에 엄마가 아이의 문제행동이 아니라 그것을 일으키는 원인에 집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스노겔렌(심리 안정 감각 자극실): 부드러운 음악이 들리고 은은하면서 매혹적인 빛이 나는 공간 또는 그 안에서 행하는 치료 활동

④ 현재 상태

문제행동이 완전히 없어진 것은 아니지만 횟수나 강도가 줄어들었고 엄마가 아이의 욕구를 추측할 수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제어가 가능해졌습니다. 7세부터 신경안정제를 복용하고 있습니다(현재 8세).

⑤ 문제행동에 대한 교육 방법 및 정보를 얻은 경로

서울시립어린이병원, ABA관련 문제행동치료센터, 아이존에서 정보를 얻고 있습니다.

장실을 이용하면서 변기를 만져 보게 하고 물이 내려가도록 놀려 보게 해서 요란한 소리를 내며 물이 내려가는 것에 익숙해지도록 합니다.

부모의 자세

영유아가 변기에 앉아서 배변을 했거나 하지 못했거나 부모는 같은 태도로 대해 주어야 하며, 변기가 아닌 바지에 배변한 경우에도 야단치지 않아야 영유아가 이로 인한 불안과 걱정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습니다.

배변 훈련기 고려 사항

배변 훈련기의 영유아에게는 입고 벗기 편한 고무줄 바지가 좋고, 되도록 유아 변기는 사용하지 말 것을 권해드립니다. 유아 변기의 사용이 영유아의 안전을 위해 필요해 보이지만, 외출시 지참하기 어렵고 대부분의 영유아는 큰 변기를 사용하면서도 안정적인 자세를 찾아내기 때문입니다.

남자 영유아는 서서 소변을 보도록 가르칩니다. 변기의 높이를 고려해서 영유아가 안전하게 올라갈 수 있는 작고 목직한 상자를 준비하면 도움이 됩니다. 배변이 잘 되지 않을 때는 따뜻한 물에 발을 담그면 혈액 순환이 잘 되어 배변이 촉진될 수 있습니다.

야간 배변 훈련

낮에 화장실에 가는 것이 익숙해지면, 이제는 밤에 대소변 가리기 훈련을 시작합니다. 밤 훈련은 낮 훈련을 꾸준히 해 나간 이후에 시작하며 짧은 시간 안에 하도록 합니다. 저녁 식사 이후 물, 우유, 과일을 적게 주어 밤에 화장실에 가지 않도록 조절하며 자기 전 미리 용변을 보도록 습관을 들입니다.

밤에도 대소변을 가릴 수 있게 되면, 이제 기저귀가 필요하지 않다고 이야기해 주고 기저귀를 채우지 않지만 예기치 않은 상황에 대비해 방수 패드를 깔아 두는 것이 좋습니다. 완전하게 대소변을 가리기까지는 6개월 정도 소요되므로 부모는 참을성을 가지고 훈련에 임해야 할 것입니다(슬라미드 카드타인 외, 1994).



tip
여자 아이는 사춘기가 되면 생리를 시작합니다. 부모님들은 보이지 않는 아이들이 과연 생리 뒤처리 잘 할 수 있을지 걱정하며 고민하지요. 그러나 생리의 의미를 정확하게 이해 시키고 처리 방법에 대해 훈련하면 아이들도 당황하지 않고 잘 할 수 있습니다. 생리는 일정한 주기가 있으므로 미리 예측하여 준비하도록 합니다. 생리대의 구입, 관리, 종류, 사용법 및 뒤처리 등에 대해 눈으로 보는 것처럼 세밀하게 설명해 주세요. 생리 기간 동안은 일정 시간을 두고 자주 생리대를 갈아주며 이 기간 동안에는 진한 색 하의를 착용하도록 알려줍니다.

4. 의복 착·탈의

영유아가 혼자 힘으로 앉게 되면 이때부터 옷을 입고 벗는 것에 흥미를 가지게 해야 합니다. 영유아는 이러한 경험을 통해 때에 따라 어떤 과정으로 옷을 입고 벗는지 알게 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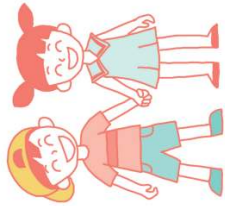
① 옷의 종류와 기능에 대해 설명하기

영유아는 어떤 행동이나 물체를 볼 수 없기 때문에 물건의 이름 대기와 그때의 행동을 말로 설명해 주어 기억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따라서 자신이 입는 옷의 종류(셔츠, 티셔츠, 러닝셔츠, 청바지, 면바지, 반바지, 내복, 팬티 등)를 한 단어로 설명해 주면 영유아가 기억하기 쉽습니다. 단추나 지퍼는 직접 만져보게 하고 그 기능을 알려 주며 부모와 함께 시도해 봅니다(슬라미드 카드타인 외, 1994).

② 옷 입기

옷과 신발은 우리의 몸을 보호하고 체온을 유지시켜 줍니다. 옷을 입고 벗는 훈련을 하기에 앞서 영유아에게 옷과 신발의 기능에 대해 설명해 줍니다. 그리고 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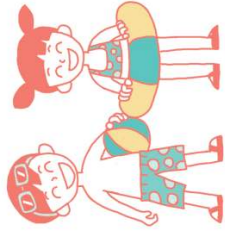
결과 상황에 맞춰 옷을 입을 수 있도록 이야기 해주면 아이 스스로 일기예보를 듣고 날씨에 맞는 옷차림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갖게 될 것입니다.



남자아이와 여자아이 옷차림



추운 겨울의 옷차림



수영복 차림



운동복 옷차림



연주회 옷차림



잠자는 아이의 편안한 옷차림

서랍에서 옷 꺼내기와 정리하기

옷을 입을 때는 영유아와 함께 옷이 있는 곳으로 가서 스스로 서랍을 열어 꺼내도록 하는데 이는 서랍의 용도를 이해하고 사용법을 학습하게 되는 효과가 있으며 각 의복의 위치를 기억하여 자립적으로 행동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영유아가 스스로 옷을 골라 입게 하기 위해서는 옷이 비교적 입기 쉬워야 하고 순서대로 놓여 있어야 손으로 만져서 어떤 순서로 입는지 알 수 있습니다. 계절이 바뀌어 옷을 교체하거나 다시 정돈해야 할 때는 영유아와 함께 해서 이를 알게 합니다.

부모가 배려해야 될 것

옷 입기에 사용되는 옷은 영유아에게 불편하지 않은 것으로 선택하고 계절에 맞는 옷을 착용할 수 있도록 지도하며 옷을 잘 입었을 때는 언어로 성취한 것을 알려주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옷을 조화롭게 입는 것이 어려운 문제인데, 이는 섬유 조직에 맞추어 입도록 지도하며 평상시에 자신에게 잘 어울리는 색에 대해 이야기 해주고 그에 맞는 색깔 조합을 알려주면 해결할 수 있습니다.

지퍼, 단추, 끈 등은 손이 민첩해야 하므로 많은 연습이 필요합니다. 신발의 왼쪽과 오른쪽을 구별하는 것은 어느 한쪽에 테이프 등으로 표시하여 특징지어 줌으로써 해결할 수 있습니다.

옷 입기를 거부하는 이유

옷 입기를 거부하는 가장 큰 이유는 옷이 불편하기 때문입니다. 시각적으로 예쁜 옷은 활동에 제약을 주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촉감이 부드럽고 활동하기 편한 옷으로 바꾸어 입혀 보기를 권합니다.

또한 추운 겨울에 장갑을 착용하지 않는 경우가 있는데 시각장에 영유아의 손은 눈과 같은 역할을 하여 장갑을 끼는 것이 마치 보는 사람의 눈에 인대를 대는 것과 같으므로 주머니의 용도를 알려주어 주머니를 활용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모자 역시 귀를 덮게 되면, 소리를 들을 수 있는 능력이 감소되므로 거부할 수 있습니다. 영유아가 거부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이 무엇 때문인지 잘 살펴보고 배려하여 상황에 맞게 대처합니다.

3 옷 벗기

벗은 옷은 항상 정해진 장소에 두도록 하고 다음에 다시 쉽게 찾을 수 있도록 합니다. 조금 더 커져 걷게 되면 모자, 코트, 장갑, 스웨터 등 겹옷이나 신발 등을 스스로 입고 벗게 합니다(슬라미드 카드타인 외, 1994).

④ 시각중복장애 영유아의 옷 입고 벗기

시각중복장애를 가진 영유아는 인지능력 저하로 스스로 해볼 기회가 적어 일상 생활을 독립적으로 하기가 어렵습니다. 따라서 물리치료사 또는 작업치료사의 도움이 필요하며 영유아와의 직접적 신체접촉을 통해 과제 수행능력을 키울 수 있습니다(임안수, 2012).

옷 입고 벗기도 마찬가지로입니다. 가정에서 부모와 직접적인 접촉을 통해 옷을 입는 방법과 벗는 방법에 대해 배우다보면 느리지만 천천히 성취하게 될 것입니다.

| 사례 |

유**(만 4세 어머니)

어려서부터 신발 신는 것을 거부했어요. 외출하려고 하면 무조건 맨발로 나가겠다고 집을 부러서 억지로 안고 나간 것이 한두 번이 아니었지요. 하지만 항상 아이를 안고 다닐 수는 없었기 때문에 신발을 안 신겠다고 하면 그대로 수용하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맨발로 다니던 아이는 한 여름 뜨거운 아스팔트의 온도를 그대로 느꼈고, 자갈밭을 지나기면서 신발을 신지 않으면 발바닥이 아프다는 것을 깨달은 뒤로 신발 착용에 대한 거부감이 사라졌습니다. 때로는 아이가 직접 경험하도록 하는 것이 더 설득력이 있는 것 같아요.

5. 가정 환경 구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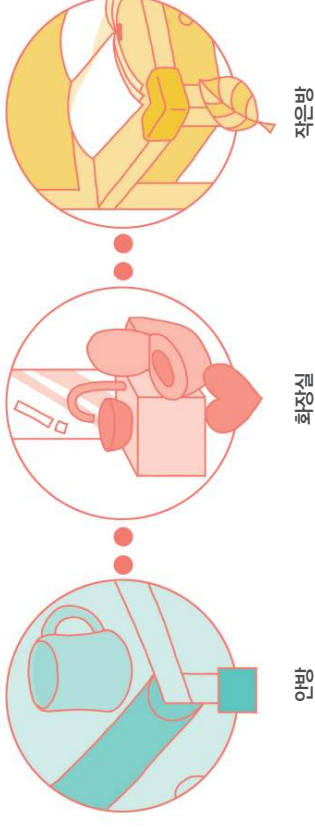
시각장애 영유아만을 위해 특별히 집안 환경을 바꿀 필요는 없습니다. 보통의 생활 환경에 감각적 보원을 하여 활동의 반경을 안전하게 넓혀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① 안전 사고 예방하기

이동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것

보행하는 영유아는 여기저기 부딪히게 되므로, 안전 사고 예방을 위해 뾰족한 모

서리나 기둥에 안전보호대를 부착하는 것이 좋고 벽면에 스티커 등을 붙여 이동에 도움을 주거나 문마다 다른 표시를 하여 공간을 구분할 수 있습니다.



위험한 도구 치우기

자유롭게 이동하는 영유아는 의자를 사용하여 자신의 키보다 더 높은 곳에 위치한 물건에 접근이 가능하기 때문에 부엌의 칼이나 가위는 안전한 장소로 옮겨두고 이러한 도구들이 왜 위험한지 아이에게 설명해 주어야 합니다.

가스레인지의 경우, 직접적인 화기이므로 요리가 끝난 후에도 열기가 남아 있어 잘못하면 손을 댈 수 있으므로 주의시키고, 손잡이를 누르고 있으면 가스가 배출되므로 사용하지 않을 때에는 반드시 밸브를 잠가야 합니다.

전기밥통의 뜨거운 증기 배출구에 손이 데지 않도록 주의시키고 텔레비전은 잡아당겨 안전 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사전에 대비해야 합니다.

② 장난감 활용하기

겉기 시작한 영유아는 바퀴가 달린 커다란 장난감(보행기, 미는 장난감, 자동차 등)을 좋아하는데 이러한 장난감은 벽이나 가구에 부딪힐 때, 아이의 몸을 보호할 수 있어 도움이 됩니다.



보행기



자동차

③ 청각적 자극 주기

집으로 들어오는 현관에 소리 나는 종을 달아놓으면 영유아 스스로 방향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④ 명암 활용하기

광각이 있거나 저시력인 경우에는 물체에 강렬한 명암이나 색채대비를 주어 구분할 수 있도록 합니다. 테이블 주변을 대비되는 색테이프로 두르거나 문과 벽의 색을 명확하게 구분지어주면 도움이 됩니다.



테이블 주변을 검정색 테이프로 붙인 모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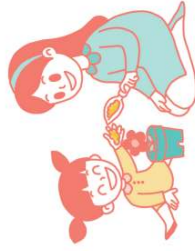
문과 벽의 명암이 확실히 구분지어지는 모습

가정에서 사용하는 물건은 되도록 같은 자리에 두어야 영유아가 스스로 찾을 수 있습니다. 자주 사용하는 물건이나 장난감은 사용한 뒤에 반드시 정해진 자리에 두도록 훈련함으로써 자발적인 놀이가 가능하도록 유도합니다.

⑤ 식물 또는 동물 키우기

동물을 키우거나 식물을 재배할 수 있게 하는 것도 좋은 경험이 됩니다. 식물을 재배하려고 할 때는 영유아가 직접 흙을 만지며 뜰이나 화분에 씨앗을 심게 합니다. 함께 물을 주며 흙이 촉촉해지는 것을 느낄 수 있게 하고 자주 식물의 성장과정을 만져보게 함으로써 씨앗이 트고 꽃이 피고 열매가 맺히는 것을 배울 수 있습니다(슬라미드 카르타인 외, 1994).

애완동물을 키울 때에도 직접 먹이와 물을 주며 개나 고양이와 좋은 친구가 될 수 있습니다.



꽃을 화분에 심는 모습



강아지에게 먹이를 주는 모습



고양이와 노는 모습

| 사례 |

박**(초2 어머니)

가정에서 요리할 때 쓰는 재료들도 훌륭한 장난감이 됩니다. 저는 위험한 것만 아니면 무엇이든 주었어요. 수산 시장에 가면 갈치, 조기, 전복 등을 주인이 바쁠 때 얼른 만져보게 했지요. 쌍둥이에게 감자를 잘라 줬더니 전화기 놀이를 하고 쌀은 갈때기를 이용해 작은 병에 담고 놀입니다. 쌀을 풍선에 넣고 흔들었더니 천둥소리 같다고 하네요. 국수, 미역 말린 것은 물에 불리기 전후의 변화를 알 수 있는 좋은 학습 도구입니다. 소금, 설탕, 전분 가루도 만져 보고 각각 물에 녹여 맛본 뒤 그 느낌을 이야기하는 것도 재미있는 것도 재미있는 경험이 됩니다.

6. 위험 상황 대처

시각장애 영유아는 시각의 상실로 인해 많은 사회적 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특히, 화재 등의 재난사고는 일반인보다 신체에 미치는 위험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① 안전 사고의 이해와 대처

안전 사고란?

가정이나 우리 주변, 공사장 등에서 안전 교육의 미비 또는 부주의로 일어나는 사고를 말하며, 주거 공간 내에서도 미끄러짐, 추락, 화재, 감전, 모서리에 부딪치는 등의 사고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안전 사고 대처 방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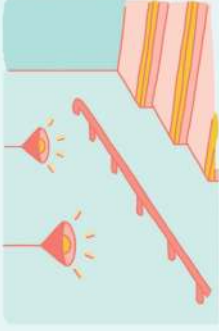
- 주택 내의 설비를 안전하게 관리해야 함
- 사고의 위험이 있는 곳은 수시로 점검함
- 어린 자녀나 노부모가 있는 가정은 안전 사고 방지를 위한 설비나 장치를 마련해야 함



안전 사고의 방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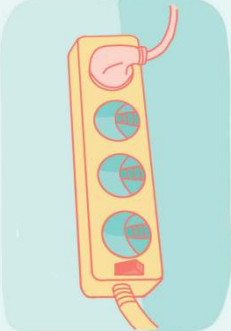
① 욕실은 적당한 곳에 손잡이를 설치하고, 타일 바닥은 미끄럼 방지 처리를 함



② 계단은 어둡지 않게 하고, 손잡이를 설치하며, 미끄럼 방지 테이프를 붙임



③ 베란다나 창에는 간격이 좁은 방범창을 설치함



④ 사용하지 않는 콘센트 구멍은 막아 둠



⑤ 전기 기기는 젖은 손으로 만지지 않도록 하고, 사용 후에는 즉시 치움



⑥ 가스 누출 탐지기, 화재경보기 등을 설치하고, 소형 소화기를 준비해 둠

2 도움 요청 방법

성폭력 예방 교육 시 유의점

영유아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을 경우 반드시 믿을 수 있는 사람(엄마, 아빠, 선생님 등)에게 이야기를 하도록 합니다. 성폭력 가해자가 비밀로 하자고 협박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이에 대해서는 좋은 비밀과 나쁜 비밀의 예를 들어 나쁜 비밀은 지킬 필요가 없음을 강조합니다.

3단계 대처 기술 익히기

나쁜 접촉으로 인해 싫은 느낌이 들었을 때 대처하는 방법을 다음과 같이 알려줍니다.

1단계

“안돼요, 하지 마세요” 라고 큰 소리로 말한다.

싫은 느낌이 들었을 때는 즉각적으로 “안돼요, 싫어요.”라고 거절할 수 있다는 것을 알려 준다. 사람이 위험한 상황에 직면하면 말을 할 수 없는 상태가 될 수 있으므로 평상시에 충분한 연습을 하도록 한다.

2단계

그 자리를 피한다.

소리를 지른 후에 즉시 그 자리를 피해 안전한 장소로 가야 한다는 것을 알려 준다. 유아의 경우 대부분 안전한 장소를 집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집으로 가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집으로 가는 동안 위험한 상황에 빠질 수 있다는 것을 충분히 설명하고 약국, 편의점 같은 가게, 큰 도로, 대문이 열려진 집 등 다른 성인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곳으로 가야 한다는 것을 알려 준다.

3단계

일어난 일에 대해 부모님 등 믿을 수 있는 사람에게 말한다.

유아를 대상으로 한 성폭력은 주로 아는 사람에 의해 일어나고 신체적 징후가 잘 드러나지 않기 때문에 모르고 지나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유아에게 일어난 일에 대해 반드시 부모님이나 믿을 수 있는 사람에게 이야기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한다.



ti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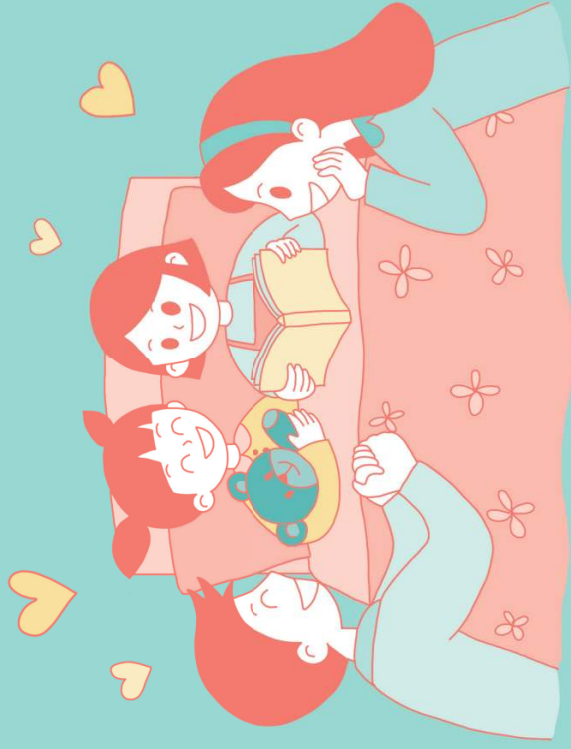
안전교육관련 인터넷 사이트

사이트명	주소
소방방재청	www.nema.go.kr
한국소방방송	119fbn.fire.go.kr
어린이안전넷	www.isafe.go.kr
어린이 교통안전연구소	www.go119.org
한국어린이 안전재단	www.childsafe.or.kr
한국교통안전교육센터	www.ktec.or.kr
세이프키즈 코리아	www.safekids.or.kr
어린이 교통 안전협회	www.ksafekids.or.kr
어린이 안전교육관	www.isafeschool.com

04

Part

시각장애 영유아 가족지원



양육자의
역할 강화



88p

비장애 형제자매와의
긍정적 관계 형성



93p

가족 기능
강화



97p

시간장애인에
대한 인식 개선



100p

시각장애 자녀의 올바른 성장을 위해서는 적절한 가족지원이 매우 중요합니다.

시각장애 영유아 가족지원



1. 양육자의 역량 강화

자녀의 장애 진단으로 인한 주 양육자의 심리적 충격과 양육 부담을 해소하여 시각장애 영유아를 수용하고 부모로서 올바른 양육 태도를 가질 수 있도록 가족과 이웃 모두가 함께 도와야 합니다.

① 양육의 두려움 극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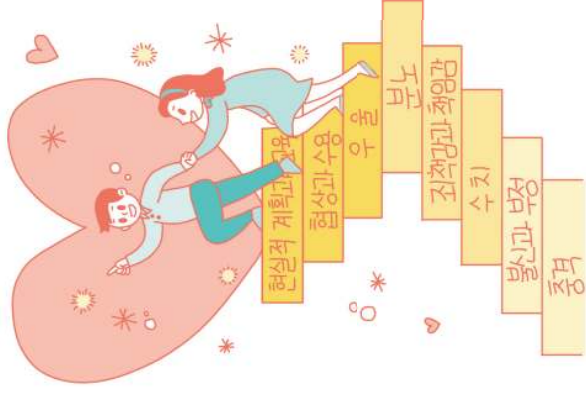
시각장애 영유아의 부모는 심리적 적응 과정을 통해 시각장애 영유아를 그대로 수용하게 되며, 가족의 적극적인 양육 역할 분담, 장애를 가진 학부모와의 관계 형성을 통해 시각장애 영유아의 양육에 대한 용기를 얻고 부모로서의 역할을 키워가게 됩니다.

시각장애 영유아 부모의 심리 적응 과정

자녀의 시각장애 진단은 부모에게 심각한 충격과 심리적인 상처, 극심한 스트레스를 주게 됩니다.

시각장애 자녀를 양육해야 한다는 두려움, 피할 수 없는 상황에 대한 우울감, 남들과 다른 낯선 삶을 살게 되는 고립감 등의 복합적인 감정을 느끼게 됩니다. 심리적 어려움은 대부분의 장애아동을 둔 부모가 느끼는 정상적인 감정으로 적응 단계를 충분히 겪은 후 부모는 내 아이의 장애를 수용하게 됩니다.

이 심리적 적응 단계는 개인마다 겪는 단계, 순서, 정도, 지속되는 시간의 차이가 있지만 일반적으로 겪는 과정으로 다음의 단계를 거칩니다.



장애아동 부모의 심리적 적응 단계(levinson)

1. 충격: 장애 사실에 큰 충격을 받음. 암담한 심리적 고통을 경험
2. 불신과 부정: 진단 결과를 믿지 못하고 심리적으로 거부. 여러 전문가를 찾아다님
3. 수치: 내 아이의 장애 사실을 부끄러워함. 감정적 격동기. 가정내 갈등 심화
4. 죄책감과 책임감: 장애의 원인을 부모에게 돌리고 죄의식을 가짐
5. 분노: 장애 발생에 대한 의문과 분노. 주변에 분노 감정 표출
6. 우울: 포기 및 심한 우울감을 느낌. 분노와 죄책감을 정리하는 과정
7. 협상과 수용: 장애를 이해하고 현실로 받아들이는 단계. 장애 자녀를 그대로 수용
8. 현실적 계획과 교육: 치료와 지원을 모색함. 자녀 인정 및 장점을 발견하기 시작

출처: 정상발달센터 <http://blog.naver.com/deptpr/132837130>.

주 양육자의 양육 부담 완화

시각장애 영유아로 인하여 가족 내에서 가장 많은 어려움을 겪는 사람은 주 양육자인 어머니입니다. 영유아기는 어머니의 양육 부담이 가장 큰 시기인데, 이 시기의 장애 진단은 적합한 치료와 재활 서비스의 필요까지 가중되어 어머니는 심리적 부담과 신체적 피로로 쉽게 소진될 수 있습니다.

어머니의 양육 스트레스로 인한 감정 불안은 비일관적인 양육 태도를 가져와 자녀의 지아 존중감을 낮추고 가족 전체의 삶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따라서 어머니의 양육 부담을 줄이기 위한 가족 간의 역할 분담과 정서적 지지는 매우 중요합니니다. 그리고 조부모를 비롯한 집안 어른들에게 시각장애 자녀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여 장애를 이해하고 교육과 지원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같은 시각장애 자녀를 가진 부모와의 관계 형성

어느 날 갑자기 보통의 삶에서 벗어나 시각장애라는 소외된 환경에 처한 고립감과 두려움, 그럼에도 아이를 키워야 하는 책임감으로 부모는 심리적인 스트레스를 많이 겪습니다. 이때 같은 시각장애 자녀를 가진 부모들과의 만남을 통해 장애 이해·치료·교육·단체별 양육 노하우·기관 서비스 비교 등 책에서 접할 수 없는 실제적으로 도움이 되는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장점

- 대화만으로도 심리적인 위로가 됨
- 시각장애 영유아의 다양한 발달 사례를 접함으로써 객관적인 시각을 열어줌
- 내 아이의 강점을 발견하는 기회 제공
- 다양한 양육 정보 습득

유치원, 학교, 병원, 치료실, 복지관 등에서 만나는 학부모들과 마음을 열고 진솔하게 대화를 나누는 것, 더불어 신뢰할 만한 전문가로부터의 조언과 상담, 경험 이 많은 시각장애 전문기관의 관계자와 감정 및 정보를 공유하는 것은 시각장애 영유아를 양육하는 부모에게 큰 도움이 됩니다.

2 동생 출산

동생 출산에 따른 가족 내의 변화

시각장애 영유아를 양육하는 가정에서는 동생을 낳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장애아 재출산에 대한 두려움, 다자녀의 양육 부담, 비장애 형제에게 장애 형제의 돌봄 부담을 줄까 염려하는 마음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려와는 달리 동생의 출산은 생각지 못한 많은 긍정적인 영향을 가져옵니다.

비장애 형제자매는 부모의 장애 형제에 대한 수용 태도와 양육자 간 정서적 지지 수준에 따라 장애 형제자매를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고, 장애 형제자매를 돌보고 배려하는 태도를 갖게 됩니다(비장애 형제자매실태조사 및 지원방안 연구, 2014, 최복천 외). 그리고 시각장애 영유아는 형제자매 즉 또래와의 상호작용을 통해 사회성이 크게 향상됩니다.

동생 출산으로 부모는 그동안 장애 영유아를 양육하면서 겪어보지 못했던 정상적 성장과 발달 과정을 보며 심리적 치유와 기쁨을 느끼게 되고, 가족의 소중함을 인지하게 되어 가족 관계가 더욱 견고해집니다.

| 사례 |

최**(만 5세 어머니)

첫째는 6살 전맹인 아들이고, 둘째는 4살 정안 여자아이를 키우고 있습니다. 첫째를 낳고 나서 둘째를 낳아야 하나 걱정이 많았습니다. 저희 부부에게 둘째 출산은 정말 큰 용기가 필요했지요. 둘을 키우면서 느낀 건 혼자보다는 둘이라는 게 너무 좋다는 겁니다.

둘째는 첫째에게 동생이자 친구이고 선생님이 되어 줍니다. 어린이집에서 배운 것을 같이 하고, 가르쳐 주지요. 집에서 혼자만 놀던 첫째는 둘째와 함께 놀이를 하며 어휘력도 늘고, 배려할 줄도 알게 되어 사회성이 향상되었습니다.

부모가 아이 눈높이로 맞춰준다는 것이 쉽지 않았는데 둘째가 그 역할을 해주고 큰 아이에게 간접 경험의 기회를 주는 게 가장 큰 장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부모의 시각장애에 대한 편견이 깨졌습니다. 첫째가 못하는 것이 있으면 시각장애 때문이라고 생각했는데, 이제 보니 비시각장애 아이도 똑같이 어려운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시각장애 자녀를 편견 없이 키울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시각장애 아이와 정한 아이를 키우면 다 좋은 것만은 아닙니다. 아무래도 첫째에 게 손이 많이 가서 항상 늘 혼자 해내는 둘째가 고맙기도 하고 미안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가족행사시 첫째를 배려한 나들이를 계획할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둘을 키우면서 느낀 건 혼자일 때의 장점보다 둘일 때의 장점이 많다는 점, 시각 장애 아이도 안 보인다는 것 외에는 보통 아이처럼 키울 수 있다는 걸 알았다는 것입니다.



장애인 활동 지원 사업이란?

장애인 가족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하여 신체적·정신적 장애로 혼자서 일상생활이나 사회 생활이 어려운 중증 장애인에게 일상생활이나 신변, 외출 보조 등의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자립 생활과 사회 활동을 지원하는 제도

• 신청기준

- 장애 등급: 1~3급 장애인
- 연령 제한: 만 6세 이상~만 65세 미만
- 신청 방법: 동 주민센터, 국민연금관리공단 지사 신청(www.nps.or.kr 지사검색)
- 복지로(www.bokjiro.go.kr) 온라인 신청

외출 지원 가정 도우미 서비스 사업이란?

보건복지부의 지원으로 한국장애인부모회에서 실시하는 가족 지원 사업

• 이용 안내

- 이용 가능 지역: 서울, 인천, 강원, 충북, 포항, 전북 지역 거주자
- 이용 가능 대상자: 장애 등급 및 연령 제한 없음
(단, 보건복지부에서 지원하는 활동 보조인 서비스와 중복 불가)
- 구비 서류: 서비스이용신청서, 장애인카드 사본 1부
- 신청 방법: 최소 3~7일 전까지 전화로 신청

- 신청 기관: 한국장애인부모회 02-2678-3131

- 서비스 내용: 학습, 놀이 활동, 안전, 신변 보호 처리, 외출 지원 등 장애아 양육지원

- 이용료: 1일 이용 8시간 이하 5,000원/8시간 이상 10,000원

출처: 서울시장에인가족지원센터 <http://dfscenter.welfare.seoul.kr>
한국장애인부모회 <http://www.kpat.or.kr>

2. 비장애 형제자매와의 긍정적 관계 형성

형제자매들 간의 상호 작용은 서로의 성격 및 사회성 발달에 중요한 영향을 미칩니다. 부모는 시각장애 자녀와 비장애 자녀가 서로 긍정적인 관계로 밝고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올바른 양육 태도를 가져야 합니다.

1 비장애 자녀에 대한 부모의 양육 태도

가정에서 비장애 자녀는 시각장애 형제와 함께 생활하며 가장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 중요한 가족 구성원입니다. 그러나 가정에 시각장애 영유아가 있으면 부모의 관심이 시각장애 자녀에게 집중되어 비장애 자녀의 욕구가 충분히 고려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로 인해 비장애 자녀는 여러 가지 부정적 감정을 느낄 수 있으므로 부모는 비장애 자녀의 심리를 충분히 이해하고 배려하는 양육 태도가 필요합니다.

비장애 자녀의 심리 이해하기

시각장애 영유아가 있는 가족 내 아동기 비장애 자녀가 느끼는 감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비장애 자녀에 대한 양육 태도

○ 장애 형제자매의 장애에 대하여 알려 주기

비장애 자녀들은 밖에서 시각장애 형제와 함께 활동할 때 또래나 주위 사람들이 장애 형제자매에게 시선을 주고 물으면 정확하게 이야기 할 수 없어 곤란해 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런 부정적인 경험이 반복되면 비장애 자녀는 시각장애 형제자매와의 외부 활동을 부담스러워 하고 기피하게 됩니다.

부모는 비장애 자녀에게 시각장애 형제자매의 시각의 상태와 장애에 대해 정확하게 설명해 주어 두려움과 오해 없이 장애를 잘 이해하고 수용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합니다.

그래서 비장애 자녀는 시각장애 형제자매를 부끄러워하지 않고 당당하게 소개하며 다른 사람의 시선을 의식하지 않고 형제자매 간에 친밀하게 지낼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 비장애 자녀를 위한 별도의 시간 갖기

비장애 자녀도 부모의 관심과 사랑이 필요한 자녀입니다. 그러나 보호와 관심이 시각장애 자녀에게 집중되어 비장애 자녀는 소외감과 외로움 등 심리적인 스트레스를 겪을 수 있습니다.

부모가 장애 형제자매와 마찬가지로 자신도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도록 비장애 자녀의 감정을 어루만져 주고 욕구를 파악하는 별도의 시간을 갖는 것이 필요합니다.

○ 친구와의 외부 활동 지원하기

비장애 자녀는 시각장애 형제자매와의 생활로 인해 또래 친구들과의 관계나 사회 활동이 위축될 수 있습니다. 또래 친구들과의 원만한 관계를 가질 수 있는 시간과 기회를 충분히 제공하여 장애 형제자매로 인하여 본인의 사회 생활이 영향을 받지 않고, 다른 아이들처럼 자유롭게 즐겁게 그 나이에 맞는 정체성을 갖고 생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인정하고 격려해 주기

작은 것이라도 비장애 자녀가 성취한 것에 관심을 갖고 격려하여 가족 내에서 자신도 소외되지 않고 사랑과 인정을 받고 있다고 생각할 수 있도록 합니다.

○ 장애 형제자매 돌보는 일에 가치 부여하기

장애 형제자매를 돌보는 일은 다른 사람을 돕는 성숙한 행동으로, 부모에게 힘이 되고 자랑스러운 일이라고 의미를 부여하고 칭찬해 줌으로써 장애 형제를 돕는 일을 부담으로 느끼지 않고 가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하여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합니다.

○ 차별에 대한 서운함, 분노, 원망(최복천, 2014)

- 부모님이 시각장애 형제를 더 좋아하여 공정한 대우를 받지 못한다고 생각함
- 부모가 자신에게는 관심이 없다고 원망함
- 부모와 보내는 시간이 부족하여 서운해 하고 불만을 가짐

○ 우울감, 위축감

- 부모에 대한 서운한 마음, 장애 형제자매를 배려해야 한다는 생각 등 여러 감정이 공존하여 우울함
- 자신의 감정과 욕구를 자유롭게 표현하지 못해 위축됨
- 친구들을 만났을 때 장애 형제자매에 대해 설명할 수 없거나 부끄러워 위축됨

○ 두려움과 걱정

- 장애에 대한 정확한 이해 부족으로 오는 두려움과 불안감
- 나에게도 장애가 나타날까봐 두려워 함
- 장애 형제자매가 아플까봐 걱정함
- 힘든 부모님을 자기 자신이 실망시켜 드릴까봐 걱정함

○ 죄책감

- 부모님을 만족시켜 드리지 못할 때 죄책감을 느낌
- 장애 형제자매에게만 허용적 태도나 관심이 집중되는 경우 자신도 모르게 장애 형제를 시기 질투하게 되어 미안한 마음을 가짐
- 혼자만 즐거운 생활을 한다고 생각할 때 마음이 편치 않음

비장애 자녀는 시각장애 형제자매로 인하여 부정적인 감정만 갖는 것은 아닙니다. 어려서부터 시각장애 형제자매와 생활하면서 다른 사람을 배려하고 돕는 것을 배우며, 장애 형제자매를 돌보아야 한다는 책임감을 느끼고 부모의 마음을 이해하는 성숙함을 갖게 되기도 합니다.

② 시각장애·비장애 자녀간에 우애 형성 방법

장애 형제와 비장애 형제자매는 장애 형제와 여가 경험이나 지지적 경험이 많고, 선생님과 동네 사람들과의 관계가 좋을수록 그리고 형제자매 지원 프로그램에 참여한 경험이 많을수록 친밀도가 높습니다(최복천, 2014).

형제자매 관계 강화 방법

○ 여가 활동 시간 제공

생활에서 형제자매와 게임, 놀이 등 여가 활동을 함께 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서로 이해를 높일 수 있도록 합니다. 게임 도구는 시각장애인이 사용 가능하도록 촉각, 색채 대비(두 색을 동시에 나란히 두었을 때 다른 색의 영향으로 어느 한 색의 채도가 높게 지각되는 것) 등이 배려된 것이 좋으며, 시각장애인복지관에서 다양한 시각장애인용 생활 용구 구입이 가능합니다.

○ 체험 활동 기회 제공

가정에서 벗어나 함께 체험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 변화된 환경에서 형제자매를 새롭게 인식하고 즐거운 추억을 만들 수 있도록 합니다.

○ 형제자매 지원 프로그램 참여

시각장애 관련 기관에서 비정기적 행사로 형제자매 지원 프로그램(상당, 교육, 체험 활동, 캠프 등)을 실시합니다. 이 프로그램은 장애에 대하여 바르게 이해하고 다른 형제자매와의 만남을 통하여 위로와 정서적 지지를 받는 데 도움을 줍니다.



Tip 시각장애인 생활 용구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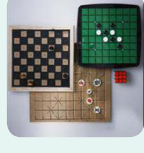
일상생활에 필요한 물품을 시각장애인이 사용가능하도록 촉각·시각적으로 디자인을 고려하여 보완하거나 개발된 용품을 말합니다.

예) 보행 용구(흰지팡이), 점자·학습 용구(점자 필기도구, 지시력 자 등),

시계류(음성·점자 시계), 여가용품(소리나는 공, 바둑판, 장기판, 체스 등)

- 서울시각장애인복지관 02-422-8108
- 노원시각장애인복지관 02-950-0114
- 한국시각장애인복지관 02-440-5202

* 생활 용구 전사장을 운영하며 용품생산·개발 및 해외용품 수입 대행



보드게임



장사 트윙프



점자판



저시력 학습 도구

3. 가족 기능 강화

시각장애 영유아를 양육하는 것은 한 가족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가족 구성원 모두가 삶의 질을 보장받으며 가정이 건강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역 사회와 국가가 함께 노력합니다.

① 가족 지원 프로그램이란?

장애를 보는 관점이 개인과 가정의 문제로 보는 시각에서 이제는 사회가 돌보고 지원해야 한다는 사회적 관점으로 변화하였습니다. 교육도 생태학적 관점이 강조되면서 아동을 둘러싼 다양한 환경과 상호작용에 대해 많은 관심을 기울이며, 가

장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는 가족에 대한 지원이 함께 강조되고 있습니다.

역량이 강화된 부모는 장애아동의 양육에 있어 자신감과 효용성을 갖고 주위 사람들과 긍정적인 관계를 유지하며 자녀 교육에 적극적으로 참여합니다. 장애 수용이 잘된 형제자매는 사회생활에 위축받지 않으며 활발한 상호작용을 합니다. 따라서 가족원의 역량 강화는 가족의 기능 회복과 건강성 유지에 매우 중요합니다. 이에 따라 공공 기관과 민간 기관에서는 지역 내 가족지원센터를 개설하는 등 가족의 역량 강화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기관들은 장애 가족의 강점을 파악하고 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다양한 가족 지원체계와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가족 지원 프로그램은 대부분 연중 상설 프로그램이 아닌 일시적 행사로 진행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관련 기관에 등록하면 해당 프로그램에 대한 정보와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가족 지원 프로그램 내용

프로그램	운영기관	연락처
장애인 가족 돌봄 휴가제	서울시내 장애인복지관	한국장애인복지관협회 www.hinet.or.kr
상담 및 정보제공, 공연 관리지원	서울시장장애인가족지원센터	02-724-0881 dfscenter.welfare.seoul.kr
가족 캠프, 가족 놀이, 가족 교육, 상담 교실 등	각 지역의 장애인복지관 및 시각장애인복지관	한국장애인복지관협회 www.hinet.or.kr
휴식 지원 프로그램	한국장애인부모회	02-2678-3131 www.kpat.or.kr
저시력 세미나, 가족 교육	한국실명예방재단	02-718-1102 www.kfpb.org

② 가족과 함께 하는 장애 이해 프로그램

각 기관의 시각장애 이해 프로그램 소개

시각장애인에 대해 바르게 인식하고 이해를 돕기 위해 시각장애 관련 기관에서

는 비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다양한 장애 이해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시각장애를 몸으로 직접 체험하고 더 깊이 알고 이해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특히, 점자 교육은 문해 매체로 사용할 점자를 가족이 함께 익히는 프로그램입니다. 이 프로그램은 초·중·고등학교의 학업에 필요한 교재를 가족이 직접 지원해 줄 수 있어 자녀의 학업에 큰 도움이 되므로 시각장애 자녀를 둔 어머니들이 가장 많이 참여하는 프로그램 중 하나입니다.

구분	프로그램 내용
저시력	장애 이해, 저시력 체험 교실, 저시력 세미나, 저시력 체험
전맹	장애 이해, 실명 체험 교실, 점자 교육, 보행 교육

③ 같은 장애를 가진 가족들과 어떻게 정보를 나눌 수 있나요?

같은 장애를 가진 학부모들과의 교류는 내 아이가 속해 있는 유치원, 학교, 병원, 치료실 등에서 보통 시작하게 됩니다. 그러나 통합교육을 받는 경우에는 다른 시각장애인 학부모를 만나기가 어려워 정보교류를 하지 못해 답답해지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시각장애 영유아는 대다수가 교육기관으로 맹학교 내 유아반에 재학 중이고 개별적으로 시각장애인복지관의 서비스를 이용합니다. 따라서 각 기관마다 이용자들 간에 다양한 커뮤니티가 형성되어 있어, 관련 기관에 이용자 등록을 하면 같은 장애를 가진 학부모들을 만날 수 있는 기회를 자연스럽게 접할 수 있습니다.

모임	내용
각 기관의 학부모 자조 모임 (온·오프라인)	• 육아 및 교육 소식 • 시각장애인 관련 기관 서비스 정보 • 특수교육지원센터의 지원 정책
인터넷 온라인 카페	카페 목적에 맞는 전국적 규모의 정보 공유

모임명	주요 내용
초롱눈망울	cafe.naver.com/mgm533 사시, 약시 관련 정보
마음으로 보는 사람들	cafe.daum.net/mabo 저시력 시각장애인과 비장애인들의 친목
빛찾사	cafe.daum.net/owlight 저시력 시각장애인과 비장애인들의 친목
밝은엄마	cafe.daum.net/eyemom 시각장애 영유아 양육 관련 정보
한국시각장애인가족협회	cafe.daum.net/HANMAUM 시각장애 아동 교육 및 학업 관련 정보
성북시각장애인복지관 통합교육 학부모 자조모임	www.blindnet.or.kr 통합교육 학부모/분기 1회 정기 모임
실로암시각장애인복지관 설리번학습지원센터 학부모자조모임	복지관 프로그램 공유/분기 1회 정기 모임
한국시각장애인복지관 학습지원센터 학부모 자조모임	통합·맹학교 학부모 밴드를 통한 정보 공유 분기 1회 정기 모임

4. 시각장애인에 대한 인식 개선

시각장애인과 가족이 우리 사회 공동체 구성원으로서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시각장애에 대한 관심과 이해를 넓혀 통합 사회 환경을 만들어 갑니다.

① 주위 사람들과의 관계 형성

시각장애 영유아는 주 양육자인 엄마와의 관계에 이어 성장과 발달에 따라 가족, 이웃, 유치원, 학교 등으로 그 관계의 범위를 확장해 갑니다.

이 과정에서 각 대상과의 애착과 신뢰의 정도는 영유아의 성격 발달에 매우 중요한 영향을 미칩니다. 시각장애 가족은 장애 특성을 고려한 올바른 양육 태도를 가져 시각장애 영유아가 긍정적인 사회적 관계를 형성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이웃 만들기

① 환경에 노출시키기

이웃, 주변 상점, 유치원, 교회, 학교 등 생활 환경에 적극적으로 아이를 노출시켜 시각장애 영유아를 소개합니다. 우리 지역에 시각장애 영유아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알림으로써 이웃들이 보내는 낯선 시선, 이해 부족으로 오는 불편한 상황을 줄일 수 있습니다.

② 장애인에 대한 이해와 도움 청하기

자주 접하는 이웃에게는 시각장애 영유아의 장애를 먼저 이야기하고 솔직하게 도움을 요청합니다. 이웃은 시각장애인을 자연스럽게 이해하고 수용하며 시각장애 영유아를 지지하고 돕는 역할까지 자원하게 될 것입니다.

- 지역 주민: 시각장애인을 돕는 의미 있는 역할에 대해 보람을 느낌
- 시각장애 영유아: 수용적 분위기와 배려 속에서 자신감 있는 생활
- 양육자: 양육 부담 감소로 안정감 있는 생활

⇒ 시각장애 영유아는 위축되지 않고 사회 생활에 참여하며 밝게 자라게 됩니다.

좋은 이웃되기

이웃들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시각장애 가족도 좋은 이웃이 되어야 합니다. 사회적 관계는 상호간의 배려가 적절한 수준일 때 지속되며 어느 한쪽의 일방적인 부담으로는 유지되기 어렵습니다. 시각장애 가족도 지역 사회 구성원으로서 공동 관심사에 참여하고 주위 사람들의 관심과 배려에 감사의 마음을 표현함으로써 공동체 관계를 견고하게 만들어 가야 합니다.

시각장애 영유아를 양육하는 부모의 대부분은 위험한 외부 환경으로부터 자녀를 보호하거나 다른 사람으로부터 상처받을 것이 염려되어 외부 노출을 꺼려하고 모든 문제를 가족 내에서 부모가 다 해결해 주려는 경향이 많습니다.

그러나 이런 환경에서 양육된 시각장애 영유아는 가족에 대한 의존도가 매우 높고 자기중심적이 되어 사회성이 부족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이에 맞는 사회적 관계망을 형성하지 못하여 독립된 생활을 할 우려가 높습니다.

② 장애 이해가 부족한 상황에서 의 대처

장애인에 대한 인식이 크게 개선되었으나 아직도 외부 환경에서 시각장애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곤란함을 겪을 때가 있습니다. 이 때, 시각장애 영유아를 양육하는 부모는 이웃에 대한 이해와 시각장애 당사자인 아이를 배려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주변 사람에 대한 대응

시각장애 영유아와 함께 외출 시 아이의 외모와 행동을 바라보는 시선, 소곤거리는 말, 배려를 요청하였으나 이해받지 못하는 경우 등 사람들의 인식 부족 때문에 당황스럽거나 마음이 상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반복되는 불편스런 상황에 대해 화가 날 수 있으나 상대방은 시각장애인을 접한 경험이 없어 이해가 부족하다는 점을 인지하고 침착하게 우리 아이의 장애 상태를 설명하고 도움을 구합니다. 개선되지 않고 부당한 대우를 받게 될 경우에는 법적 근거로 정당한 권리를 요구하거나 권익옹호를 담당하는 시각장애 관련 기관 및 단체에 도움을 요청합니다.

그러나 대상이 개인이거나 자주 접하는 이웃인 경우에는 사안에 따라 더 이상의 갈등을 일으키지 않고 일단 종료하는 것이 지혜로울 수 있습니다. 이해가 받아들여지지 않는 상황에서 지속적으로 요구할 경우, 장애에 대한 지식이 없는 상대방은 오히려 시각장애인을 억지를 쓰는 부담스러운 상대로 인식하고, 거부감과 부정적 편견을 갖게 됩니다. 또한 시각장애 영유아는 이 상황을 부끄럽게 생각하고 자책감을 느끼며, 낯선 사람을 만나는 일에 심리적으로 위축됩니다.

우리가 시각장애를 수용하기까지 시간이 필요했던 것처럼 다른 사람들도 시각장애인을 인식하고 배려해야 하는 대상으로, 그리고 같은 지역 사회 주민으로 받아들이는 데 시간이 필요합니다.



장애 이해의 단계(, 1995)

1. 인식의 단계: 장애인의 존재 인식, 흥미를 보임
-> 부정적인 이미지를 갖지 않고, 장애나 장애인에 대한 친근감 향상이 중요
★ 아이들이나 어른들의 시선 또는 직접적인 질문으로 마음이 상할 수 있으며, 관심의 표현으로 이해해 주세요.
2. 지식화의 단계: 차이의 의미를 아는 단계
-> 장애를 대하는 법, 에티켓 등의 지식의 학습
★ 장애에 대하여 부끄러워하지 말고 친절하게 설명해 주세요.
3. 정서적 이해의 단계: 장애인의 기능 장애를 마음으로 느낄
4. 태도 형성의 단계: 적절한 장애인 형성
5. 수용적 행동의 단계: 장애인의 참여를 당연하게 받아 들임. 지원 행동이 자연스럽게 나타남

시각장애인 자녀 위로하기

시각장애로 인해 예상치 못한 당황스러운 경험을 하게 된 시각장애 영유아는 불안감, 미안함, 죄책감 등 거부당한 것에 대해 심리적 상처를 받게 됩니다. 따라서 상황이 종료된 후에는 자녀가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해 주고 부모와 자녀가 서로의 감정과 생각을 나누는 것이 좋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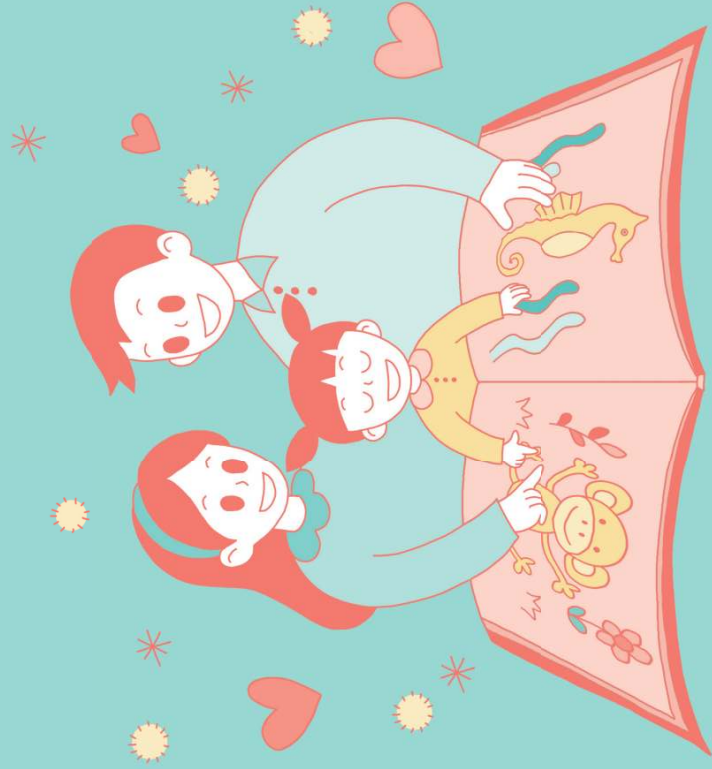
문제 발생 원인은 시각장애 영유아 자신이 아니며 시각장애인을 접해본 경험 없이 장애 이해가 부족했기 때문이라는 그 사실에 초점을 맞추어 설명하고, 사람에게 대하여는 비난하거나 비판하지 않습니다.

이 과정을 통해 아이는 언제든 접할 수 있는 비호의적 환경과 대상으로부터 상처받지 않고, 사람에 대한 두려움 없이 현명하게 대처하는 방법을 배우며 사회에 대한 적응력을 높여갈 것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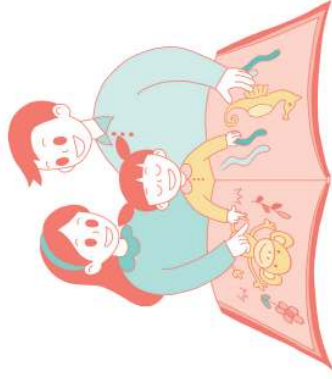
05

Part

시각장애 영유아를 위한 점자와 보행교육



시각장애 영유아를 위한 점자와 보행교육



1. 점자와 보행

시각장애 영유아 시기에 접하는 점자와 보행은 앞으로 많은 정보와 지식을 습득하는데 큰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이 시기에는 점자와 보행을 강압적으로 인지하고 가르치기보다는 재미있는 놀이 활동으로 자연스럽게 접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1 점자 이전 교육

★ 시각장애 영유아 점자 학습을 위한 촉각 운동



손가락 운동

시물을 손으로 펴서 두드리거나 쥐거나 잡거나 잡거나 누르거나 당기기



좌우 양손의 분업과 협응 운동

수직선, 수평선, 사선이나 동그라미 등을 따라서 손가락의 움직임을 조절



시물을 구분

모양, 크기, 길이, 굵기, 무게, 무게, 강도 등의 속성에 따라 변별하는 능력을 기르기



도형의 특성을 촉각적으로 변별하게 하여 점자 학습의 초기에 필요한 촉각이나 운동 감각 능력 기르기



사물 등의 개념 형성을 도모하여 인지 능력의 발달 촉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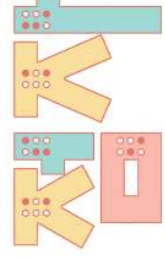
★ 점의 위치 알기

6개 점의 구성을 파악하게 하며, 6개 점의 위치, 방향, 순서를 확인하면서 점의 위치를 알게 한다.



★ 점자에 관심 가지기

시각장애 유아에게 점자로 표기된 자신의 이름을 읽고 쓰게 하여 점자에 대한 흥미와 관심을 높이고 언어와 문자가 관계가 있다는 것을 인식시켜주는 것이 필요하다.



영유아기 아동을 위한 보행 훈련 지도 원칙

- 자발적인 움직임의 유도
- 안전한 환경 조성
- 잔존 감각의 활동 유도
- 정확한 자세에 대한 교정보다는 아동의 필요성과 의미를 강조
- 놀이 중심 및 흥미 중심 교육: 게임이나 음악 요소, 스토리북, 역할놀이(dramatic play) 등을 활용

시각장애 영유아를 위한 보행 지도

- 영유아기의 보행 훈련은 기초가 되는 운동 및 관련 개념의 발달과 보행기초 기술의 습득에 주안점을 둠
- 지도 시기: 유아가 걷기 시작하면서부터 지도 가능
- 훈련 시작 단계: 먼저 아동과의 라포와 신뢰를 형성하는 것이 중요하며, 주변 환경에 호기심을 가지고 이동하도록 동기 부여
- 보행 기술의 완전 숙달이 목적이 아니라 기술을 경험하고 모방하는 수준에서 훈련이 이루어지도록 하고, 점차 상급 학교 단계에서 완성될 수 있도록 계속 지도되어야 함



보행 기초 기술(basic skills)

- 유아에게 처음 지도하는 기초 기술로 보행에 대한 호기심과 동기 유발을 위해 유아기 관심을 갖는 장소에서 시작해야 한다.
- **기본 자세:** 안내자의 팔꿈치 위를 잡은 것이지만 성인이 시각장애 유아를 안내할 때는 손목을 잡거나 더 어린 경우는 성인의 손가락이나 손가락으로 만든 고리를 잡게 할 수 있다.
- 안내자는 안내하는 손을 움직이지 말고 측면에 붙인다.
- 안내법을 통한 공간에 대한 친숙화는 추후 배우게 될 자기 보호법과 스쳐가기 기술을 사용해 공간에 대한 더욱 능동적인 탐색과 수업 참여를 촉진할 수 있다.
- 지팡이 사용에 대한 자연스러운 경험 역시 안내법 자세에서 성공적으로 도입할 수 있다.
- **지팡이 도입과 지도:** 시각장애 유아가 환경을 보다 능동적으로 탐색하고 이동하는데 지팡이의 사용이 중요하다. 지팡이 도입 시기는 장애 수용성 정도, 안질환의 진행성 여부, 실명 시기, 다른 신체적 문제 같은 다양한 변인을 고려해야 하지만 가능한 빨리 시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출처: (재)정인욱복지재단(2013). 시각장애인 보행의 이론과 실제. 서울: 시그마프레스

시각장애인용 도서가 무엇인가요?

시각장애인용 도서관 시각의 손상을 입은 시각장애인이 다른 감각(청각, 촉각)으로 독서를 할 수 있도록 제작된 도서를 말하며 이를 시각장애인용 대체 도서관이라고 부릅니다.

① 녹음 도서

- 사람이 책을 낭독하여 녹음한 것을 음성 파일로 변환하여 TAPE, CD, MP3 등의 매체로 저장된 도서
- 장점: 점자를 읽지 못하는 시각장애인의 활용 가능, 속도 조절 가능, 다른 일을 병행하며 독서 가능
- 분야: 교양, 소설, 정보 전달 중심 도서 등
- 이용 방법: 서비스 기관에 전화·온라인 신청, 우편 또는 택배 수령, 온라인 도서관을 운영하는 기관의 홈페이지에서 바로 듣기 가능



② 점자 도서

- 대상: 점자를 읽을 수 있는 사람
- 장점: 정독을 해야 하거나 한 페이지 전체의 내용을 파악해야 하는 경우에 도움
- 단점: 목자도서(활자도서)에 비하여 분량이 많고 부피가 큼
- 분야: 학습도서
- 이용 방법: 서비스 기관에 전화·온라인 신청, 우편 또는 택배 수령



부록

시각장애인 관련 기관에서는 시각장애인 영유아의 양육에 도움이 되는 다양한 서비스를 개발하여 지원합니다. 전문 기관의 프로그램 정보를 파악하여 시각장애 영유아의 발달 단계에 최적의 서비스가 지원될 수 있도록 합니다.

③ 촉각 도서

- 도서의 내용이나 그림을 촉각으로 느낄 수 있도록 다양한 소재를 활용하여 질감과 형태를 표현한 도서, 3D 프린터 활용 등 제작에 있어 새로운 방법들이 다양하게 시도됨
- 분야: 지도, 그림책
- 이용 방법: 서비스 기관에 대출 또는 구입 신청



실로암시각장애인복지관 02-880-0500
<http://www.silwel.or.kr>

④ 확대 도서

- 저시력 시각장애인이 이용할 수 있도록 일반 도서를 확대하여 제작한 도서, 개인의 시력에 따라 독서 가능한 서체와 크기가 달라 대부분 개별 맞춤 도서로 지원
- 이용 방법: 서비스 기관에 제작 신청



⑤ 목·점자 혼용 도서

- 시각장애인과 정안인(비시각장애인)이 함께 볼 수 있도록 제작된 도서
- 일반 도서에 점자가 찍히거나, 책장과 책장 사이에 점자가 찍힌 투명 용지가 추가로 삽입되어 있는 도서
- 장점: 정안인과 장애인이 함께 책을 읽으며 교감할 수 있음
- 분야: 아동도서
- 이용 방법: 서비스 기관에 대출 신청



⑥ 전자 도서

- 보조공학기기의 발달에 따라 최근 가장 많이 활용하는 도서
- 종류: 텍스트, VBF, 데이지, 전자·점자 도서
- 특징: 음성 지원 프로그램이 설치된 컴퓨터에서 소리로 듣거나 점자정보단말기(한소네 등)에서 점자 또는 음성으로 들을 수 있음. 휴대와 활용이 편리하여 학업을 하는 시각장애인들이 가장 선호함

이 외에도 소리 영화, 소리 만화, 화면 해설 방송 등 시각장애인의 문화생활을 위하여 새로운 대체 자료가 다양하게 제작되고 있습니다.

시각장애인용 대체 도서의 이용 자격은 등록 시각장애인이어야 하며, 국립장애인도서관, 시각장애인복지관, 점자도서관 등 서비스를 지원하는 각 기관에 회원으로 가입해야 합니다. 회원으로 가입한 후에는 도서 검색을 비롯하여 전화 또는 홈페이지를 통해 도서 대출 및 파일 다운로드 등 해당 기관에서 지원하는 다양한 서비스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 아이에게 필요한 책, 시각장애인용 도서로 제작이 가능한가요?

기관에 제작되어 있는 도서 외에 우리 아이에게 필요한 동화책, 학습서 등을 대체 도서로 제작하고 싶은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시각장애인용 대체 도서를 제작하는 기관에 개별 의뢰 도서 제작 서비스를 신청하여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제작 기관마다 1인 1회 접수 가능 도서가 제한되어 있으며, 제작 가능한 도서 유형 종류(한글, 영어, 수학, 컴퓨터, 과학, 일본어, 악보 등), 제작 기간, 제본 방법이 상이하여 담당자와 자세한 사항을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



점자 달력

시각장애인이 사용할 수 있도록 일반 달력에 점자를 인쇄한 달력으로 탁상용, 벽걸이용 등이 제작됩니다. 시각장애인단체, 시각장애인복지관 등에 11월말~12월에 신청하여 받으실 수 있습니다.



화면 해설 자료

시각장애인이 애니메이션, 영화, 드라마 등을 감상할 수 있도록 원 자료에 화면 해설을 추가로 삽입하여 만든 오디오 자료



EBS프로그램: 노원시각장애인복지관 02-950-0114 www.kbumac.or.kr
소리 만화, 소리 영화: 한국시각장애인복지관 02-440-5201 sori.or.kr



tip

우리 아이 보험 혜택 받을 수 있나요?

시각장애 영유아를 둔 가정의 부모님들은 많은 치료비 부담으로 인해 민간 보장성 보험 가입 여부에 대하여 많은 관심을 갖고 계십니다. 그러나 아쉽게도 각 보험회사의 가입심사기준에 따라 다르기는 하지만 대부분 시각장애 진단을 받은 이후에는 민간의 보장성 보험을 추가로 가입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실제로 시각장애 아동이 보험 혜택을 적용받은 경우를 파악한 결과, 모두 임신중 태아보험을 가입한 사례로 보장 내용에 준하여 치료비 실비와 장애 진단에 따른 보험료 납입면제를 받았으며 일부는 장애 진단금을 지급받았습니다. 따라서 태아보험 가입 시에는 보장 기간과 보장 내용, 특약 사항을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지역 사회 내의 장애인 체육 시설

장애인의 문화·취미·오락 활동 등을 통한 심신수련을 지원하고 이와 관련된 편의를 제공하는 장애인 체육 시설이 있습니다.

기관명	주소	연락처
삼육스포츠클럽(수영)센터	서울 관악구 보라매동 722-19	02-871-3636
곰두리체육센터	서울 송파구 동남로 271	02-404-6240
서부재활체육센터	서울 은평구 구산동 191-1	02-388-6622
동천재활체육센터	서울 노원구 노원로 18길 41	02-949-9114
시각장애인체육구장	서울 송파구 올림픽로 474	02-2202-8144
기쁜우리체육센터	서울 강서구 허준로 65	02-3663-8114
서울수중재활센터	서울 강동구 고덕로 201	02-440-5700
정림화관(수영센터)	서울 광진구 위키빌로 93	02-446-1237
한국시각장애인복지재단 고덕사회체육센터	서울 강동구 구천면로 645	02-440-5300

출처: 중도장애인거점을 위한 가이드북, 2014

문화누리카드란?

경제적, 사회적, 지리적 어려움으로 문화 예술을 누리기 힘든 분들에게 지원하는 공연·전시·영화 등 다양한 문화 예술 프로그램의 관람 및 음반, 도서 구입과 더불어 국내 여행과 스포츠 관람을 이용할 수 있는 카드

- 대상: 기초생활자, 법정 차상위 계층
- 수급 지원 금액: 대상 세대의 개인별 연간 5만원
- 신청: 동 주민센터

출처: <https://www.munhwanuricard.kr>

시각장애인 보조공학기구

연번	품명	그림	비고
1	확대경	손잡이형	단시간동안 가까운 곳에 있는 사물을 확대하여 보는 기구
		접이형	
		클립형/인경장치형	조명 장치형
2	망원경	단안경	단시간동안 멀리있는 사물을 확대하여 보는 기구
		쌍안경	
3	확대 독서기		정시간동안 가까운 곳에 있는 사물을 확대하여 보는 기구
4	점자 정보 단말기		전자점자를 읽고 쓸 수 있는 기구

출처: 한국시각장애인복지관 보조공학기구 카탈로그

일반학교 저시력 학생의 부모 양육 후기

김주연(가명)

결혼하고 첫 아이를 낳고 평범한 가정을 이루었다고 생각했던 마음이 둘째와 셋째를 낳은 후 너무나 많이 힘들었습니다.

저는 아들만 셋 있는데 그 중, 둘째와 셋째가 시각장애 1급 전맹입니다.

평소 길을 가다가 장애인을 만나면 다시 한 번 쳐다보며 안타깝게 생각했던 기억이 있는데,

나에게 장애 자녀가 태어나리라곤 생각하지도 못했던 일이 일어난 겁니다.

다행한 일인지 두 아이는 다른 복합 장애는 없고, 빛조차 보이지 않는 전맹이지만 건강하게 잘 자라, 지금 고2, 중2(○○맹학교)에 재학 중입니다.

둘 다 3개월이 지날 무렵 시각장애가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고, 둘째에게 그 증상이 있다는 것을 알았을 때는 정말 막막함 그 자체였습니다.

처음 둘째 아이에게 시력에 이상이 있다는 말을 듣고 그 결과가 맞는지 도저히 믿을 수가 없어 병원을 이곳저곳 다니며 확인했지만 돌아오는 답은 너무나 절망적이었습니다.

아이가 태어난 지 1년이 될 무렵, 저는 어차피 시각장애 아이를 키우려면 우리 아이가 자라면서 그때그때, 연령에 맞는 원가의 다른 교육과 보살핌이 필요하겠다는 싶어, 서울맹학교를 무작정 찾아갔습니다. 초등부 교감선생님을 만나 상담을 받았는데 지금 우리 큰아이를 키우듯이 평범하게 대하고, 많은 경험을 하게 해주시라는 말씀과 유치부부터 교육이 필요한 시기가 되면 특수학교에 다니도록 하라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조금은 편안해진 마음으로 한 가지 부탁을 드렸습니다. 현재 맹학교에 등교를 시키고 계시는 어머니 한 분만 소개해 달라고 했습니다. 같은 시각장애 아이를 키우는 엄마로서, 또 먼저 아이를 키우고 있는 선배님으로서 알고 지내며 제가 궁금하고 의지하고 싶은 마음에 그렇게 부탁을 드려 지금 강○○ 선생님을 통해 어머니 한 분을 소개받아 지금까지 그 인연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둘째는 유치부 때 일반 어린이집의 통합으로 다니다가 맹학교에 초등학교를 입학하여 기본적인 점자와 보행을 시작으로 초등 6년을 일반 교과 과정을 공부하여 지금은 고등부 이료반에 다니면서 안마 수업과 교과 수업을 병행하며 아주 만족하며 다니고 있습니다.

셋째는 유치부를 맹학교에 와서 비장애 아이들과 역통합으로 다녀 조금 일찍 점자와 보행을 접하게 되었습니다.

확실히 어려서부터 점자와 보행을 배우다 보니 점자정보단말기나 컴퓨터를 익히고 응용하는 데에도 많은 도움이 돼, 비록 시각장애가 있지만 비장애인들과 크게 다르지 않는 정보 공유를 통해 세상 이야기도 접하며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요즘은 옛날만큼 학생 수가 많지 않은데, 아마도 일반학교에 통합하는 시각장애 학생들이 있어서 그렇지 않을까 합니다.

사실 저도 둘째의 초등학교 입학 통지서를 받고 집 앞 초등학교에 찾아 갔었습니다.

그러나 그 학교에서는 시각장애 학생을 받아들이는 준비나 생각조차 하지 못해 아주 강하게 특수학교를 권해서 마지못해 맹학교에 입학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오히려 저학년 때 특수학교에서 점자나 보행을 제대로 배울 수 있게 되어 다행이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고학년이 될수록 조금씩 비장애 학생들과의 소통의 기회를 넓혀 사회성을 배워나가며 맹학교를 졸업 후 원만한 사회 생활을 하도록 항상 응원하고 있습니다.

요즘 복합 장애 학생 수가 많아지는데 특수학교가 갖고 있는 전문성을 더 키우고 사회와 통합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 시각장애 학생들이 자신이 하고자 하는 일을 하며 행복하게 살아가도록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일반학교 저시력 학생의 부모 양육 후기

정호미(가명)

저는 저시력 아동의 엄마이자 특수 교사입니다.

저희 아이는 시각장애 2급이며, 일반학교에 다니고 있는 5학년 남자아이입니다. 시력에 대해 조금 자세히 말하면 왼쪽은 큰 움직임 정도만 볼 수 있고, 오른쪽은 0.05 정도입니다.

아이가 눈을 뜨자마자 눈에 이상이 있음을 알았습니다. 안구진탕이 있었거든요. 백일도 되지 않은 아이를 서울대병원에서 MRI 검사까지 했습니다. 원인은 선천적이며 시신경 결손에 맥락막 결손, 코츠씨병 등등 많았습니다. 시력이 어느 정도 나올지도 모르는 때였어요. 안경을 써우자고 해서 백일도 안 되었을 때부터 안경을 썼습니다. 아장아장 걸음마를 시작했을 때는 병원에서 진료를 기다리는데 저와 비슷한 색의 옷을 입은 아주머니를 따라가더라고요. 키가 작아서 서 있는 엄마의 얼굴이 보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왜 나만 이렇게 힘이 들고 나 혼자 책임을 져야하는지 세상이 원망스러웠습니다. 책에서 본대로 제 마음도 아이의 장애를 받아들이지 못하고 충격과 부정, 분노, 역경 극복 시도, 우울과 절망, 수용의 단계를 거친 것 같습니다.

만 3세부터 어린이집을 다녔습니다. 다행히 잘 적응하고 친구들과도 잘 지냈습니다. 어느 날 자기 이름을 쓰는데 거울에 비친 것처럼 뒤집어서 쓰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글자를 가르쳐야겠다는 생각이 들어 낱말 카드와 숫자 카드를 가지고 가르쳐 보았는데 별로 효과적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부직포로 숫자를 입체적으로 만들어 같이 가지고 놀면서 숫자를 가르쳐 보았습니다. 며칠 가지고 놀더니 금방 숫자를 익혔습니다. 그래서 한글도 입체적으로 만들어진 한글 자석 퍼즐로 가르쳤더니 수월하게 익히는 것을 보고 저시력을 가진 아이들 중에는 시지각이 조금 다른 아이도 있을 수 있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저희 아이는 정안인들과 조금 다른 자신만의 시지각 체계가 있고 그 체계를 만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일곱 살이 되니 내년에 진학할 초등학교 생활이 걱정되기 시작했습니다. 아이가 학업을 수행

하는 데 작은 글씨로 된 교과서를 읽으며 공부할 수 있을지, 또 칠판이나 선생님이 쓰는 모니터처럼 멀리 떨어져 있는 글씨를 어떻게 볼지 걱정이 되었습니다. 글씨를 확대해 주는 보조공학기를 이용하면 도움이 되리라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실명예방재단에서 저시력 보조 기구인 확대경과 망원경, 독서 확대기의 사용 방법에 대한 교육을 받았습니다. 교내 이동도 걱정이 되어 아이와 같이 학교에서 교실의 위치, 화장실 위치 등도 미리 다녀와 봤습니다.

드디어 초등학교에 진학할 아이를 위해 독서 확대기를 교실 맨 앞자리에 설치해 주었고 담임 선생님과 면담도 마쳤습니다. 그런데 등교 첫날 아이가 독서확대기를 치워달라고 했습니다. 같은 반 아이들과는 달리 저 혼자만 기구를 사용하는 것에 대해 아이가 마음에 상처를 받은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또 친구들의 관심이 싫었던 것 같았습니다. 다음날 독서 확대기를 치우고 2주 정도를 보냈습니다. 아이에게 공부하기 힘들지 않느냐고 묻고 설득한 후 다시 설치하였는데 다행히 받아들이고 학교생활을 시작했습니다. 독서 확대기도 대여 받아 집에서 훈련시키려고 준비를 했지만 아이가 도구를 활용하여 보기 보다는 눈에 가까이 대고 보는 것이 편하니 잘 활용하지 않아서 실망하기도 했습니다. 시간이 지나 3학년쯤 되자 유희왕 카드나 게임 설명서 등을 확대해서 보는 등 활용하기 시작하더니 5학년인 지금은 교과서나 책 등 필요한 것은 확대기를 활용하여 보고 있습니다. 도구를 활용하여 보는 것이 결코 쉽고 편한 일이 아니고 많은 시행착오와 훈련을 거쳐야 된다는 것도 알게 되었습니다.

학교생활의 모든 것이 걱정이 되었고 불편하지 않도록 미리 해결해 주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모든 것을 해결해 줄 수도 없었고, 저의 걱정이 아이를 불안하게 만든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아이는 어느 순간 엄마가 걱정할까봐 자기의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아이를 믿고 스스로 해결해 나가도록 도와주는 것이 맞는데 걱정이 앞서서 아이의 마음을 힘들게 했습니다.

1학년 가을에 아이의 왼쪽 눈에 녹내장 수술을 하게 되었고 시력이 크게 떨어져 큰 움직임 정도만 보게 되었습니다. 두려웠습니다. 아이의 시력으로 교과서 이외의 다양한 책 읽기가 힘들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시력이다 보니 텍스트를 오래 보는 것도 힘들고 피곤해 고민이 많이 되었지만 앞으로 공부를 계속시키려면 점자로 책을 보는 방법이 제일 효율적일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겨울방학에 시각장애인복지관에서 점자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아이는 보이는데 왜 점자를 공부해야하느냐며 공부하는 것을 싫어하였고 어려워했습니다. 아이에게 설명을 해 보아도 이해하지 못했고 저는 또 앞서서 걱정하고 대비하려고 했습니다. 방학마다 점자를 배웠지만 점자책을 읽는 것은 어려웠습니다.

2학년 3학년을 무사히 지나 4학년이 되었는데 아이가 또 아팠습니다. 1학년 때와 증상이 같았습니다. 저는 무서웠습니다. 의사선생님도 무서웠던 것 같습니다. 그 무렵 동네의 좋은 안과 선생님을 만났는데 병원을 바래보라고 해서 병원을 바꿨고 수술을 성공적으로 마쳤습니다. 눈이 예민한 아이를 매번 종합병원에 데려가는 것이 어려우니 자잘한 것은 마음에 맞는 동네 안과 선생님을 찾아서 상담하는 것도 좋은 것 같습니다.

4학년 담임 선생님과 학년 말에 상담하는데 아이에게 또래의 비슷한 친구들을 만나게 해주는 것이 좋을 것 같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아이가 친구는 많지만 마음을 터놓는 친구는 없는 것 같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시각장애인복지관 학습지원센터에 학부모 자조모임을 만들어 달라고 요청했고, 저시력 학생 담당 특수교육지원센터에 집단 상담 프로그램을 요청했습니다. 집단상담 프로그램에는 세 명의 아이들이 모여서 프로그램에 참여했는데 아이들 모두 자신의 장애피아들이고 자신감을 회복하는데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한편 올해 3월부터 복지관에서 자조모임이 시작되었고 유치원부터 고3 학부모까지 심 여분이 모이는 모임이 되었습니다. 이 모임에서 알게 된 초등학교 학부모님들과 함께 여름방학 프로그램을 만들어 달라고 해서 6명이 모여 점자, 정보화 교육, 수영을 배웠습니다. 저시력 아이들이 모여서 같이 점자를 공부하니 아이들이 거부감 없이 점자를 공부했고 저희 아이도 5분 정도에 한 쪽을 읽게 되었습니다. 같이 마음을 나누는 친구를 만나게 되었고 학부모님들도 서로 믿고 의지할 수 있는 동지를 얻게 되어 한 달에 한 번 정도 만나서 회포를 풀고 있습니다.

이번 여름방학에는 아이 혼자 실명예방재단에서 주최하는 저시력 어린이 재할 캠프에 참여했습니다. 아이가 장기자랑에 나간다면 간단한 카드마술을 연습하더니 반응이 좋았던 것 같습니다. 성당 캠프에도 참여해보겠다고 해서 대견하기도 하고 한편으로 학교 캠프와 저시력어린이

이 캠프 이외에 여러 학교 아이들이 모이는 캠프는 걱정도 되었지만 아이가 용기를 낸 것에 감사를 하면서 저도 용기를 내어 보냈습니다. 아이는 성당 캠프에서도 장기자랑으로 카드 마술을 했고 인기를 얻었나 봅니다. 2박 3일 성당 캠프를 다녀온 아이를 보니 부쩍 커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이가 학교에서 조금 더 넓은 지역 사회인 성당으로 범위를 넓히게 되고 자신감을 갖게 된 것은 여러 기관의 교육과 저시력 친구들과 함께 했던 시간의 힘이었던 것 같습니다. 혼자서 아이의 장애피아를 극복해 보려고 했던 마음을 열고 여러 기관과 학부모님들과 함께 하나씩 헤쳐나가고 있는 지금 마음이 한결 편안하고 다행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3학년 때 국세청 세금문예작품 공모전에서 대상을 받았습니다. 주제는 독서 확대기를 국민들의 세금으로 무상 대여 받아 학교 공부를 열심히 하고 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주제가 목적에 잘 부합하여 상을 받은 것 같습니다. 전에는 아이의 보는 문제만 해결해 주면 일반 아이처럼 잘 지낼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여러 가지 생각지도 못한 문제들이 계속 생겨났고 자존감은 낮아져 갔습니다. 아이의 장애피아를 받아들이고 비슷한 친구들을 만나게 해주고 마음을 나누게 하고 표현하게 해 주니 아이도 자신감을 찾아가고 자신의 위치를 확립해 나갈 수 있는 원동력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혼자서 아니라 같이 가는 친구들과 부모님들 여러 기관들이 있으니 침착하게 대처해 나갈 수 있을 거라는 믿음이 생겼습니다. 장애피아 가진 아이와의 만남은 분명 어떤 의미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며 또한 그 과정이 삶의 의미인 것 같습니다.

일반학교 전맹 학생의 부모 양육 후기

홍지현(가명)

지훈이는 2009년 12월, 29주 2일 690g의 작은 몸으로 태어나 수많은 기쁨을 주위 사람들에게 선사한 아이입니다.

처음 지훈이가 교육을 받은 곳은 곳은 ○○맹학교 영아반이었습니다. 2011년 영아반을 시작으로 2013년 유치원까지 3년의 시간을 보냈고 말하고 밥 먹고 대소변을 가리는 것까지 맹학교 선생님의 도움을 받아 2014년 서울 ○○병설유치원으로 통합교육을 시작하였습니다.

집에서 가까운 곳은 아니지만 지훈이에게는 최고의 선택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주위가 조금 자리 주책이라 대다수의 아이들이 형제자매가 적어도 2명 이상, 많은 아이들은 3명이 있는 아이도 더러 있었습니다. 그중에는 오빠가 시각 6급이라는 이유로 챙겨 주는 아이도 있었고 다른 아이들보다 작고 마른 아이기에 아이들 모두 배려해 주고 보호해 줘야 한다고 자연스럽게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처음부터 지훈이에게 호의적이었던 것은 아닙니다. 전맹이라 유치원에서 다쳐도 책임 못 지겠다는 이야기를 수도 없이 들었습니다. 저도 지훈이가 다칠 수 있고 상처받을 수 있다는 것을 모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지훈이가 작은 복도의 끝자락에 서 있다가 한 아이가 다른 쪽 끝에서 뛰어오자, 자신에게 뛰어오는 줄 알고 자지러지게 우는 것을 보고 알았습니다. 그 동안 내가 너무 아이를 보호만 하였구나! 평생을 아이를 보호만 하고 살 수 없으니 아이에게 세상이 어떤 곳인지 알려 주어야겠다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아이는 처음 6개월은 적응하느라 고생을 했습니다. 항상 감기를 달고 살았고 우는 날도 많았으며 선생님께서 지훈이에 대해 어떤 요구를 할 때마다 눈치를 보았습니다. 10가지를 말하면 1가지는 해주는 것을 보고 그마저도 말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는 생각과 엄마가 적극적이지 않는 데 선생님에게 무엇을 바라겠냐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이에게도 항상 말하지 않으면 다른 사람이 너의 생각을 알 수 없다, 항상 요구하고 표현하라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시각장애 아이가 누군가에게 타이밍을 맞춰 이야기하기가 쉽지 않아 아직 이 것은 저와 아이의 과제입니다. 통합을 다니고 아이는 항상 노래를 흥얼거립니다. 주위 아이들이 부르는 노래, 학교에서 배운 노래 등등 밝고 활동이 많이 늘었습니다.

통합을 원하시는 어머니들은 참 많습니다.

그런데 항상 망설이시지요. 우리 아이가 과연 할 수 있을까? 제가 통합을 한 것이 쉽다고만은 하지 못하겠습니다. 엄마가 해주어야 할 부분이 참 많은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아이들이 알았으면 합니다. 세상이 참으로 크다는 것ですよ. 그래서 사람들이 안 된다고 말해도 못어넘기며 '가까운 일본이나 미국에서도 했다는데 왜 안 돼? 해 본적이 없으니 그렇지. 그럼 내가 먼저 해보겠어'하고 마음이 튼튼하고 생각이 건강한 아이들이 되었으면 합니다.

일반유치원 전맹 학생의 부모 양육 후기

이현미(가명)

다원이는 4·5세는 특수학교 유치원을 다녔습니다. 방학 기간이 너무도 길어서 방학 동안만이라도 정안 아이들과 같이 지내 보으면 하는 바람으로, 쌍둥이 언니가 다니는 일반유치원의 문을 두드렸습니다. 원장님이 선뜻 허락해 주셨고 다만 보호자가 있어야 한다고 해서 개인적으로 월급을 주고 사람을 채용하여 일반유치원에 다니게 되었습니다. 너무도 적응을 잘 하고 친구들의 반응 하나 하나에 관심이 많은 다원이는 행복해 했습니다. 눈이 왜 그래? 그런 질문도 많이 받았지만 잘 이겨냈지요. 초등학교를 결정할 시기에 특수학교로 갈지 일반으로 갈지 많은 고민이 있었습니다. 특수학교로 가면 다원이에겐 맞는 학습이 이루어지겠지만 친구들이 별로 없어 심심해 할 것 같았고, 일반학교로 가면 맞춤 학습은 안 되지만 친구들의 웃음소리라도 들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학년까지 만이라도 한 번 보내보자고 결심했습니다. 이번이 아니면 후회할 것 같아서요. 다원이 또한 언니가 다니는 학교에 다니고 싶어 했습니다. 다원이의 학습은 엄마가 맡아한다는 각오로 보내기로 했습니다.

다원이 또한 자신이 잘 할 수 있을까, 선생님은 어떤 분이실까 하는 두려움이 많았습니다. 다원에게 잘 할 수 있을 거라는 믿음을 주고 우리 또한 다원이가 잘 할 거라 믿었습니다. 다원이와 대화를 많이 했습니다.

학교에서는 처음으로 시각장애 아이를 교육해야 됐기 때문에 부담감을 가지셨을 걸로 생각했지만 교장 선생님께서는 다원이를 보고는 잘 지낼 것이라고 하시며 언제나 불편한 사항 있으면 말씀하시라고 저와 남편을 편안하게 해 주셨습니다. 다행히 선생님 중 특수교육을 전공하신 선생님이 계셔서 다원이의 담임 선생님이 되셨습니다. 저보다 다원이의 학습에 열정적이었고, 다원이의 마음을 읽어 주신 선생님을 만난 것입니다. 너무도 감사한 일이었지요. 진학할 때 어려움은 없었지만 진학하고 다원이가 시험을 보는 과정에서 점자시험지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 문제는

가 생겼습니다. 학교에서는 점역 교정이 어려웠기 때문에 교육청을 통해 특수학교에 의존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모든 선생님들께서 열심히 가르치시려고 노력하심에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지금 다원이는 초등학교 2학년입니다. 일반 초등학교에 다니지 얼마 안 됐지만 다원이는 방학이 싫다고 합니다. 학교에 가고 싶고 선생님, 친구들이 보고 싶다고 합니다. 다원이가 행복하게 잘 생활하는 것에 감사하며 일반 초등학교 진학 결정을 잘 했다고 생각합니다.

특수학교 전맹 학생의 부모 양육 후기

최민영(가명)

처음에는 전혀 알지 못 하였다. 아기가 뭔가 이상하다는 사실을 말이다. 백일 무렵 이웃 아주머니 한 분이 갓난아기였던 아들을 안고 한참 바라보시더니 이렇게 말씀하셨다.

“아무래도 좀 이상한데... 아기 데리고 큰 병원에 좀 가 봐요. 어째 눈의 초점이

좀 흐린 거 같애.”

며칠 후 갓난아기를 데리고 종합병원에 갔다. 병원에서 몇 가지 검사를 한 뒤 충격적인 이야기를 들었다. 갓난아기가 선천성 고도 근시였다 시신경이 몹시 위축되어 있다는 이야기였다. 시각장애아였던 것이다. 도저히 받아들이실 수 없었다. 혹시 오진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가지고 안과로 유명하다고 하는 병원을 몇 군데나 찾아다니며 검사를 해보았다. 하지만 결과는 언제나 똑같았다. 가까운 친척들이 기도를 하라는 등 곳을 하라는 등 자기가 아는 갖가지 방법을 다 권했지만 그런 방법이 효과가 있을 것 같지는 않았다.

그렇지만 아들이 태어나면서 지닌 장애를 받아들이는 데에는 너무나 많은 시간이 필요했다. 어느 정도의 시간이 흐르자 이런 생각이 들었다.

‘비록 눈은 보이지 않지만, 다른 이상은 없고 지능도 정상이니 잘 가르치고 공부를 열심히 시킨다면 다른 일반인들과 충분히 같이 어울려 살 수 있지 않을까? 그래! 우리 집에는 장애인이었다. 다른 일반인과 똑같이 대하리라.’

이때부터 나는 우리 아이를 시각장애아가 아닌 일반 아이로 대하기 시작했다. 남편과 함께 동네 슈퍼를 운영했었는데, 아침 일찍부터 밤늦게까지 남편과 번갈아 가며 물건을 팔고 집안일을 하다보면 사실 아이를 양육하는데 시간을 많이 할애할 수도 없었다.

의학적으로는 잔존 시력이 측정되지 않았지만, 어릴 때에는 환한 곳에서 바로 앞에 있는 물

체의 유무 정도는 구분할 수 있을 정도는 보였다. 그래서 그런지 바깥에 나가서 동네 친구들과도 곧잘 어울려 놀곤 했다. 어느 날 집안 청소를 하고 있는데 슈퍼에 손님이 오셨다. 손님에게 물을 팔고 나서 청소를 마저 하려고 집안으로 들어오니 방금 전까지 방을 쓸던 빗자루가 보이지 않았다. 이상하다, 하면서 빗자루를 찾아보았지만 빗자루는 어디에도 없었다. 그리고 대여섯 살이었던 아이도 보이지 않았다. 빗자루와 함께 아이가 없어진 것이다. 아이가 곧잘 놀던 집 앞 놀이터에도 없었다. 몇 시간이 지나도 아이가 돌아오지 않자 아이를 찾아 나섰다. 우리 동네를 한 참 찾아 헤매어도 찾을 수가 없어서 옆 동네까지 가보았다. 그런데 옆 동네에 있는 어느 빌라 앞에 우리 집 빗자루가 암전혀 세워져 있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빌라 현관 안으로 들어가 보았더니 우리 아이가 계단에서 낯선 아이와 함께 깔깔거리며 놀고 있었다. 그 낯선 아이를 처음 만났는데 그 아이가 사는 동네까지 쫓아가서 같이 놀고 있었던 것이다. 이렇듯 우리 아이는 슈퍼 앞 놀이터에서 동네 친구들과 놀며 어떻게 보면 나의 사랑보다는 동네 어른들의 관심을 먹고 자란 셈이다.

아이가 다섯 살이 되던 해에 동네에 있는 일반유치원에 보내기 시작했다. 유치원 친구들과도 활발하게 잘 놀며 큰 어려움 없이 유치원에 다녔다. 유치원의 원장 선생님은 아이가 목소리가 워낙 좋아서 장차 훌륭한 가수가 될 수 있을거라 격려도 해 주시며 우리 아이를 잘 대해 주셨다. 일반유치원에 다닌지 2년이 다 되어가던 일곱 살을 코앞에 둔 어느 날이었다. 유치원 선생님이 우리 집을 방문하셨다. 선생님은 아이가 연필이나 크레파스를 제대로 쥐지 못하고 있고, 한글도 가르치기 힘들다는 말씀을 하시면서 시각장애 아동에게 맞는 특별한 교육이 필요하다고 하셨다. 집 앞의 학교에 보내고 싶은 마음이 굴뚝같지만, 아들에게 맞는 교육을 시켜줄 곳을 찾지

않을 수 없었다. 여기저기 수소문한 끝에 청와대 옆에 있는 신교동에 서울맹학교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일반유치원에서는 아이에게 맞는 교육을 따로 해줄 여력이 없었으므로 그것이 더 나은 선택이었다.

동네 유치원은 유치원 차가 집 앞까지 아이를 데려다 주었지만, 맹학교 유치원은 50분이 걸리고 대중교통을 세 번에 걸쳐 이용해야 갈 수 있었다. 먼저 버스를 타고 불광역에서 내린 다음, 불광역에서 전철을 타고 경복궁역에서 내렸다. 그리고 다시 경복궁역에서 유치원이 있는 맹학교까지 버스를 타야 했다. 아침부터 오전 시간 내내 남편은 시장에 나가서 슈퍼에서 내다 팔 물건들을 주문하고 사 오느라 슈퍼를 비웠기 때문에 오전에는 내가 슈퍼를 봐야 했다. 아이와 매일 같이 통학할 수가 없었던 것이다. 일곱 살짜리 아이가 세 번이나 차를 바꿔 타면서 유치원을 잘 다닐 수 있을지, 걱정하지 않을 수 없었다. 같이 우리 아이를 통학 시켜 줄 사람도 없었기 때문에 처음에는 별 수 없이 남편에게 슈퍼를 맡겨 두고 아이와 같이 유치원에 다니기 시작했다. 하지만 하루, 이틀, 사흘, 나흘, 횡수를 거듭하면서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생각이 들었다. 몇 번 다녀보니 내가 아이를 데리고 가는 게 아니라 아이가 날 데리고 다니는 것처럼 느껴졌기 때문이다. 전철역에서 전동차를 기다릴 때면 열차가 들어오기 직전에 아이는 나를 조심시키곤 했다. 아이는 뛰어난 청각으로 멀리서 열차가 오는 소리를 감지해 내는 것 같았다.

“엄마, 뒤로 물러서야 되요. 열차가 오고 있어요.”

“응! 그래?”

잠시 후 역에서 열차가 들어오고 있으니 안전선 밖으로 물러서라는 안내 방송이 흘러나왔다.

“아이고! 네가 엄마보다 소리를 잘 듣네. এমন 하나도 안 들었는데 말이야.”

며칠 아이와 유치원에 같이 다닌 뒤, 아이에게 슈퍼 일을 보아야 해서 유치원에 갈 수 없으니 혼자 가라고 하였다. 그리고 아이 모르게 멀리서 뒤따라 가 보았다. 그런데 아이는 전혀 헤매지도 않고 익숙하게 잘 가는 것이었다. 내가 있지 않아도 아이 혼자 스스로 다닐 수 있겠다는 확신이 생겼고, 이때부터 우리 아이는 혼자 다니기 시작했다.

우리 아이는 보이지 않으니까 생선 가시를 발라 먹기가 힘들다. 아주 어릴 땐 나도 당연히 가시를 발라주었다. 하지만 내가 없을 때, 그리고 어른이 되었을 때 어떻게 될 지에 대한 생각이 들기 시작했다. 아이가 초등학교에 다니던 어느 날 밥상에서 이렇게 아이에게 말했다.

“엄마 말 잘 들어. 이제부터 네가 가시를 발라 먹어. 언제까지 엄마가 널 따라다니면서 가시

발라 주고 고기 잘라 주고 하면서 뒤치다꺼리를 할 수 있겠니? 앞으로 살자면 너 혼자 세상 사 람들하고 부딪힐 날이 얼마나 많은데 엄마가 일일이 데리고 다니고, 보살펴 주겠어? 만약 너 혼자 가시를 발라 먹지 못하면, 나중에 어른이 되어서도 넌 맛있는 음식이 나오는 자리에 초대받 지 못할 거야. 사람들이 처음 몇 번은 초대하겠지. 하지만 네가 올 때마다 가시를 발라 주고 옆 에서 일일이 식사를 거들어 주어야 한다면 피곤해서 더 이상 널 부르지 않을 거라고. 입장을 바 께서 한번 생각해 봐. 너라도 그러지 않겠니? 적어도 세 번은 부를 만한 자리가 생겼도 한 번밖 에 부르지 않을 걸.”

우리 아이는 건강하게 잘 자라서 영어 교사가 되어 있다. 나는 최근에 이런 생각을 많이 한다. 만약 아이가 어릴 때 우리 집이 부유하고 내가 여유 시간이 많았다면 어떨을까? 나도 여느 엄마 들처럼 자식에게 그저 퍼주고 싶은 마음에 아이에게 모든 걸 해주려고 하지는 않았을까? 집안 형편이 넉넉하지 못해서 아이에게 직접적으로 많은 것은 해 줄 수 없었어도, 그것이 도리어 아이 의 독립심과 사회성을 키워주는 원동력이 되었던 것 같다. 내가 아이에게 많은 것은 해 줄 수 없 었지만 아이는 거의 대부분을 내 시야 안에서 활동하고 자랐기 때문에 부모의 사랑을 느끼며 성 장했고, 이것이 장애인이지만 일반 사회에서 낙담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긍정적으로 살아가는 가장 중요한 밑바탕이 아닐까 한다.

| 부록 1 | 시각장애 특수학교

설립	시도	행정구역	학교명	주소	전화번호
국립	서울	종로구	서울맹학교	서울특별시 종로구 필운동 97(신교동)	02-731-6771
사립	서울	강북구	한빛맹학교	서울특별시 강북구 삼양로 73가길 47(수유동)	02-989-9135
공립	부산	동래구	부산맹학교	부산광역시 동래구 총렬사로 67번길 56(명진동)	051-524-1046
사립	대구	남구	대구광명학교	대구 남구 성당로50길 33 대구광역시(대명동)	053-231-3300
사립	인천	부평구	인천혜광학교	인천광역시 부평구 경인로 769번길 27(신정동)	032-522 - 8345
사립	광주	서구	광주세광학교	광주광역시 서구 유덕로 177(덕흥동)	062-606-0401
공립	대전	동구	대전맹학교	대전광역시 동구 은어송로 95(가오동)	042-280-3601
사립	강원	춘천시	강원명진학교	강원도 춘천시 총열로 60(우두동)	033-253-3011
사립	충북	청주시	청주맹학교	충청북도 청주시 상당구 영운로 122-1(탑동)	043-253-7761
사립	충북	충주시	충주성모학교	충청북도 충주시 방아길 48-9(호암동)	043-852-1374
사립	전남	영암군	은광학교	전라남도 영암군 신흥읍 신흥정길 43-17(삼호읍)	061-462-4714
사립	전북	익산시	전북맹아학교	전라북도 익산시 서동로46길 41(석암동)	063-833-2621

| 부록 2 | 시각장애인복지관 목록

번호	지역	기관명	전화번호	홈페이지
1	경기	경기도시각장애인복지관	031-856-5300	www.gsgg.com
2	경북	경상북도시각장애인복지관	054-253-5900	www.gbws.kr
3	광주	광주광역시시각장애인복지관	02-451-6000	www.gbwwel.or.kr
4	대구	대구시각장애인복지관	053-526-9988	www.dgblind.or.kr
5	부산	부산시각장애인복지관	051-338-0017	www.white.or.kr
6	서울	서울시각장애인복지관	02-422-8108	www.bokji.or.kr
7	서울	서울시립노원시각장애인복지관	02-950-0114	www.cncane.or.kr
8	서울	성북시각장애인복지관	02-923-4555	www.blindnet.or.kr
9	서울	실로암시각장애인복지관	02-880-0500	www.silwel.or.kr
10	서울	한국시각장애인복지관	02-440-5200	www.hsb.or.kr
11	울산	울산시각장애인복지관	052-256-5244	www.ubr.or.kr
12	인천	인천광역시시각장애인복지관	02-440-5201	www.ibu.or.kr
13	제주	제주시각장애인복지관	064-710-1200	www.jifb.or.kr
14	충남	충청남도시각장애인복지관	041-413-7000	www.cncane.or.kr

| 부록 3 | 시각장애인 도서관 목록

번호	기관명	전화번호	주소
1	강원점자도서관	033)262-1996	강원도 춘천시 소양강로110 강원도사회복지회 관 1층
2	강북점자도서관	02-985-3664	서울특별시 강북구 삼양로 73가길 47 한빛맹학교 2층 점자도서관
3	강서점자도서관	02-2661-2278	서울특별시 강서구 공항대로8길 77-24
4	경기북부 시각장애인도서관	031)871-0445	경기도 의정부시 추동로 140 경기북부상공회 외소 301호
5	경기도시각장애인도서관	031)213-7722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팔달문로 135 1층
6	경남점자정보도서관	055)241-0023	경상남도 창원시 마산합포구 반월서7길 59 마산시장애인복지관 내
7	경북점자도서관	054)277-2998-9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법원로 105
8	대구북점자도서관	053)526-9080	대구광역시 달서구 달구벌대로 291길 100
9	대구대학교 점자도서관	053)850-5482-3	경상북도 경산시 진량읍 대구대로 201
10	대구점자도서관	053)256-8877	대구광역시 달서구 월배로 414
11	대전광역시한빛도서관	042)580-7492	대전광역시 중구 서문로 10
12	대전점자도서관	042)252-0055	대전광역시 중구 서문로 10 한빛도서관 별관 1층
13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마포점자도서관	02-338-0180	서울특별시 마포구 방음대로 24-12
14	무지개도서관	043)237-5544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공단로 87 충북종합사회복지센터 5층
15	부산점자도서관	051)302-9010	부산광역시 사상구 덕상로 72번길 9
16	서울시각디지털도서관	02-422-8108	서울특별시 송파구 심학사로19길 27
17	서울점자도서관	02-935-9696	서울특별시 노원구 동일로 1335, 702

번호	기관명	전화번호	주소
18	성북점자도서관	02-923-4555	서울특별시 성북구 동소문로257길 20
19	송암점자도서관	032)876-3504	인천광역시 남구 한나루로357번길 105-19 인천시각장애인복지관 1층
20	수리장애인종합복지관	031)465-4465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냉천로 39
21	실로암점자도서관	02-880-0804	서울특별시 관악구 남부순환로 1717
22	영광시각장애인 모바일점자도서관	02-393-4568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북아현로 26-10
23	울산광역시점자도서관	052)256-3308	울산광역시 남구 중앙로 151 성수빌딩 2F
24	송파시각장애인 정보문화센터(인성)	02-422-6070	서울특별시 송파구 마천로 61길 26
25	인천화도진도서관	032)760-4133	인천광역시 동구 화도진로 122
26	전남시각장애인도서관	061)283-6969	전라남도 목포시 입암로4번길 21
27	전남점자도서관	061)284-6333	전라남도 목포시 영산로 633, 4층
28	전라북도점자도서관	063)288-0046	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학산길 26-3
29	전북시각장애인도서관	063)288-9083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남노송동 515번지 구전주기상대별관2층
30	제주도 문화정보점자도서관	064)723-7777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동광로 31 6층
31	제주시각장애 복지관	064)710-1305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아복로 433
32	종달새전화도서관	02-736-3000	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 22길 19 중앙빌딩 4층
33	충청남도점자도서관	041)578-4051~3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서부대로 602 2층
34	하상시각장애인도서관	02-451-0123	서울특별시 강남구 개포로 613
35	한국시각장애인 복지재단 점자도서관	02-440-5233	서울특별시 강동구 구천면로 645
36	한국점자도서관	02-3426-7411	서울특별시 강동구 상암로47길 32
37	한국학생점자도서관	02-880-0600	서울특별시 종로구 자하문로 131-1
38	해밀도서관	032)650-4600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옥산로 10번길 4
39	LG상남도서관	02-708-3700	서울특별시 종로구 창덕궁길 18

참고 문헌

- 강수근, 조흥중 (2003). 장애 이해와 교육. 서울: 교육과학사.
- 고제훈, 김종미, 김호진, 김성천 (2015). 2015년장애인경제활동 실태조사.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고용개발원.
- 광주광역시 서부교육지원청 특수교육지원센터 (2015). 두근두근, 학교 가는 날: 초등학교 입학 을 앞둔 장애아동과 부모를 위한 안내서. 광주: 저자.
- 교육부 (2012). 유아 재난대비 생활안전교육 프로그램. 서울: 저자.
- 박순희 (2014). 시각장애아동의 이해와 교육(3판). 서울: 학지사.
- 보건복지부 (2016). 2016년도 장애아동가족지원 사업안내. 세종: 저자.
- 보건복지부 (2016). 보육사업안내. 세종: 저자.
- 서소정 (2010). DEP 조기중재 교육과정 인지편. 서울: 학지사.
- 서울시복지재단 (2014). 중도장애인가족을 위한 가이드북. 서울: 저자.
- 서울시복지재단 (2015). 발달장애인가족가이드북. 서울: 저자.
- 서울특별시 소방재난본부 (2008). 시각, 청각장애인 안전교육 교범. 서울: 저자.
- 서울특별시교육청 (2016). 2016학년도 특수교육대상자 치료 지원 계획(안). 서울: 저자.
- 솔라미드 카드타인 외 (1994). 장애아동 특수교육법(김은숙 외 역). 도서출판 특수교육.
- 심수현. 장애인의 치과치료 매뉴얼. 파라다이스복지재단.
- 유아гада 역 (2008). 눈을 감고 느끼는 색깔여행. 서울: 교래이야기.
- 윤선수, 김우호 (2015). 장애인복지론. 서울: 양서원.
- 이숙, 우희정, 최진아, 이춘아 (2011). 부모교육. 서울: 학지사.
- 이태훈 (2013). 시각장애청소년 진로직업탐색 워크북. 서울: 시그마프레스.
- 이경림 (2006). 시각장애학생을 위한 교육과정의 이론과 실제. 서울: 서림출판사.
- 이경림 (2008). 시각장애학생 교육의 이해와 실제. 서울: 서현사.
- 이소현 (2009). 장애 영유아를 위한 교육. 서울: 이화여자대학교출판부.
- 임안수 (2010). 시각장애아 교육. 서울: 학지사.
- 장애인먼저실천운동본부 (2005). 장애인 인식개선 매뉴얼 - 장애인 인식 개선 길라잡이. 서울: 저자.
- 전영환, 이태훈, 조성재 (2015). 시각장애인 고용확대 방안 연구. 경기: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고 용개발원.
- 정인옥복지재단 (2013). 시각장애인 보행의 이론과 실제. 서울: 시그마프레스.
- 전해인 (2010). 장애아동 가족지원의 실제. 서울: 한국학술정보.
- 조윤경, 이경아, 김예리, 강혜원, 조혜희 (2014). 장애아 부모지원 가이드북 개발 연구. 서울: 한 국장애인개발원.

- 최복천, 김유리, 박현수, 임수경 (2014). 비장애형제자매 실태조사 및 지원방안 연구. 서울: 한 국장애인개발원.
- 최혜정, 이상옥, 최억 (1999). 안경 처방을 위한 굴절검사. 서울: 웰드사이언스.
- 홀세웨 · 베르헬 (2003). 스노젤렌(Snoezelen)(서울장애인종합복지관 작업치료팀 역). 서울: 서울장애인종합복지관.
- Chen, D., & Downing, J. 저, 한경근, 황정현, 홍재영 역 (2015). 시각중복장애아동을 위한 촉 각 교수 전략: 중도중복장애아동의 의사소통 및 학습 기술 촉진 방법. 서울: 학지사.
- Sack R. L., & Lewy A. J. (2001). Circadian rhythm sleep disorders: lessons from the blind Sleep. Med Rev. 5(3), 189-206.
- Skene D. J., & Arendt J. (2007). Circadian rhythm sleep disorders in the blind and their treatment with melatonin Sleep. Med 8, 651-655.

참고 사이트

- 대한안마시협회 <http://www.anmaup.or.kr>
- 대한장애인체육회 <http://www.kosad.or.kr>
- 복지로 <http://www.bokjiro.go.kr>
- 서울시장애인가족지원센터 <http://dfscenter.welfare.seoul.kr>
- 장애인활동지원 <http://www.ableservice.or.kr>
- 정상발달센터 <http://blog.naver.com/deptpt/132837130>.
- 참소리언어발달연구소. <http://www.chamsori.co.kr>
- 한국시각장애인복지관 생활응구전시장 <http://sori.or.kr/cane>
- 한국실명예방재단 <http://www.kfpb.org>
- 한국장애인고용공단 <https://www.lead.or.kr>
- 한국장애인복지관협회 <http://www.hinet.or.kr>
- 한국장애인부모회 <http://www.kpat.or.kr>
- 한국정보화진흥원 정보통신보조기기 <http://www.at4u.or.kr>
- <http://happy-times.tistory.com>
- <http://m.tip.daum.net/question/300899/408151>

장애위험을 보이거나 실제로 장애를 지니고 있는 아이를 키우는 일은 참으로 어렵고도 험난한 여정입니다. 일반 아이들을 키우는 데 도움이 되는 책들은 널려 있지만 장애 아이들을 키우는 과정에서 마주치는 크고 작은 일들에 대처하는 데 도움이 될 만한 책은 찾아보기 힘들었습니다. 이것은 당연히 국가에서 해야 할 일이나 미진한 점이 있었습니니다. 이를 개선하고자 장애인들을 둔 어머니들께서 장애영유아 양육 가이드북 개발 필요성을 호소했고 국가 예산에 반영되었습니다. 이러한 어머니들의 요구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30여명의 연구진과 6명의 연구보조원, 전국장애인부모연대, 그리고 그 뜻을 함께 해주신 많은 분들이 연구 과정에 참여해 주셨습니다.

이 가이드북은 우리나라에서는 처음으로 개발된 것으로 첫발을 내딛기가 그리 쉽지만은 않았습니니다. 어느 장애 영역까지 다룰 것이며 어떤 내용으로 구성할 것인지에서부터 심지어는 용어와 문체까지도 최종 결정에 이르기까지 많은 논란이 있었습니니다. 이 모두가 처음으로 시도되는 과업이기에 우리가 겪어야 할 과정으로 받아들이면서, 수 차례의 집필진 및 팀장 회의를 통해 의견을 모으고, 그레도 석연치 않은 점에 대해서는 전문가와 부모님들의 고견을 청취하여 반영하였습니다. 특히 독자층의 범주가 넓다보니 기술 내용의 난이도를 정하는 것이 쉽지 않았는데 결국 누구에게나 읽고 이해하는 데 어려움이 없는 책을 만들고자 하였으며, 이를 위해 편집 디자인과 삽화 제작 등에도 심혈을 기울였습니다.

이 가이드북은 아직도 부족한 부분이 많습니다. 이번 가이드북 개발 사업은 장애인 자녀 부모님들을 위한 양육 자료 개발 및 보급 사업을 본격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첫 단추를 꿰는 작업이었습니다. 앞으로 부모님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가이드북의 활용도를 높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이와같은 자료들이 국가차원에서 지속적으로 개발되기를 희망합니다.

이 가이드북이 나오기까지 연구진 외에도 많은 분들의 도움이 있었습니다. 심충면담을 통해 자신의 이야기를 들려주신 20명의 어머니, 설문조사에 참여해주신 400여명의 부모님, 자신의 자녀를 기른 경험을 수기 형태로 진솔하게 써주신 40명의 어머니, 세세한 내용까지 꼼꼼하게 검토해 주신 5명의 전문가 자문위원님, 전국 12개 지역 설명회에 참여하여 좋은 의견을 주신 500여명의 부모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런저런 귀찮은 일들을 기꺼이 도맡아 주신 전국장애인부모연대 관계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무쪼록 이 가이드북이 아이를 키우는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고 계시는 전국의 어머니들께 조금이나마 안내의 역할을 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2016년 11월 30일
집필진을 대표하여 **김삼섭** 올림

- 연구책임자:** 김삼섭 교수 | 중부대학교 인문산업대학원 발달장애지원학과
- 연구·집필진(30명, 가나다순)**
- 강미애 교사 | 서울맹학교
 - 강민재 교수 | 중부대학교 중등특수교육과* 연구1팀장
 - 김기룡 사무총장 | 전국장애인부모연대* 연구5팀장
 - 김성연 사무국장 |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 김수진 교수 | 나사렛대학교 언어치료학과
 - 김원석 교사 | 충주 성심학교
 - 김정현 교수 | 백석대학교 특수교육과* 집필3팀장(사각장애)
 - 김진경 교수 | 한서대학교 작업치료학과
 - 김재왕 변호사 | 희망을 만드는 법(공익인권변호사모임)
 - 김지훈 정책연구실장 | 전국장애인부모연대* 연구3팀장 및 집필6팀장(가족지원)
 - 나경은 교수 | 중부대학교 중등특수교육과* 연구2팀장
 - 서동수 진료부장 | 서울시립어린이병원
 - 서보순 교수 | 동의대학교 유아교육과* 연구4팀장
 - 서선진 교수 | 건양대학교 중등특수교육과* 집필1팀장(발달장애 양육자서·정보)
 - 서은경 회장 | 전국장애인가족지원협의회
 - 송지숙 센터장 | 한국시각장애인복지관 학습지원센터
 - 유경미 센터장 | 경기북부장애인가족지원센터
 - 유진선 학부모 | 이월병설유치원
 - 이미현 부회장 | 한국장애인부모회 청각장애분과
 - 이서욱 교사 | 충주성심학교

- 이원미 교사 | 서울누리학교
- 이정옥 회장 | 한국중증복뇌병변장애인부모회
- 임용재 교수 | 일보군마대학교 특수교육과* 집필5팀장(지체장애)
- 정유진 학부모 | 성남성은학교
- 정은정 교수 | 인동과학대학교 물리치료학과
- 최명진 센터장 | 대진동부장애인가족지원센터
- 최미점 교수 | 경민대학교 이동보육과* 집필2팀장(발달장애 양육기술)
- 최상배 교수 | 공주대학교 특수교육과* 집필4팀장(청각장애)
- 홍경훈 교수 | 나사렛대학교 언어치료학과

협력 연구관

- 안상권 교육연구사 | 국립특수교육원 기획연구과

사업 지원

- 조경미 팀장 | 전국장애인부모연대* 사업 출판 간사
- 서은주 운영지원국장 | 전국장애인부모연대
- 윤진철 조직국장 | 전국장애인부모연대
- 김나리 운영지원팀장 | 전국장애인부모연대
- 박윤선 관리옹호팀장 | 전국장애인부모연대
- 윤애영 대학원생 | 중부대학교 인문산업대학원 발달장애지원학과

사업 수행 지원기관

- 전국장애인부모연대 중앙회 및 12개 시·도지부
- (주)크리에이티브 다다

MEMO

Handwriting practice lines for the top section of the page. The lines are organized into four sets of three horizontal lines each (top solid blue line, middle dashed red line, bottom solid blue line), providing a guide for letter height and placement.



MEMO

Handwriting practice lines for the bottom section of the page. The lines are organized into four sets of three horizontal lines each (top solid blue line, middle dashed red line, bottom solid blue line), providing a guide for letter height and placement.



양육 시각장애 길라잡이

발행일 2016년 11월 30일

발행인 국립특수교육원장 우이구

발행처 국립특수교육원
충남 아산시 배방읍 공원로 40
www.knise.kr
T. 041-537-1500 F. 041-537-1450

디자인 (주)크리에이티브 다다
02-518-1571
www.credada.com

ISBN 978-89-6095-598-1 94370
978-89-6095-595-0 (세트)
<비매품>